금주의 법구–〈중아함경〉
악한 사람과 벗하지 말라.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굳은 마음으로 혼자 살아가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47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5월 3일) 2019년 6월 5일 수요일

진각종 총인 영향력 축소 "통리원장 추천권 없앨 듯"

[분석] 총인 사퇴 진각종, 제도변화 방안 모색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아들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진각종 총인 회정 정사가 5월 24일 공식적으로 사퇴의 뜻을 밝혔다. 이로 인해 진각종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종단 내부서 재발 방지를 위해 총인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현재 총인이 갖는 통리원장 후보 추천권을 제한해 종무행정 개입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회정 정사의 사퇴 이후 새 총인을 2개월 안에 선출해야 하는 진각종이 어떤 제도변화를 이끌어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진각종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종단은 10여 년 전 전 · 현직 통리원장의 갈등으로 인해 인의회(원로회의)에 부여된 통리원장 후보 추천권을 없애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 제도는 통리원장 후보 추천권을 사실상 인의회 당연직 의장인 총인이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요 인사권 등에 개입할 여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여론의 발단은 회정 총인을 둘러싼 논란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이후 종의회에 통리원장 불신임안이 상정됐다가 부결된 데서 비롯됐다. 당시 진각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언론보도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총인이 통리원장에게 책임을 물으려 했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통리원장 후보 추천권이 있는 총인의 영향력 행사가 결국 통리원장에게 작용하는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진각종 통리원장 선출은 원래 종의회 고유 권한이었다. 하지만 2007년 강원도 홍천 토지 매각과 관련해 당시 통리원장 회정 정사와 前통리원장 효암 정사의 갈등이 빚어졌다. 이때 종의회도 파벌이 나뉘면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자, 통리원장 후보를 종단의 원로조직인 인의회가 추천하도록 종헌종법을 개정했다.

현재 진각종 종의회는 종헌종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 통리원장 선출제도를 종의회 고유권한으로 되돌리는 안을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감찰 · 재판기능을 동시에 갖는 현정원에 대해서도 재판권만 부여하고, 감찰권을 통리원이 행사하는 종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회정 총인의 친동생이 현정원장을 맡고 있어 제대로 된 감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진각종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제도도 사람이 부정한 마음을 먹으면 소용이 없다. 앞선 논란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스승들이 권력자 앞에 복지부동 했기에 벌어졌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럼에도 변화를 위한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 모든 종단의 종정 · 총인은 종단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상징적인 존재다. 하지만 성문법적 권한을 갖게 되면 정치집단이 될 수밖에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각종은 회정 총인의 사퇴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새 총인을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총인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인물은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유력 후보군은 서너 명으로 압축된다. 후보로는 前통리원장 혜정 정사, 前종의회의장 혜명 정사, 前교육원장 경정 정사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총인은 통리원장 · 교육원장 · 현정원장 · 종의회의장과 인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총인추대위가 선출한다. 하지만 이 역시 종의회에서 추대하는 방안과 모든 정사 · 전수가 참여하는 스승총회를 통해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진각종 통리원장 선출은 종의회서 이뤄지며, 선거권자인 종의회의원 선출은 스승총회서 이뤄진다.

한편 회정 정사는 종단기관지 밀교신문 공고를 통해 5월 31일자로 총인에서 물러난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교화의 무게를 내려놓으며 종사(宗事)의 부담을 덜어낸다"면서 "작금 종단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법문(法門)을 다스리기에는 주어진 건강이 허락지 않아 총인의 자리를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회정 정사는 이어 "참회공부 실천문제는 종지와 같다고 하신 종조님의 말씀을 좇아서 다시 수행하고 정진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아들 성추행 등 자질 논란
5월 31일자로 총인직 사퇴

통리원장 추천권 갖는 총인
행정수반 위에 군림 가능해
종의회 추대 · 직선제안 논의

2개월 내 새 총인 선출해야
혜정 · 혜명 · 경정 정사 하마평

회정 정사는 공식적으로 총인직서 물러난다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정작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아들의 성추행 의혹, 자신의 폭언 논란 등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다만 그는 "진각종단의 발전을 위해 서원하고 정진해온 스승님들과 신교도들이 진언행자로서의 한 마음, 한 뜻으로 화합종단을 이뤄 진각의 큰길을 이어주시길 서원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회정 정사는 올해 초 진각복지재단에 근무하는 아들의 여직원 성추행 의혹과 함께 자신의 폭언 · 욕설 녹취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서울교대 불교연구회는 5월 29일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서울교대 불교연구회는 1995년 폐부된 서울교대 불교학생회를 전신으로 하고 있다. 서울교대 불교학생회는 사라졌지만 동문들은 기금 모연 등을 진행했고, 25년만에 불교연구회라는 명칭으로 재건하게 됐다. 사진은 창립법회에서 불교연구회 학생들과 전신인 불교학생회 졸업생 선배들이 밝게 웃는 모습. 사진= 박재완 기자

동문 후배사랑, 불교동아리 되살렸다

서울교대 불교연구회 25년 만에 재건

1995년 맥 끊긴 안타까움
졸업생 정기모임서 결의

5월 29일 '불연' 창립법회
마음공부, 명상 등 테마
35명 회원 모집해 재건

"대학교에 다닐 때 불교에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인생에서 겪는 고비를 불심으로 극복했고, 학창시절 만난 법우들은 인생의 도반이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이제 후배들에게도 돌려주고자 하는 원을 세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후배님들을 위해 어떠한 것도 마다 않고 돕겠습니다."

졸업한 동문들이 힘을 모아 맥이 끊어졌던 불교학생회를 25년만에 복원해 눈길을 끈다. 화제의 대상은 서울교육대학 불교연구회(회장 박정인, 이하 불연)다.

서울교대 불교연구회는 5월 29일 인문관 세미나실에서 '불연'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불연의 전신은 1970년에 창립된 서울교대 불교학생회다. 서울교대 불교학생회는 한때 입회 회원이 100명을 넘기도 했지만 1995년 지도교수 정년퇴임과 함께 사라졌다. 불연이 다시금 생명을 찾게 된 원동력은 졸업생 선배들의 끊임없는 노력이었다.

학내 불교동아리가 사라졌어도 졸업생들은 1년에 4차례 정기적으로 모여 템플스테이나 사찰순례를 통해 유대를 이어왔다. 그러던 중 재학시절 활발한 불교학생회 활동을 했던 조학규 前 서울북부교육청 교육장이 초빙교수로 오며 원력이 하나로 모였다.

정성룡 불연 동문회장은 "동아리 재건을 목표로 기금을 모으고 있었다. 그러던 중 조학규 선배가 교수로 초빙됐다는 소식을 들었고, 구덕회 교수도 인연이 되어 지도교수로 모셨다. 이후 서울교대 불교연구회 창립추진위를 조직해 재건을 준비해왔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지도교수를 맡을 현직교수와 선배들의 기금 모연 등 외부 지원이 있었지만 정작 학생회 주체인 불자 학생들을 모으는 것이 난관이었다.

졸업생들은 조학규 교수연구실에서 매주 회의를 하며 머리를 모았다. 이들은 모은 기금을 바탕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교수연구실 앞에서 부스를 만들고 명상과 템플스테이 등 불교콘텐츠를 홍보했다. 동문과 불자 교수들의 열정은 통했다.

조학규 교수는 "처음에는 5명만 모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35명이 신입 회원으로 가입했다"며 "오랜 공백 후에도 이처럼 학생들이 찾아온 건 기적"이라고 말했다.

'불연' 회장을 맡게 된 박정인 회장(3학년)은 "현재 회원 중 불자는 2명에 불과하지만 다들 관심이 높다"며 "교대는 방학기간 기숙생활을 많이 한다. 친구들과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은 큰 힘이 된다.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체험, 선지식 법문 등 다양한 문화활동 등으로 학생회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불교학생회가 아닌 불교연구회로 새롭게 이름을 달게 된 계기는 학생들의 불교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이었다.

이날 창립법회에는 함께 힘을 모은 20여 졸업생들과 박유진 대불련 회장을 비롯한 덕성여대 불교학생회원, 김경성 교대 총장 등이 함께 참여해 동아리 재건을 축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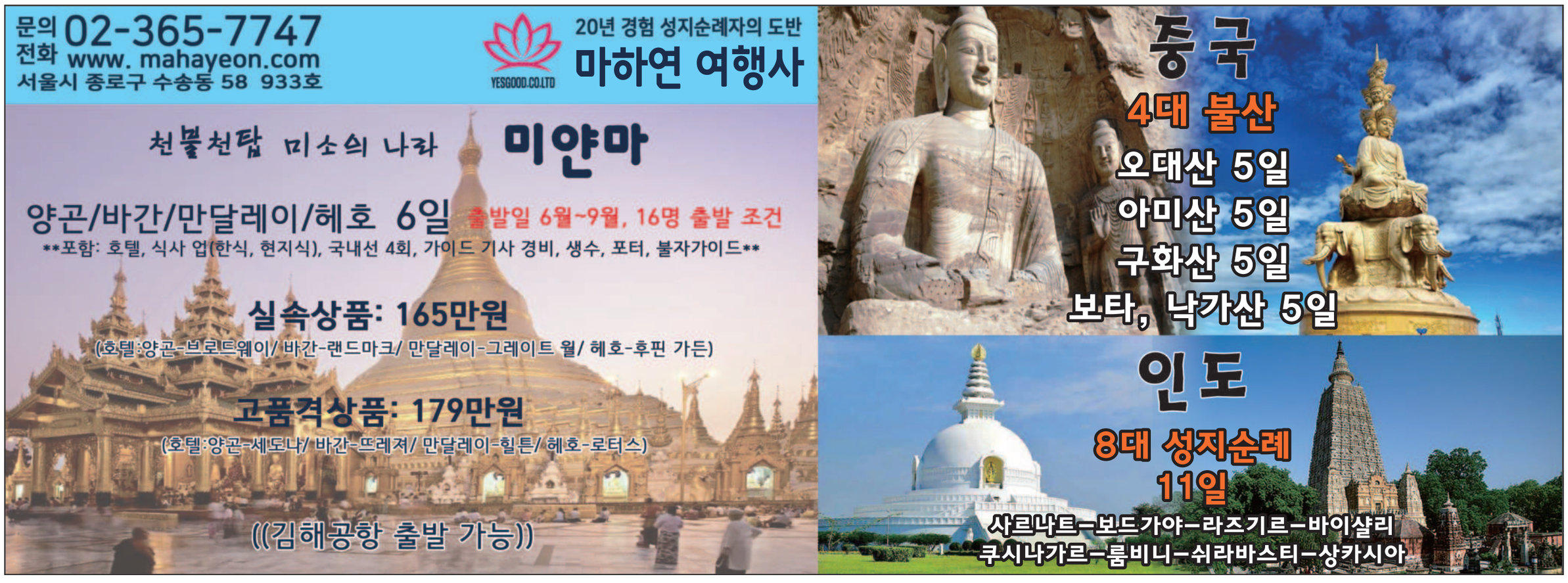
불교학생회 18기인 한자경, 원영식 선생은 "살아가면서 가장 잘했던 일이 대학교서 불교동아리를 했던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스님들 법문 들으러 순례가고 공강시간에는 함께 모여 경전 공부에 머리를 맞댔던 것이 학창시절 소중한 추억"이라며 "동문들 모두 나라를 되찾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불연' 은 2학기부터 정식 동아리방을 배정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불교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6월 경 북한산 중흥사에서 템플스테이도 갖는다. 후배들을 위해 비용 일부도 선배들이 지원할 예정이다.

지도교수를 맡게 된 구덕회 교수는 "학창시절 가장 인기 있었던 동아리가 바로 불교학생회였다. 최근 불교동아리들이 재창립되는 곳이 늘고 있어 기쁘다"며 "학생들이 졸업 후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 불교가 지닌 마음공부를 통해 아이들 마음도 함께 어우러 만지는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호국보훈의 달, 불교계 호국행사는 A5 | 가야문화진흥원 학술대회 – S.R.바트 의장 기조강연 A7



조계종, 문화재관람료 입장 밝힌다

본사주지협의회서 초안 공유, 6월 중 발표

해묵은 불교계 현안은 '문화재관람료' 논란에 조계종이 공식적인 종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5월 30일 쌍계총림 쌍계사에서 제62차 회의를 열고, 총무원 측이 마련한 문화재관람료 입장문 초안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6월 중 종합적인 의견을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원과 본사주지협의회에 따르면 입장문에는 △불교계의 문화재 보존 노력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사찰토지가 편입되고 수행활동에 침해를 받은 점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정부의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문화재관람료 논란은 국립공원이 국가소유 부지라는 오해 등에서 비롯된 게 많다. 정부의 해결의지도 부족해 모든 부담을 불교계가 떠안고 있다"며 "종단차원에서 강력한 주장을 담아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민과 불교계가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백만원력 결집불사에 각 본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되, 단순히 모연보다는 불자들의 마음을 결집하는 방향으로 사업 취지를 살려 지역 결집대회를 열 것을 논의했다. 아울러 조계종 노조와 관련해 본사주지스님들은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모았다.

덕문 스님은 "노조의 인정 문제를 떠나 조계종은 교구본말사의 분담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 영업체와는 다르다는 게 본사주지스님들의 공통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윤호섭 기자

'성추문 의혹' 대흥사 주지 월우 스님 사직

5월 29일 "출가자 본연 자세로 돌아가겠다"

여직원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해남 대흥사 주지 월우 스님이 임기 만료 2개월여를 앞두고 주지직에서 물러났다.

월우 스님은 5월 29일 대흥사 용하당에서 지역언론 기자들을 불러 최근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수행자로서 참회한다. 세간에 떠돌던 소문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출가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뒤 종무소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지 직무대행은 부주지 법인 스님이 맡는다. 대흥사는 빠른 시일 내 산중총회를 열고 차기 주지를 선출할 계획이다.

한편 월우 스님의 성추행 의혹은 해남의 한 지역신문 보도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 월우 스님은 모 사찰 조문을 다녀오다 차안에서 여직원과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 월우 스님은 "기지개를 펴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을지 모르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흥사 신도회는 면담을 요청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책임을 요청했다.

윤호섭 기자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단독 입후보

종법상 무투표 당선 확정… 편백운 스님 마찰 예상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7대 총무원장선거에 선암사 주지 호명 스님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5월 30일 전했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는 후보 등록 마감 즉시 자격심사를 열어 호명 스님의 자격에 이상 없음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호명 스님은 사실상 차기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셈이다. 태고종은 총무원장 후보자가 단독 입후보 시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다.

태고종 중앙선관위는 "종단사태가 급박해 자격심사를 바로 실시했다. 선거일인 27일에는 선거인단에 투표가 없다는 걸 공지하고,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교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불신임 된 편백운 스님이 선거를 인정하지 않고,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마찰이 예상된다. 편백운 스님은 앞서 27일 '선거중지 특별담화문'을 내고 "중앙종회가 억지로 결정하고, 중앙선관위가 밀어붙이는 총무원장선거는 원천무효"라며 "누가 총무원장에 뽑힌다고 할지라도 승복할 수 없다.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도반HC 브랜드화, 책임경영제 개편

6월 1일부터 4개 자회사 분야별사업 전담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가 6월부터 4개 자회사를 통해 분야별사업을 전담한다. 도반HC 내 기존 부서와 자회사를 병합했으며, 사업 독립성을 높여 책임경영제를 실시한다. 지난해 말 총무원장의 당연직 대표이사를 분리하고,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이 대표이사를 맡은 데 이은 두 번째 변화다. 도반HC는 책임경영제를 통해 불교계뿐만 아닌 일반사회로의 수익을 창출, 조계종 승려복지기금 등 종단 재정 확충에 보탬이 되겠다는 방침이다.

㈜도반HC는 최근 이사회 결의를 통해 6월 1일자로 사업부서와 자회사를 병합, 조직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도반CA(사장 이영호), ㈜도반미디어(사장 오시현), ㈜조계종출판사(사장 최승천), ㈜도반기획(사장 이상종) 등 4개의 자회사가 각각 관련 사업을 전담한다. 각 자회사에 사장이 선임되면서 사업체별 책임경영제가 시행된 것. 사실상 자회사를 통한 도반HC의 브랜드화가 강화된 셈이다. 기존에는 자회사 외에도 도반HC 내에 비담사업부(디자인), 승소사업부(유통) 등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자회사와 일부 사업분야가 겹치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편에 따라 도반CA는 OEM · 유통 · 무역 · 종단 달력보급 · 부동산 컨설팅 등의 사업을 도맡는다. 종단 부동산 종책 수립을 지원하고, 사찰과 신도의 효과적인 부동산 관리를 돕는다. 부동산 매매 관리뿐만 아니라 분쟁 및 민원 해결, 주택 및 상가 중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특히 생활용품을 보급하는 브랜드 승소몰을 운영하면서 사찰과 영농조합에서 생산된 우수 상품을 보급한다.

사업부서 없애 자회사 병합
도반CA · 미디어 · 출판 · 기획
불교계 사업전개뿐만 아닌
일반사회 진출해 경쟁 예정

도반미디어는 IT · 영상콘텐츠 개발, 간행물 · 디자인 기획물 제작을 총괄한다. 기업 잡지 · 책 · 브로슈어 · 카탈로그 등 소형 인쇄물 디자인과 종단 내 인쇄물, 출판사 단행본과 광고 등을 전담한다. 또한 온라인 매체 전문 서비스인 '보리수' 문자전송 서비스와 SNS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홈페이지 관리 등도 추진한다. 향후에는 미디어 모바일 플랫폼을 비롯해 음원 · 오디오매체 사업도 전개할 예정이다.

조계종출판사는 도서 기획, 편집, 제작, 유통 등을 맡는다. 불교전문서점을 운영하면서 서적총판사업을 한다. 도반기획은 전시행사 기획부터 행사대행, 연예 에이전시를 중점사업으로 한다.

도반HC의 이 같은 개편은 "물 · 달력 장사한다"는 스님과 불자들의 기존 인식을 바꾸기 위한 결정이다. 도반HC 관계자는 "지난해 대표이사 변경과 함께 사실상 2기가 출범하면서 조직 전반에 대한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이번 개편은 전문성과 사업 독립성을 확보해 일반사회 업체와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도반HC는 올해 자회사별로 나눈 업무영역에 내실을 기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영업 확대에 나선다. 특히 불교계를 대상으로 한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사회분야로 진출해 경쟁할 계획이다.

도반HC 사장 주혜 스님(조계종 사업부장)은 "조계종 사업지주회사로서 종단과 교구사찰, 단체의 재정확충을 지원하고, 종단 목적사업 기여와 사회공헌을 사명으로 경제생활공동체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며 "종단과 불교계, 대사회를 위한 선순환 경영전략을 수립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도반HC 브랜드 자회사

㈜도반CA
OEM · 유통 · 무역
달력보급 · 부동산

㈜조계종출판사
도서 기획, 편집, 제작
서점운영 · 서적총판

㈜도반미디어
IT · 영상콘텐츠 개발
간행물 · 기획물 제작

㈜도반기획
행사 기획 · 대행
연예 에이전시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에 현문 스님

5월 29일 임명 "산중화합 · 총림발전에 최선을"



영축총림 통도사 신임주지에 노천문 도회장 현문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영축총림 방장 성파 스님은 5월 29일 아침 조계종 총무부에 현문 스님에 대한 신임주지 추천서를 제출, 이날 오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현문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서 원행 스님은 "불지종가 총림이어서 많은 분들이 신임주지 임명에 관심을 가졌다. 소임이 큰 만큼 총무원도 교구본사주지협의회와 함께 종단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현문 스님은 "통도사에 인재가 많다. 10여 년 전에 주지를 할 때와는 기분이 많이 다르다"며 "종단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현문 스님은 임명장 전달식 이후 기자들과 짧은 간담회를 통해 산중화합과 총림불사, 불교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문 스님은 "영축총림은 한국불교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방장 스님 주도 하에 염불원까지 마련해 총림으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췄다"며 "미력하나마 방장 스님을 잘 모시고 총림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현문 스님은 이어 "십 몇 년 전에 주지 소임을 살았지만 세월이 많이 흘러 개인적으로 성숙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대중화합과 통도사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겠다"며 "별도의 주지 진산식은 생각하지 않는다. 방장 스님께서도 하지 않으셨기에 진산식 비용을 다른 방향으로 회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지 임명식에서는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건립을 위해 통도사가 현지에 소유한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대화도 오갔다. 통도사 출신으로 인도에서 활동하는 붓다팔라 스님은 "은사스님께서 부다가야에 한국사찰을 짓고 싶어 하셨다. 부다가야에 150개의 사찰이 있지만 저희가 확보한 부지가 7000평으로 가장 넓다"며 "종단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도움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현문 스님은 "본사차원에서 백만원력 결집불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 통도사 스님들이 인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에 힘이 합쳐진다면 한국사찰 건립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원행 스님은 "부다가야에 사찰 건립하는 데 제약이 많다고 들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 되는대로 통도사와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현문 스님은 명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6년과 1970년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통도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뒤 통도사 자장암 감원, 통도사 주지, 조계종 총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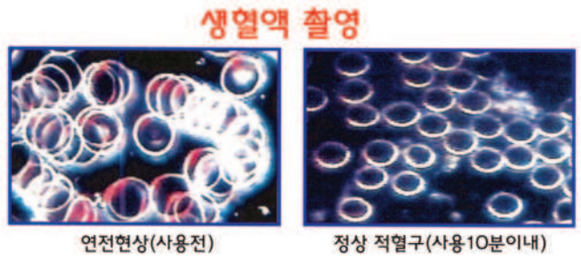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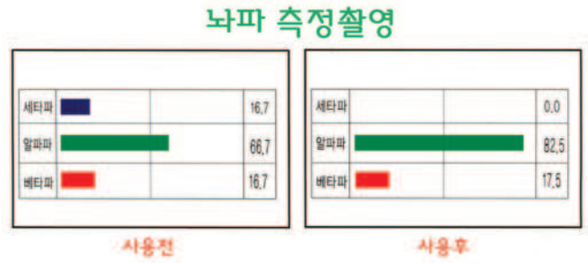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8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어깨, 허리통증, 방사능 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검버섯 제거 현상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조계사 도농상생 활성화 앞장선다

5월 27일 의성군 농산물 유통 견학

2011년부터 각 군과 MOU
법회마다 특색있는 장터 개설
군마다 2억원 이상 수익 창출
신도 "좋은 농산품 접해 만족"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사 신도대중들이 의성 사과선별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서울 조계사가 도농상생의 새 모델을 개척하고 있다. 함평 국화축제에 이어 다양한 지역과 도농상생을 위한 MOU를 맺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조계사는 5월 27일 의성 대곡사 성지 순례를 겸해 의성군에 위치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마늘종합타운 및 마늘 테마파크를 견학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사 선림원장 남전 스님, 포교국장 상범 스님, 템플국장 자윤 스님을 비롯한 신도 80여명이 참석했다.

조계사와 의성군은 2017년 3월 '도농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의성 브랜드쌀(의성眞쌀)을 공양미로 선정한 바 있다.

특히 초하루법회에서 지역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6차례 개설해 2억여원의 지역농산물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올해도 7월, 8월 10월중 3차례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 지역농산물을 홍보 및 판매할 예정이다.

조계사 신도들의 방문에 의성군 측은 반색을 표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도입장에서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과 직거래 활성화가 화두"라며 "서울 대표사찰인 조계사가 적극적으로 도농상생에 나서줘 매우 감사하다.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무엇보다 의성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해줘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조계사의 도농상생 프로젝트는 2011년 함평 국화축제를 통해 시작됐다. 매년 10월 열리는 국향대전을 기해 조계사에서 함평 국화축제를 홍보하고, 이와 함께 사찰에서 함평군의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 호평을 받았다.

이후 조계사는 주지 지현 스님 부임 이후 이를 더욱 확대해 화천군, 강진군, 의성군, 해남군과 MOU를 체결, 매월 초하루 때마다 돌아가며 지역 농촌의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있다.

직거래장터는 시중 가격보다 20% 저렴할 뿐더러 생산지에서 직접 농민들이 가지고 올라오는 품질에 신도들과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다.

조계사 신도 김연행 씨는 "법회 후에 사과와 쌀 등을 사간다"며 "좋은 물건을 구해서 좋고 무엇보다 농민들을 돕는 것 같아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농상생의 장에는 각종 특화작물을 판매하는 것까지 확산되고 있다. 영암의 무화과 가공품, 대봉감 말랭이, 함평 찹쌀고추장, 어성초 분말 등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들도 나와 인기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예로부터 사찰은 사하의 농어촌과 함께 발전해 왔다. 도시화된 현대 사회에서 산중 사찰 외에 도심사찰도 농어촌과의 상생의 모델을 찾을 수 있다"며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군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농업인에게는 소득을, 신도들과 시민들에게는 우리 농산물을 쉽게 접하는 도농상생의 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마음선원, 고성 산불피해 후원

한달간 모은 6800만원 상당 냉장고 102대 기증



조계종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및 전국 지원은 5월 29일 강원도 고성군청을 방문해 산불피해 이재민에게 전달해 달라며 6800만원 상당의 냉장고 102대를 기탁했다.

강릉지원도 4월 16일
옥계면에 후원품 전달해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주지 혜솔 스님) 및 전국 지원은 5월 29일 강원도 고성군청을 방문해 산불피해 이재민에게 전달해 달라며 6800만원 상당의 냉장고 102대를 기탁했다.

이 자리에서 이경일 고성 군수는 "고성지역 산불피해 이재민은 총 424세대로 이중 전세임대주택을 희망한 82세대가 입주계약을 완료한 상태이며, 임시 조립주택은 251세대가 입주를 희망했으며, 6월 중순까지 이재민 가구에 임시 조립주택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조계종의 대표적인 비구니 사찰인 한마음선원측에서 보내주신 정성스런 후원 생필품은 피해 주민들에게 분명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한마음선원 본원 이사장 스님과 주지 스님을 대신해 이날 성금을 전달한 한마음선원 강릉지원장 혜인 스님도 "한마음선원 본원과 지원 신도님들의 동체대비 정신으로 마련한 이 후원물품이 고성 산불 피해자 주민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며 "하루빨리 고성 지역이 원상복귀돼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처님 전에 발원 드리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산불은 지난 4월, 강원도 고성을 시작으로 속초, 강릉, 동해, 인제까지 대형 산불이 번지면서 산림피해 면적이 총 1757ha에 달했다. 산불로 인해 1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 당했으며, 1,20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대규모 피해를 입어, 피해 주민들이 실의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에 앞서 한마음선원 강릉지원(지원장 혜인)은 4월 16일 산불피해 지역중 하나인 강릉시 옥계면 사무소를 방문해 800만원 상당의 가스렌지와 커피 포트 등 생필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강원도 고성=김주일 기자

종교계 사회적기업 소셜마켓 열린다

한국을 대표하는 3대 종교가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서로의 사례를 공유한다.

불교사회적경제지원본부(본부장 박주언)는 6월 20일 오전 11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예술공연장서 불교·개신교·가톨릭 등 3대 종교가 함께하는 '2019 자비와 행, 사회적경제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불교 9개 기업, 개신교·가톨릭 각각 6개 기업, 진흥원 1개 등 총 22개 기업이 조계사 경내에서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에 나선다.

또한 오후 2시 30분부터는 전법회관 3층 회의실서 '3대 종교 성직자 사회적경제 활성화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서는 각 종교인들이 종교계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을 공유하고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불교사회적경제지원본부는 "사회적경제의 혁신적 포용 성장과 가치 확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02)722-7009

윤호섭 기자

환경정책·국제교류 기구 '새 출발'

조계종 제8기 환경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위촉


5월 30일 위촉된 환경위원회 위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불교계 환경정책을 모색하고 사회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위원회와 한국불교 세계화 전략을 수립하는 국제교류위원회가 제8기를 맞았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5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제8기 환경위원회와 국제교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먼저 환경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16명의 위원이 위촉장을 받았다. 위촉 위원은 △무관 스님(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장) △백성 스님(사단법인 한국로드킬협회 공동대표) △현종 스님(강릉 현덕사 주지) △제정 스님(불교문화재연구소장) △인광 스님(월정사 자연명상마을원장) △인경 스님(통도사 교무국장) △서재영 교수(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신준환 교수(동양대 산림비즈니스학과) △오충현 교수(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유정길 운영위원장(불교환경연대) △이병인 교수(부산대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최송현 교수(부산대 조경학과) △홍석환 교수(부산대 조경학과) △김규효 프로듀서(KBS제작본부) △정연만 수석부회장(조계종 중앙신도회) 등이다. 임기는 3년.

환경위원회는 위촉식 이후 제1차 회의를 열고 무관 스님을 위원장으로, 이병인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와 함께 올해 불교환경의제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정책환경연구 실시 등을 사업계획으로 확정했다.

또한 국제교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 명법 스님(은유와마음연구소 대표), 쿤상 스님(서울 네팔법당 주지), 담마끼띠 스님(아산 마하위하라센터 주지), 박영환 교수(동국대 서울 중어중문과), 홍희연(국제팀 영어 전문) 씨가 위촉됐다. 임기는 2021년 5월 29일까지 2년이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자수 가사 등 직물문화재 보존 나선다

문화재보존과학센터, · 서울공예박물관 MOU 체결

자수 가사, 다라니 주머니 등 직물문화재 보존이 전문화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이동식)와 서울시 서울공예박물관(관장 이은주)은 5월 21일 서울시청 6층 회의실에서 '직물문화재 보존처리 및 연구 성과 홍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직물문화재 보존처리를 선도하는 문화재보존과학센터와 2020년 개관예정으로 약 5,000점에 달하는 직물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서울공예박물관이 직물문화재의 보존과 전시 활성화를 위해 이뤄졌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 △직물문화재 사진과 연구자료의 공유 △보존처리와 과학적 상태조사 △보존처리를 마친 유물에 대한 전시 △직물문화재 책자 발간 등을 협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협약에 지난 2015년 문화재보존과학센터가 보존처리를 마친 국가민속문화재 제42호 일월수 다라니 주머니의 보존처리 과정과 연구 성과를 2020년 서울공예박물관 개관 전시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4월 보존처리를 시작한 보물 제654호 자수가사의 현장 기록도 빠짐없이 축적해 전시 책자로 발간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직물문화재 보존, 전시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제3회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 학술대회 :

주 제 선종사에 있어서 대행선의 선적 위치

일 시 2019년 6월 15일 (토) / 9:30 ~ 17:30

장 소 경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 3층

[선종사에 있어서 대행선의 선적 위치]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에서 제3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합니다.

—

올해는 대행선사가 탄생하신지 92주년이며, 열반하신지 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선사께서는 신명을 아끼지 않고 수행 정진하셨고, 그 증득한 바를 평생 중생교화로 회향하셨습니다. 선사의 가르침을 널리 알려 홍익중생하기 위하여 이제 본 연구원에서 [선종사에 있어서 대행선의 선적 위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일년간 공부한 바를 펼치려하오니 많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1부 | 개회식

09:30 ~ 10:00
접수

10:00 ~ 10:30
개회식

2부 | 학술발표 (오전) 10:50 ~ 12:10

사 회 … 이병욱 교수(고려대)

10:50 ~ 11:30
발표 : 정준영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
논제 : 붓다와 대행선사의 정학수행 비교연구
[니까야(Nikāya)와 《한마음요전》을 중심으로]
논평 : 조준호 교수(고려대)

11:30 ~ 12:10
발표 : 이석환 교수(동국대)
논제 : 하쿠인(白隱)과 대행의 대중포교에 관한 연구
논평 : 원영상 교수(원광대)

3부 | 학술발표 (오후) 13:00 ~ 17:30

사 회 … 김호귀 교수(동국대)

13:00 ~ 13:40
발표 : 오지연 교수(동국대)
논제 : 법화천태 교관과 대행선
논평 : 최동순 교수(동국대)

13:40 ~ 14:20
발표 : 박재현 교수(동명대)
논제 : 한국 근대 선불교의 개혁 노선과 깨침의 사회화
논평 : 박인석 교수(동국대)

사 회 … 이상호 박사(서강대)

14:40 ~ 15:20
발표 : 김방룡 교수(충남대)
논제 : 한국 선종사에 있어서 대행선의 위상과 의의
논평 : 정 도 스님(동국대)

15:20 ~ 16:00
발표 : 오경후 교수(동국대)
논제 : 한국 선종사에서 대행선의 가치
논평 : 정영식 교수(성균관대)

좌 장 … 한상길 교수(동국대)

16:20 ~ 17:30
토론광장 및 마무리

“장애인 포교, 인식 변화부터 시작”

조계종 교육원, ‘불교와 청각장애’ 연수 교육

5월 29~31일 총무원 회의장서 장애인 주제 종단 차원 첫 연수
현황부터 포교론 · 수화까지 배워
“인식 차 확인… 관심 갖게 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교육원은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불교와 청각장애인’을 주제로 연수 교육 진행했다.

‘자비의 종교’라고 말하는 불교에도 턱 없이 부족한 포교 분야가 있다. 바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다. 물적인 지원과 환경이 모자란 것보다 더욱 문제는 불자와 스님들의 장애인 인식에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승려 연수교육이 진행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불교와 청각장애인’을 주제로 연수 교육 진행했다. 장애인 포교를 주제로 한 인증교육은 있었지만, 종단 차원의 전문 연수 교육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사 장애인전법팀 원심회가 강의를 주관한 이날 연수 교육에는 전국 각지에서 신청한 30여 명의 스님들이 수강했다. 강의는 장애 인식부터 불교 포교 현황과 제언, 수화 등이 이뤄졌다.

첫 날에는 한국 장애인 현황과 불교의 인식, 포교 현실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강사로 나선 김철환 장애인 벽 허물기 활동가(원심회 회원)는 현재 불교의 장애인 포교가 이웃종교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열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연구와 설문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종교 생활을 통해 소속감과 안정을 찾지만, 정작 불자 장애인은 신앙을 가진 장애인의 7.2%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개신교는 61.5%, 가톨릭은 12.6%에 달한다.

이 같이 참담한 결과는 ‘제로’에 가까운 장애인 포교 환경에 있다. 한국장애인선교연합회에 가입한 교회는 113개지만, 조계종 지정 장애인 전법도량은 서울 화계사, 광림사 등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수준이다. 또한 1400여 명의 수화 통역사 중 50명만이 불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철환 활동가는 “현재 장애인들은 불교를 접할 기회을 박탈당하고 있으며, 그나마 불교를 신행했던 장애인들도 개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김철환 활동가는 무엇보다 불자와 스님들의 인식 부재가 낙후된 포교 환경의 요인으로 지목했다. 장애인 포교를 위해서는 인식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김철환 활동가의 주장이다.

그는 조선시대의 장애 인식을 선례로 들었다. 조선시대에는 맹인 국가조직인 ‘명통시’가 구성돼 왕의 행차 등에서 경을 읊었다. 또한 조선 초 재상 허조는 중증척추장애인이었고, 일각정승 우의정 윤지완은 별호처럼 다리 한쪽이 없었다. 모두 장애가 있었지만, 차별없이 자신의 능력을 펼쳤다는 것이다.

김철환 활동가는 “지금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모두 서양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동양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면서 “다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이를 불교가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강한 스님들은 장애인 인식과 현재 불교 포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지리산 선림사에 주석하고 있는 현등 스님은 “장애인 인권에 대해 최근 관심을 갖게 됐는데 마치 종단에서 연수 교육이 마련돼 수강하게 됐다”면서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꼭 필요한 교육이다. 이 같은 교육은 애초 승가기본교육에서부터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동국대에 재학 중인 서담 스님은 “장애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됐다. 관련 제도와 지식들을 알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봉선사에 주석하고 있는 현진 스님도 “향후 불교가 꼭 포용하고 가야 할 포교 계층이 장애인”이라며 “이 같은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포교 원력이 정립됐으면 한다”고 했다.

자살예방 위한 4대종교 힐링콘서트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이 함께 모여 자살 예방을 위한 콘서트를 개최했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선업)은 5월 3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4대 종단과 함께하는 생명문화힐링콘서트’를 개최했다.

불교상담개발원은 그동안 서울시와 함께 ‘살사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살사’는 ‘살자 사랑하자’의 줄임말로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교와 서울시가 협력하고 있다.

이날 행사서는 콘서트 1부 ‘삶과 죽음에 대한 열린 TALK’ 시간에 4대 종단 전문가와 함께 하는 소통시간이 열렸다.

불교상담개발원장 선업 스님을 시작으로 노용찬 빛고을나눔교회 담임목사, 민성효 원불교여성회 지도교무,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 센터장 이정민 신부는 각 종교의 삶과 죽음에 대한 토크를 이어갔다.

2부에서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를’ 시간에는 자살의 아픔과 위로에 대한 영상 시청과 각종단 별 기도문 낭독 시간도 열렸으며 불자가수 김무한 씨의 공연도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태권도’로 불교 포교 나선다

세계불교태권도協, 6월 9일 은해사서 창립총회

돈관 스님 명예총재로 추대
현직 관장 · 코치 80여 회원
하반기 태권도대회 계획도

스포츠 포교 분야에서 불교 불모지로 손꼽혔던 ‘태권도’에도 불교 포교를 위한 전진기지가 설립된다.

세계불교태권도협회는 오는 6월 9일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템플스테이관 2층에서 창립총회 및 법회를 봉행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태권도로 통해 홍포하기 위해 창립되는 세계불교태권도협회는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을 협회의 명예총재로 추대했으며, 총재로는 태권도 9단인 김욱한 ㈜진영정밀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현재 협회에는 현직 관장, 코치, 심판과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80여 명이 회원으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불교태권도협회는 공식 출범과 함께 조직화와 공식 대회 개최에 사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문섭 세계불교태권도협회 고문은 “현재는 대구 경북에 협회가 있지만, 향후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전국 광역시에 지부를 설립하고 조직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는 불교 태권도대회를 열어 불자 태권인의 기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이 같은 대회를 불교인의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권도 포교에 호국불교의 산실 은해사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불자 태권도인들이 불법홍포를 위해 마음을 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면서 “포교에 앞장서는 불자 태권도인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불사라고 생각한다. 은해사는 세계불교태권도협회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불자 대학생으로 활발한 활동 서원”

청년대학생 불자 합동 수계법회

청년대학생 불자 중 어린이 · 청소년기 종교를 갖지 않고, 대학교 동아리 활동 및 소규모 모임을 통해 불교에 입문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특정 사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많은 대학생 불교동아리 및 소규모 청년법회의 불자들이 수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수계법회가 열려 화제다.


대학생 불자들이 연합수계법회에서 연비를 받고있다.

청년대학생 전법단(단장 무각)은 5월 25일 서울 조계사 극락전에서 연합수계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수계법회서는 대불련 서울지부를 중심으로 전국 7개 지부 29개 지회의 95명의 학생들이 오계를 지키겠다며 팔에 증표를 새겼다.

이날 식전행사로 청년대학생 전법단장이자 전계사인 무각 스님, 전법단 사무국장이자 이화여대 지도법사 효석 스님, 서울여자간호대 지도법사 지인 스님, 서울대 지도법사 운성 스님, 성신여대 지도법사 자우 스님 등이 법사로 참여했다.

법회에는 100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또 동국대 정상훈, 서울여자간호대 김가언, 국민대 구경모 회장에 대한 포교원장 표창도 진행됐다.

조계종 포교원 청년대학생전법단장 무각 스님은 “불교는 모든 존재들이 바라는 가치를 실현시키는 것”이라며 “그 일을 이루려면 첫 번째 관문이 삼귀의계와 오계”라고 강조했다.

함승연 한국외대 학생은 “연희단 등을 통해 불교행사에 많이 참여할 생각”이라며 “대불련 등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현진 대불련 지도위원은 “최근 대학생 불교가 다시 활기를 띄고 있다. 끊임없는 애정을 갖고 지도해주는 스님들과 동문, 운영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불련은 8월 2일부터 5일까지 강원도 만해마을과 3대 관음성지 낙산사에서 10회 영 부디스트 캠프를 진행한다.

노덕현 기자

외국인 인플루언서들 “템플스테이 매력적”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이 소셜미디어에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주한 외국인들에게 템플스테이의 매력을 알렸다.

문화사업단은 “5월 23~24일까지 평창 월정사에서 외국인 SNS 인플루언서 팸투어를 성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주한 외국인 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월정사에서 예불, 사물체험, 108배, 연꽃등과 염주 만들기, 스님과의 차담에 참여했다.

팸투어에 참가한 루카스 쿠처(Lukas Kutscher, 대학원생)는 “한국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를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나기 어려운 스님과의 차담 덕분에 평소 불교에 갖고 있던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묵 혜자)는 6월 5일 서울 현충원 군승 묘역을 참배한다. 사진은 지난해 이뤄진 군승 묘역 참배의 모습.



태고종 한국불교영산재보존회는 6월 6일 봉원사서 '호국영령을 위한 영산재' 를 봉행한다.

6월 불교, 순국선열 추모 물결 '넘실'

호국보훈의 달, 불교계 호국행사는

신성민 · 노덕현 · 하성미 기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혜자)는 6월 5일 오전 10시 서울과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순직 군승 묘역 참배를 진행한다. 군승 파송 이후 순직하여 현충원에 안장된 군승은 故 김수남 · 이동신 · 김인수 김일영 · 조시형 · 양석준 · 이승철 · 이치영 · 최웅호 · 권오성 · 권경훈 등 총 11명으로 서울 국립현충원에 3위, 대전 국립현충원에 8위가 안장되어 있다.

6월 5일 진행되는 서울 현충원 군승 묘역 참배는 군종교구장 혜자 스님이 주관하며 재경지역 군승 17명이 동참한다.

이와 함께 조계종 군중특별교구는 6월 8일 10시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평화광장에서 제19회 호국영령 천도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호국영령 천도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스님들과 정관계 인사, 각 신행단체장 및 UN사령관, 참모, 한국전쟁 참전국 대사, 전국 군승법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천도법회는 한국불교 전통의례 영가청혼과 천도의식을 시작으로 호국영령 추모법회와 문화행사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날 참석한 대중들에게는 한국전쟁의 의미를 되새기는 주먹밥도 제공된다.

이밖에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5군단 호국금강사**는 6월 25일 제36회 한국전쟁 희생영가 및 호국영령 위령대재를 개최한다. 한국전쟁 참가 영가 위패가 안치된 호국 금강사는 1984년부터 매년 한국전쟁 발발일에 위령대재를 열고 있다. 이날 위령대재에는 3군 사령부 예하 현역 군승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태고종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인 영산재를 신촌 봉원사에서 봉행한다. 시민과 불자, 외국인들이 함께하는 대동 한마당으로 더욱 관심을 모은다.

한국불교영산재보존회는 6월 6일 신촌 봉원사에서 제31회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을 위한 영산재' 를 봉행한다. 영산재보존회는 매년 현충일마다 시민과 불자들을 위해 영산재를 봉행해왔다.

지역 불교계에서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이다. 해인총림 해인사는 팔만대장경을 지켜 낸 故 김영환 장군(1921~1954)을 기리는 호국 추모재를 봉행한다.

해인총림 해인사(주지 향적)는 한국 전쟁 당시 해인사 폭격 명령을 거부하며 팔만대장경을 지켜 낸 故 김영환 장군(1921~1954)을 기리는 호국추모재를 6월 18일 오전 10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진행한다.

추모재에는 합천군수를 비롯해 노병균 공군교육사령관, 최영훈 공군역사기록단장, 공군 관계자들과 유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영환 장군은 1951년 8월 17일~9월 18일 지리산 공비토벌 작전 때 해인사 폭격을 중지시킨 결단으로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을 보존토록 했다. 이 공적을 기리기 위해 해인사는 2002년 6월 17일 해인사 경내에 '김영환장군 공적비' 를 건립했다. 이어 해인사 대중들과 유가족 및 공군당국의 노력으로 2010년 8월 21일 금관문화훈장에 추서됐다.

군종교구 6월 5일 순직 군승 참배

6월 8일 호국영령 천도법회 봉행

태고종, 6일 봉원사서 영산재 개최

해인사, 매년 故 김영환 장군 추모재

진여원 · 달전사 · 법전사 등도 위령재

또한 해인사는 성보박물관에서 3 · 1 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 '號國호국, 나라의 독립을 부르짖다' 展을 진행 중이다. 전시는 6월 30일까지이며 내용은 1919년 3월 31일 해인사 홍하문에서 학인 스님 주도로 펼쳐진 독립운동과 그 밖에 해인사 주변에서 발생한 3 · 1 운동 관련 내용을 선보인다. 아울러 민족대표 중 한 명인 백용성 스님의 독립운동과 전통불교 수호활동에 대한 자료도 전시한다.

부산 진여원은 호국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며 호국영령 위령재 및 추모법회를 봉행한다.

부산 진여원(원장 남보타월)는 6월 13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부산 북구 화명3동 제3근린공원 추모비 앞에서 '제21회 진여호국영령 위령재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 를 개최한다.

오전 9시 위령재를 시작으로 11시에는 보훈가족 위안 행사 및 추모법회가 봉행된다. 위안 행사는 금당차 문화회원들의 육법공양, 참가 내빈 스님들과 보훈기관 인사들의 헌화 및 분향, 국민의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으로 이어진다. 또 53사단 장병들의 조총 발사가 군악대의 진혼곡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보훈가족을 위해 진여원은 상이용사 유가족에게 장학금과 공로자 표창도 진행한다.

한편 화명신도시 추모공원에 세워진 추모비는 진여원이 지난 2002년 주도해 제막한 것으로 한국전쟁과 월남전에서 목숨을 잃은 부산 출신 호국영령 428위를 모셨다. 호국영령 위령재는 1997년부터 추모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경남 함안 달전사(주지 원명)는 6월 6일 오전 8시 30분 경내서 6.25전쟁 격전지 전몰 군인과 경찰, 민간인들의 넋을 위로하는 '제14회 순국선열 · 호국영령 위한 무차수륙대재' 를 봉행한다. 행사는 국태민안과 지역발전을 기원하고 법요식, 화관무, 바라춤, 살풀이 등으로 진행됐다. 함안은 6.25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 가운데 하나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한 곳이다. 가장 치열한 전투지 중 하나로 꼽힌다.

주지 원명 스님은 "치열한 전투지역으로 많은 군인과 적군 그리고 민간인들이 희생 당한 지역이다"며 "순국선열을 위한 위령재로 지역민을 위로하는 행사로 매년 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한국호국불교조계종 총본산 칠곡 법전사는 6월 24일 경내 대강당에서 제42회 순국선열 호국전몰군경 위령대재를 봉행한다. 한국호국불교조계종은 매년 6월 24일 위령대재를 열고 전몰군경과 순국선열을 기리고 있다.

한국호국불교조계종 종정 혜륜 스님은 "6.25의 참상을 거울삼아 국민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길러 민족화합의 선구자적 역할과 남북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계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왕 백운사(주지 법진)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5일 오전 10시 경내 야외특설무대에서 '제5회 순국선열 호국영령 합동추모 위령재 및 선망조상 유무주고혼 합동추모 영산대재' 를 봉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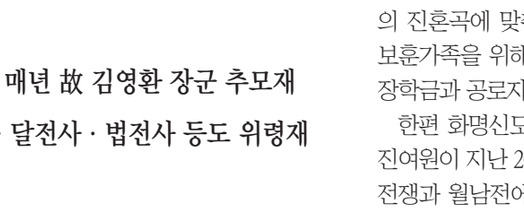
백운사가 위치한 백운산은 한국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로 인해 프랑스 참전군인을 비롯해 수많은 생명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산화해갔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백운사는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위령재와 영산재를 봉행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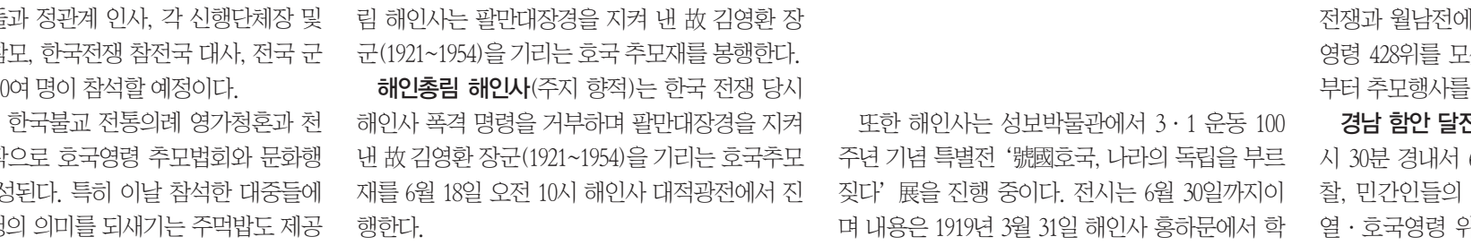
6월 9일 오전10시 대웅전에서 7일기도를 입재하며, 회향일인 15일 순국선열 호국영령 합동추모 위령재에 이어 영산재도 봉행한다. 이와 함께 사랑의 쌀 전달식도 열릴 예정이다.

www.smilebangsu.co.kr NAVER 스마일방수 검색

원각사 정대스님이 적극 추천

지긋지긋한 방수공사
완 벽 시 공





주택/아파트/빌라/공장 등 건물바닥/벽체 방수 전문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 자부심

스마일방수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253-23번지

- 비 새는 곳 100% 방수 시공 전문
- APT, 주택, 거실, 방, 베란다, 천정, 크랙, 누수 전문 방수 공사
- 옥상 우레탄 방수 공사 및 실내 에폭시 방수 전문
- 폴리 그라우팅(인잭션 방수)

시공 문의 051)754-0469 · 010-8534-9197

부산일보 2017년 2월 28일 화요일 제 22403호 19

현장서 쌓은 방수 시공 기술력 '국내1인자' 자부



스마일방수의 오상순 사장은 "하자보수의 핵심은 신용과 성실"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수영구 스마일방수는 20년간 방수 분야에 주력해 온 기업이다. 한 분야에서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기술력이다. 현장에서 쌓아 올린 시공 노하우가 경쟁력인 셈이다.

스마일방수 오상순(60) 사장은 "20년 현장을 누볐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 웬만하면 누수 지점이 어딘지 감이 온다. 건축물의 기본구조를 파악하면 누수 시나리오가 머리에 떠오르는데, 이는 경험이 쌓인 결과다"라고 말했다.

2000년 2월 스마일방수를 창업한 오사장은 창업 전에 대우건설 A/S팀 등에서 일하며, 현장의 기술력을 쌓았다. 그중에서 가장 자신 있었던 분야가 아파트 누수를 잡는 방수 기술이었다고 한다.

직접 사업에 뛰어든 이유를 오 사장은 "수요는 무한한데, 이때만 해도 방수분야에 정통한 기술자가 없었다. 나만의 기술을 시장에 보여주고 평가받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창업으로 바빠졌지만,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오 사장은 자평하고 있다. 실수 없는 방수작업 뒤 의뢰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느껴지는 보람이 크다고 한다. 큰 기업은 아니지만, 방수 분야 기술 하나만은 '국내 제1인자'라는 자부심도 생겼다.

스마일방수 고객 대부분은 매우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오 사장은 금전적인 문제보다 완벽한 시공을 중요시하는 경영철학이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방수전문 시공만을 고집하며, 한 분야를 파고들어 노하우를 쌓은 것도 만족감을 높이고 있다. 첨가약제와 자재는 특별한 것을 사용하고, 기술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 방수시공이 실패할 때는 비용을 안 받거나 전액 환불해준다.

스마일방수는 주택, 아파트, 빌라, 공장 등 모든 건축물을 시공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공 때에는 폴리그라우팅인젝션 기법과 'WS4000 1액형' 지수발포약제를 사용한다. 벽체와 천장 균열보수 및 외벽 방수는 그라우팅기법, 옥상 방수는 우레탄시공(도포), 실내주차장과 공장 바닥은 에폭시 기법으로 시공한다.

또 통상 평당 10만 원짜리 옥상 우레탄 시공엔 하도·중도·상도의 도포를 하지만, 스마일방수는 반드시 4차례의 도포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특히 마지막 도포 작업엔 햇빛 방지용 탑코팅제를 반드시 발라줘 완전한 방수가 되도록 하고 있다.

오 사장은 "수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 값싼 자재를 사용하는 꼼수는 부리지 않는다"며 "신용을 최대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백상 기자

“청소년 함께하는 산사음악회”

창원 대광사, 청소년 공연 무대 마련해 지원

경남 창원 대광사에서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가 개최됐다.

대광사(주지 서경)는 5월 25일 대광사에서 제21회 청소년과 함께하는 대광사 산사음악회를 열고 청소년을 격려했다. 대광사는 매년 청소년과 지역민을 위한 산사음악회로 청소년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



산사음악회는 대광사의 반야찬불단의 무대로 시작해 청소년 댄스팀인 ‘에이니지’가 흥겨운 음악으로 댄스 공연을 선보였다. 이어 청소년으로 구성된 듀엣 보컬팀 ‘비상구’와 걸그룹 ‘페이버릿’ 및 가수 손승연의 공연도 진행됐다.

주지 서경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산에서 설법하시기 전 음악의 신 건달바가 음악을 연주하며 법회를 거룩하게 하고 참석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며 “기쁨의 잔치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사음악회에는 창원불교연합회장 월도 스님, 마산 정법사 주지 도문 스님, 대광사 주지 서경 스님 등 사부대중 600여명이 동참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북 꿈나무 ‘끼’를 뽐내다

전북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제23회 모악축제

신록이 깊어지는 모악산 금산사에서 전북지역 불자 청소년들이 자신의 개성과 숨겨진 기량을 뽐내는 ‘제23회 청소년 모악축제’가 열렸다.

5월 25일 (사)전북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총재 성우)는 전북도내 300여 명의 중고교생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운문, 산문, 한국화 그리기, 서양화 그리기 분야로 백일장과 사생대회, 청소년 음악 페스티벌을 개최했다.<사진>



올해로 23회째 맞이한 청소년 모악축제는 자연과 인간의 친화적 요소를 제공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일환으로 마련됐다. 108배, 명상, 다도, 연꽃 등 만들기, 수묵화 그리기, 목탁 배우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가 마련돼 청소년들에게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이어 2부 행사인 음악 페스티벌에 참가한 학생들은 노래와 춤, 악기 연주 등 동아리 활동으로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생명 가치 알리는 글쓰기

부산 생명나눔, 제12회 시 · 산문 백일장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5월 25일 부산 서면 영광도서 문화홀에서 ‘제12회 생명나눔 시 · 산문 백일장’을 개최했다. 백일장은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학생 150여명이 동참했다.

백일장 시작 전 학생들은 생명존중 서약서에 서명하고 생명 가치를 존중하면서 자살하지 않을 것을 선서했다. 백일장에서 중등부는 ‘우물’과 ‘불꽃’, 고등부는 ‘마중물’과 ‘미래’가 주제로 제시됐다.

이경순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운영이사는 “글을 쓰는 것은 문화 예술 활동 가운데 최고 수준을 요구한다. 삶에 대한 깊은 사고의 깊이가 요구되는 일”이라며 “학생들이 글쓰기를 통해 생명 가치를 돌아보고 마음에 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봉축탑 밝힌 기도 성금, 이웃에 회향

부산진구불교연합회, 진구청에 성금 570만원 전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진구불교연합회가 부처님오신날 봉축기간 기도하며 모은 성금을 부산진구청에 전달했다. 연합회는 부산진구 중심가인 서면 영광도서 맞은편 거리에 봉축탑을 밝히고 기도를 이어왔다.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하며 마음을 모은 십시일반 후원금이라 의미가 남다르다.

부산진구불교연합회(회장 세운)는 5월 27일 부산진구청장실에서 성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식에는 회장 세운 스님과 회원스님들을 비롯해 서은숙 진구청장, 장강식 진구의회의장과 신도 10여 명이 동참했다.

진구불교연합회 성금은 총 570만원으로 지난 봉축을 축하하며 부산 서면거리에 불을 밝힌 점등탑 아래서 진행한 기도 탁발성금이다. 거리를 오가던 시민들이 십시일반 기부한 것이다.

진구불교연합회는 4월 25일 부산 영광도서 맞은편 로터리에서 ‘2019 부산진구 부처님오신날 점등식’을 개최했다. 점등식은 부산진구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것으로 점등식 봉행 후 5월 11일까지 매일 석가모니불 정근을 진행, 릴레이기도를 이어왔다.

동참한 스님과 불자들은 기도 외에도 시민들에게 염주를 나눠주며 봉축을 함께 축하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서서 함께 기도했고 보시함에 성금을 넣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간에 점등탑 훼손 사건이 발생했지만 진구불교연합회 스님들이 가해자를 용서하며 훈훈함을 더 했다.

봉축 의미 알린 기도 정근에
시민들 함께 동참 행복 발원
봉축탑 훼손 사건도 있었지만
가해자 용서하고 불자 거듭나

석가모니불 정근기도 수행 중이던 5월 8일 점등탑이 고의에 의해 훼손됐고, 삼광사 신도가 다음날 오전에 발견해 연합회에 소식을 알렸다. 봉축탑을 훼손한 가해자는 10일 경찰에 검거됐다. 가해자는 50대 회사원으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했으며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님들은 그를 인도해 참회할 것을 권유하고, 가해자는 삼광사서 1080배, 기장 보광사서 3000배로 참회하며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오계에도 서약했다.



부산진구불교연합회는 5월 27일 부산진구청장실에서 성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성금은 봉축 기간 밝힌 점등탑 아래서 기도하며 모은 것이다.

회장 세운 스님(삼광사 주지)은 “그 사람이 참회하고 삶의 전화위복으로 삼아 불자로서 불법을 만난 계기가 됐다면 다행”이라며 “그는 삼광사와 보광사서 참회의 절을 올리고 이번 계기로 부처님께 더욱 마음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진구불교연합회 봉축탑 기도 자비성금은 부산진구청에서 진행하는 ‘천원의 사랑, 만인의 행복’으로 회향된다. 천원의 사랑 만인의 행복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2015년 협약해 진행하는 소액기부운동이다. 부산진구청에 따르면 누적 후원금은 약 8억 원으로 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복비 및 수학여행경비 지원, 각 동별 특화사업 추진 등 복지사각지대 이웃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서은숙 구청장은 “저녁에 스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뵙곤 했는데 시민들의 정성이 모인 성금을 전달해주셔서 무엇보다 의미가 크며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회장 세운 스님은 “구민들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기도하며 모은 성금이라 저희도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 문화행사도 더해 진행한다면 봉축의 의미도 뜻 깊게 알리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탁발 수행과 기도에 대해 강조하며 “봉축탑을 밝히며 탁발하고 기도하는 수행문화가 전국 곳곳에 퍼져 더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고득락 향한 ‘득락전’ 門 열다

불교총지종 부산 정각사 ‘득락전 헌공 가지불사’

살아 있는 중생은 이고득락을 얻고 영가는 안식을 얻는 기도도량, 부산 정각사 득락전이 완공됐다. 정각사는 아미타 삼존불 점안 법회를 봉행하며 “총지종 대표사원이자 밀법도량으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했다.

불교총지종 부산 정각사(주교 도현 정사)는 5월 24일 득락전에서 ‘득락전 헌공 가지불사(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서는 아미타부처와 협시불인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이 제막식을 통해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냈으며, 대중은 통리원장 인선 정사와 함께 비밀가지의궤를 봉행하며 마음을 모으고 합장했다.

이어 종령 법공 정사와 인선 정사, 정각사 주교 도현 정사가 헌화 및 훈향했으며 이후 △참회 △오대선원 △람자관 △경과보고 △법어 △봉축사 △축사 △인사말 △감사패 증정 △축가 순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불교총지종 부산 정각사는 5월 24일 득락전에서 ‘득락전 헌공 가지불사(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법공 종령정사는 법어를 통해 득락전의 의미를 설명하며 원정 종조의 가르침과 유훈을 대중에게 전달했다.

종령 법공 정사는 “40여 년이 지난 오늘, 종조님의 유지를 받들어 커다란 결실을 보게 됐다”며 “전통사찰에서는 아미타불을 모신 곳을 극락전 혹은 미타전이라 하지만 종조님은 이고득락(離苦得樂)의 세계를 상징하는 득락전이라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살아서는 이고득락이며 죽어서는 왕생극락을 얻는 완전한 열반을 의미하신 것”이라라고 설명했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정각사는 총지종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하며, 정각사의 역사가 곧 총지종의 역사라 할 만큼 총지종 대표 사찰이다”며 “정각사에 아미타삼존불을 모시고 이제 명실상부한 밀법도량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부산 정각사 주교 도현 정사는 “정각사 득락전 헌공가지불사에 동참해 준 모든 대중에게 감사드린다”며 “불사 동참 인연 공덕으로 부처님의 가피가 세세생생 가득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득락전은 정면에는 아미타부처를 주불로 봉안했으며 좌우 통로 앞에는 협시보살인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을 배치해 어디서든 예불할 수 있는 도량을 마련했다. 삼존불에는 모두 감실을 구성 배치했으며 밀교의 만다라 세계를 입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아울러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 1114 원불이 함께 안치돼 있으며 정각사 2층에 조성됐다. 규모는 300㎡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과학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 전수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기에너지체) 고요 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제 6 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일행삼매 연구소(소장:처명)

부처님의 마음을 빗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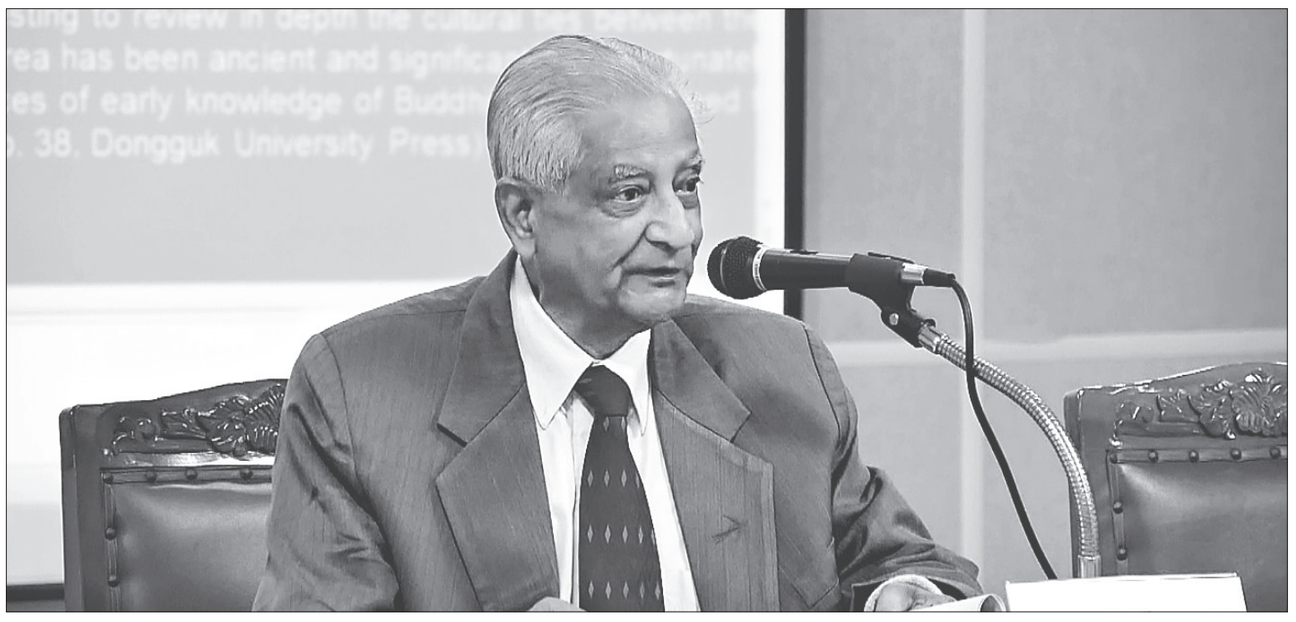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가야문화진흥원 학술대회

“한국불교, 기원전 바닷길로 전래”

주제 : 한국불교 사상과 문화
–가야불교를 중심으로
S.R.바트 인도철학회 의장



바트(S. R. Bhatt) 교수는… 현재 인도철학회 의장으로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인도 철학연구위원회 의장 및 델리대학교 철학과 학과장을 역임했다. 그의 명저인 〈불교인식론〉은 한국에도 번역 · 소개됐다.

가야문화진흥원, 동명대 인도문화연구소, 한국인도학회는 5월 25일 가야대학교 대강당 국제회의실에서 ‘가야불교의 전래 과정과 인도’를 주제로 가야문화의 원형탐색과 콘텐츠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한반도 불교 전래의 루트로 바닷길을 주목하는 논문들이 발표됐다. 또한 저명 학자인 S.R.바트 인도철학회 의장이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정리=하성미 기자

아시아 전반과 특히 한국에서 불교의 도입, 동화, 흡수 및 전승은 진지한 문화적 연구가 요구되는 놀랍고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양국이 지금처럼 물질적 재화를 거래 했을 뿐 아니라 인간과 보편적 타당함을 위해 다르마(Dharma)를 공유했습니다. 양국의 문화적 유대 관계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더 깊이 고무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인도와 한국의 문화적 접촉은 고대부터 있었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고대 교류에 대한 증거가 많지 않습니다. 불교에 대한 초기 흔적이 있지만 조사가 필요합니다. 고대 역사서술은 말로 시작해 신화와 전설로 확고해지는 ‘구전으로 전하는 전통’이 유행했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진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로만 치부해 믿을 수 없다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신화의 진실성에 대해 논의할 때 신뢰할 만한 증거와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불교 도입과 전파는 신비한 장막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명확한 역사적 기록이 부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불교는 기원전 1세기 무렵에 바닷길을 따라서 전해졌습니다. 한국에 불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보다 좀 더 일찍 한국에 전해졌다는 점은 주목해야 합니다.

허왕후의 유전적 후손들

고려의 일연 스님이 저술한 〈삼국유사(삼국편, 제3권 4장)〉에 인도 불교의 중심지였던 아요디아에서 온 인도 공주가 김수로왕(42~199)과 결혼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왕후 허황옥’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다를 통해 한국에 와서 부처상과 물품을 가지고 가야왕국의 수도 김해에 있던 호계사에 석탑을 세웠습니다. 이후 기원후 452년 이 사원은 칠지왕(King Chilji)에 의해서 보수되었습니다. 공주는 불교경전을 가지고 왔다고 적혀있습니다.

결혼에 관한 신화 및 전설은 역사성을 기초로 한 진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화와 민요 그리고 기타 문학적 증거들이 문화유산의 일부로 수집되어야 하고 부족한 증거는 현대 과학기술들을 통해 발견된 사실들과 유전적 검사 및 계보 등을 통해 좀 더 보완될 수 있습니다.

허 왕후의 자손이고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 장군의 이야기는 한국에 역사로 인정돼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허 왕후의 후손들이 70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 그리고 인천 이씨들은 한국에서 친척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인과 학자들이 오래된 유대를 발견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주목할 만한 노력입니다.

1954년에 이미 유전적인 친인척 관계를 돌아보고 확인하기 위해 현동화씨가 인도에 왔었고 그는 인도-한국 관계의 개척가였습니다. 김해 김씨 종친인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국무총리가 인도에 와서 기념비 건립을 제안하였습니다. 2000년에 허 왕후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한국에서 특별하게 가져온 거대한 비석과 함께 한국 스타일로 세워졌습니다. 그곳은 한국인의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한국–인도 교류 고대부터 바탕
인도인 허왕옥과 김수로 혼례는
해양루트 통한 불교 전래 증거
공식 인정보다 이른 시기 전파

2001년 가락 종친회의 김정준 회장이 방문하였습니다. 그 이후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아요디야를 방문하였고 또한 인도인들도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쌍카라나라얀 (Sankaranarayan) 교수는 기원후 1세기에 김수로가 가야 왕조를 건국하였고 김수로왕과 허 왕후의 혼례를 상징적 의미로 해석하였습니다.

한국–인도 교류, 언어학적 증거

불교가 기원전 1세기 또는 이른 시기에 바닷길을 통해 직접 한국에 전래되었다는 것은 바른 관점입니다. 한국에서 베다의 신앙을 실천하는 인도인 정착민에 대한 증거들도 있습니다. 고대 한국에서 환인 또는 천인을 숭배하는 것은 베다신 인드라(Indra)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불의 신을 대표하는 산스크리트어 ‘아그니(Agni)’와 한국어 ‘아궁이’의 어원적 유사성을 주목해주세요. 불을 숭배하는 방식도 역시 두 국가 모두 비슷하였습니다. 또한 카스트제도가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도 음악의 유입과 ‘Natya Sastra’의 기원과 한국에서 ‘영산회상’ 기원의 공통점을 제안한 바라타(Bharata)의 주장도 있습니다. 저명한 학자인 노기영 교수는 글 ‘한국에서 불교와 민족문화’에서 ‘서울’의 어원은 빨리어인 ‘Savatthi’에서 ‘소라보(So-Ra-Bo)’로 형태가 변화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반적으로 불교는 공식적으로 기원후 372년 한국에 소개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신라는 기원후 527년에 공식적으로 불교를 공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비공개적으로 보다 일찍 한국에 전래되었습니다. 왕실이 수용하는 것이 대중이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시기는 아닙니다. 한국에서 불교가 번창하면서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지만 그보다 앞서 초기에 인도와 한국 사이에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526년 겸익 스님은 인도에 5년 동안 머물면서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하였고 인도 승려와 함께 돌아갔습니다. 불교를 배우기 위해서 인도를 방문한 몇몇의 승려들도 있었습니다. 6세기, 특히 아쇼카 통치시기에 인도에서 가져온 철기와 물건들과 함께 불상들과 수도원들이 한국에 세워졌습니다.

日불교 전래 속 韓불교 위상

불교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어떻게 전래되었는지 언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기 522년, 고대 한국의 남서쪽에 있었던 백제왕의 명령을 받아 불교가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제왕은 일본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종교(Dharma)는 모든 가르침들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 하지만 중국의 현자들조차 통달하고 이해하기 힘들다. 만약 깨달음의 최고 경지에 도달한다면(Bodhi), 이것은 측정 할 수 없는 축복과 열매들을(믿는 이들에게) 가져다준다. 더 나아가, 이 종교는 인도로부터 한국에 왔고 양 국가의 대중들은 지금 불교의 가르침을 열렬히 따르고 있다.”(Masaharu Anesaki, 〈일본종교사〉, 53쪽)

위의 글은 인도에서 한국으로 불교가 전해졌고 불교가 한국에서 아주 높게 이미 숭배되고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인도불교의 철학적 영향

한국에서 불교는 ‘국가를 보호’하는 종교로 여겨졌습니다. 불교는 모든 왕조들에서 왕실의 후원을 받았고 한국의 지배자들에게 사회-정치적 틀을 제공하였습니다. 불교는 많은 지배자들에 의해서 국가 종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국가가 부처님의 땅이라는 점을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교의 영향과 특히 보살(Bodhisattva)의 이념은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애국적이고 이타적 봉사를 하게끔 동기 부여를 하였습니다. 화랑이라고 알려진 젊은 엘리트 그룹은 보살 이념에 고무되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습니다. 원광 스님이 그들을 지도하였습니다. 까르마(karma), 니르바나(nirvana) 등 불교 교리는 한국인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한국의 불교 사상가 가운데 원효와 지눌을 특별히 언급할 만합니다. 원효는 실재와 삶의 접근을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조화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원광의 글들에 영감을 받았고 원광의 ‘세속적 판 카시랄(Secular Pancasila)’의 지지자였습니다.

원효는 정신적 상징으로 널리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82권의 책을 저술 하였으며, 그 중 대부분은 대승 경전에 대한 논평이었습니다. 그는 평화와 통합의 지지자였습니다. 모든 곳에서 조화로운 통합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노기영 교수는 원효의 깊은 이해를 표현하며 “그는 인도의 불교가 씨앗으로 파종된 이후 한국 토양에서 자란 훌륭한 과일이다. 물질적 이기심으로 어두운 이 시대를 밝히기 위해 그런 희망의 씨앗이 다시 자라고 번창하기를 소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과 같은 이런 접촉과 연구는 매우 유용하다는 점을 반드시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전통문화들은 서구의 물질주의와 소비주의의 영향 아래에서 멸종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위험에 도전해야 할 공동의 기반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 간 상호 교류의 강화는 상호 이해 · 공감과 상호 발전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이크 대금은 1년 써보고
아래의 내용과 추호도 다름없을 시 지불

1. 이태리 최고급명품마이크 직수입 한정판매, 시중에 있을시 일천만원 포상
2. 마이크와 50㎝ 떨어져야 수천만대의 시설소리로 업그레이드
3. 비싼시설 말고 마이크 하나만 바꾸어 수 만번의 염불소리를 신명나게 사세요

▣ 앰프1, 스피커 4개, LG오디오 1개, USB, 무선마이크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완벽시설까지 299만원이면 명산대찰 수억대의 시설보다 염불소리가 확실히 월등함.
※ 각종 마이크, 방송장비 및 방생용 구경!

▣ **상담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명품** 대표 박 공 희 소리 구경값 한잔

세계에서 유일하게도 그 유래가 확실한
석가모니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오봉사에 모셔진 진신사리가 온 미얀마 바간의 쉐지곤파야

지금은 사리탑 일부만을 세우고 진신사리를 모셨는데 사리탑을 완성하려면 기초공사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진신사리를 꺼내야 하기에 친견법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초공사가 끝나고 다시 사리탑 안에 봉안하면 탑을 부수지 않는 한은 친견할 수 없게 되오니 인연 있는 분들은 친견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 간 2019년 6월 29일(토) ~ 7월 7일(일) 매일 10:00 ~ 13:00
장 소 경기도 연천 오봉사 (연천군 연천읍 현문로245번길 384)

예약방법
www.gangnambu.org/45 접속 후
사리탑건립불사 메뉴 중 [**친견법회예약**] 선택

주 의
1. 법회 후 친견하기에 **10시까지 입장**하셔야 친견할 수 있습니다.
2. 점심공양과 차량운행관계로 **반드시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02-532-0012

진신사리의 유래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 강남불교대학 [**언제 또 이런 인연을 만나 이런 복을 지을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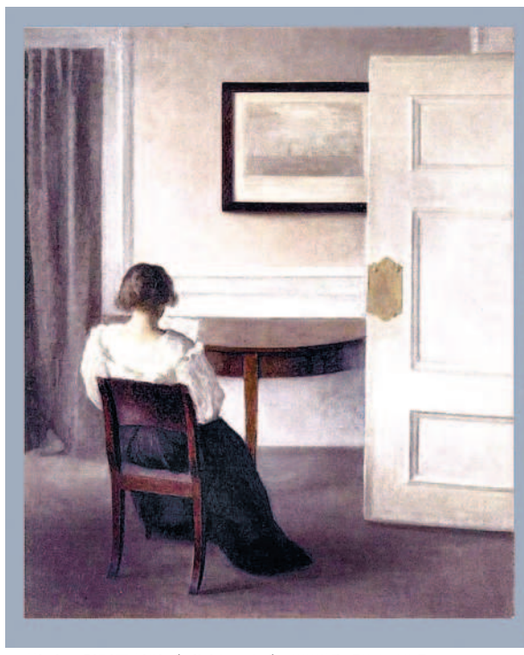
강남불교대학(민족통일진신사리탑건립추진위원회)

뒷모습은 인간 내면 마음자리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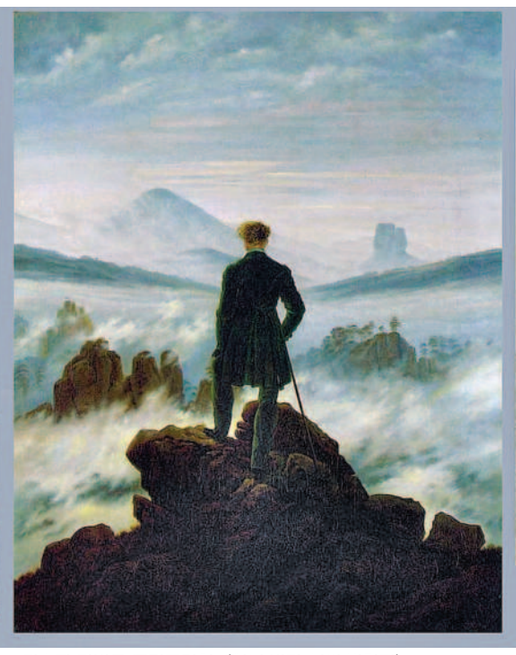


김원숙의
불교와 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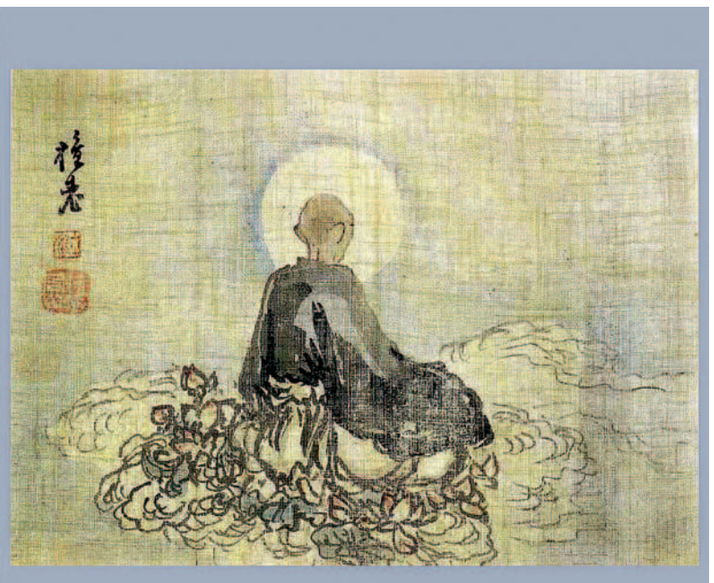
⑩ 뒷모습의 미학



빌헬름 함메르쇠이, 〈실내 interior〉, 1893년, 56.4x46.5cm, 스웨덴 예테보리 미술관 소장



카스파 다비트 프리드리히,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 1818년, 94.8x74.8cm, 독일 함부르크 미술관 소장



단원 김홍도, 〈염불서승도〉, 18세기 후반, 모시에 수묵담채, 20.8x28.7cm, 간송 미술관 소장

일망무제의 구름 바다에 연화좌가 놓여 있고 그 위에 돌아 앉은 스님의 뒷모습이 보인다. 정갈하게 삭발한 머리와 마른 어깨 위에 걸친 청회색빛 장삼에서 평생 고행하며 수행한 선승의 기품이 전해온다. 구름 바다의 굽이치는 동세는 마치 백팔번뇌에 얽혀 고통 받는 중생의 삶을 형상화한 듯한데, 연좌에 앉은 스님의 모습은 미동 없는 바위처럼 고요하다. 마치 그 모습이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한 점 티끌 없이 청정한 연꽃이다.

스님의 머리를 감싸고 있는 후광은 주변이 좀 더 짙은 청회색으로 강조되어 있다. 이것은 흔히 수묵화에서 달을 표현할 때, 담묵으로 주위를 어둡게 처리함으로써 환한 달빛이 스스로 드러나게 하는 홍운탁월(烘雲托月)의 기법이다. 캄캄한 밤길을 가는데 눈 시리도록 청명한 보름달이 막 구름을 벗어나 온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이 후광은 오랜 고요와 침묵 속에서 마주하는 홀연한 깨달음의 경지처럼 보인다.

단원 김홍도(1745~1806)의 이 그림에 후세의 사람이 '염불서승도(念佛西昇圖)' 라는 제목을 붙였다. 우리 말로 옮기자면 '염불을 하며 서방정토로 향하는 스님' 이라는 뜻이다. 흔히 단원은 풍속화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도석인물화(道釋人物畵; 도교, 불교 주제의 인물화)도 적지 않게 그렸다. 만년에는 불교적 주제에 더욱 심취하여 여러 명작들을 남겼는데, 이 〈염불서승도〉는 단원의 노년 작품으로 조선 후기의 여러 불화 중 백미로 일컬어진다.

관서(款書)란 그림을 그린 후 작가의 이름과 그린 날짜, 장소 그리고 누구에게 헌정하는 것인지 등을 써놓은 글인데, 이 그림의 관서는 짤막하게 단로(檀老, 단원 늙은이)라고만 쓰여 있다. 단로, 단옹(檀翁)이라는 이름은 단원이 노년 시절에 즐겨 썼던 호이다. 단원의 도석화는 호방한 필치로 유장하게 그린 것들도 많다. 특히, 이 그림의 연꽃의 연화대좌는 그 필선의 동세가 마치 구름이 흐르는 듯한 유운선법(流雲線法)으로 표현되어 있어 힘이 넘치나 부드럽고 조화로워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한 느낌을 준다. 젊은 시절에 왕명을 받고 웅대한 규모의 그림을 자주 그리기도 했던 단원이었지만, 비단도 아닌 성근 모시천에 그린 이 한 자 크기도 안 되는 작은 작품에서는 낙목한천(落木寒天)과 같이 번잡한 세상사를 다 내려놓은 듯한 노년의 삶의 경지가 느껴진다.

어찌하여 단원은 자신의 생애 마지막 무렵에 이르러 이러한 뒷모습의 그림을 그렸을까? 사람의 뒷모습, 특히 회화 작품에서 묘사된 뒷모습은 우리에게 독특한 정서를 불러 일으킨다. 우리가 보는 뒷모습은 대개 타인의 모습이다. 그러기에 예술 작품에 나타나는 사람의 뒷모습은 특정한 그 '누구' 를 가리키지 않는 익명성의 뉘앙스를 가지며, 이를 통해서 작품은 인간의 내면이 지닌 보편적 정서를 환기시킨다.

단원의 〈염불서승도〉처럼, 서양화에도 사람의 뒷모습을 통해 인간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작품들이 많다. 덴마크 출신 화가 빌헬름 함메르쇠이(Vilhelm Hammershøi, 1864~1916)는 고요하고 정돈된 실내에서 뒤돌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여인의 초상을 그려 당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함메르쇠이는 조용하고 차분한 회색조로 침묵이 흐르는 공간을 과장되지 않은 필치로 그려내어 보는 이들을 사뭇 명상적인 분위기로 이끌고, 그 정돈된 침묵 속에 모델의 말없는 뒷모습을 배치하여 무언의 대화를 우리에게 건네는 듯한 시적인 서정을 전해 준다.

물론 서양화와 동양화는 기법과 매체가 판이하기는 하나 절제된 색조와 그에 기인하는 명상적인 아우라로 인하여, 함메르쇠이의 뒷모습 그림과 단원의 〈염불서승도〉의 느낌은 어쩐지 닮아있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그의 그림에서 받은 감명을 '깊은 내면의 대화' 로 표현했다. 장식을 배제한 극단적으로 간결하고 단순한 실내 정경과 뒤로 돌아선 인물의 그림들로 침묵과 명상의 이미지를 전해주는 그의 작품들은 영화 감독, 광고제작자 등 시각적 작업을 하는 현대의 여러 예술가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었고, 그 작품들에 대한 오마쥬를 불러 일으켰다. 2008년 영국 왕립 아카데미에서 전시회의 제목이 "침묵의 시(The Poetry of Silence)"였던 것을 볼 때 그의 작품세계에 대한 오늘날의 관점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작품의 소재로 뒷모습에 천착하였던 또 다른 유명한 화가로는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가 있다. 그의 풍경화에서 전경에 배치되어 대자연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뒷모습은, 이를 매개로 감상자를 그림 속의 세계에 몰입하게 하는 일종의 중개자적 역할을 하게 한다.

프리드리히의 작품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는 바위산 꼭대기에서 운무로 뒤덮인 장엄한 대자연의 광경을 바라보는 한 남자의 뒷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험준한 산의 정상은 흔히 치열하고 고단한 삶의 여정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하나의 정점을 암시한다. 그 곳에서 마주한 것은 아직도 저 멀리 보이는 다른 바위산들과 그 기슭을 휘감고 도는 자욱한 안개와 구름이다.

거대하고 숭고한 대자연이라는 실체 앞에서 한 인간은 단지 나약하고 고독한 존재일 따름이며, 자기가 떠나온 현실 세계, 즉 산 아래의 땅은 저

단원 · 함메르쇠이 · 릴케 공통점
인간 내면의 진솔한 모습 다뤄

짙게 꿈틀거리는 운무에 가려 보이지조차 않는다. 소설가 미셸 투르니에는 사진작가 에두아르 부바와 함께 작은 책자를 펴냈다. 이 책에는 '세상의 모든 뒷모습' 이라 해도 좋을 만큼 여러 장소에서 만난 사람들의 인상적인 뒷모습의 사진이 실려 있고, 투르니에는 그 각각의 사진에 자신의 감상을 적었다. 투르니에는 이렇게 말한다.

남자든 여자든 사람은 자신의 얼굴로 표정을 짓고 손짓을 하고 몸짓과 발걸음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모든 것이 다 정면에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그 이면은? 뒤쪽은? 등 뒤는?
등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사람의 얼굴, 앞모습은 인위적으로 스스로를 표현하기 위해 윤색되고 꾸며지고 가공된다. 때로는 자신을 좀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좀더 권위가 있거나 신뢰를 주는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치장된다.

이른 새벽 바닷가에서 썰물에 갇힌 고깃배를 필사적으로 밀어내는 어부들의 등 짝, 경배하기 위해서 사원에 모인 기도자의 엎드린 등, 사람 많은 기차역에서 군중들에게서 뒤돌아 앉아 아기에게 젖을 물린 어머니의 뒷모습, 낡은 가죽 가방을 매고 먼 길 떠나는 이의 두 어깨, 방파제 난간에 기대어 먼 수평선을 바라보는 연인의 뒷모습, 꽃다발을 들고 걸어가는 허리 굽은 할머니…. 이 모든 뒷모습에는 일부러 지어낸 아름다움이나 권위는 없다. 투르니에의 말처럼 뒷모습은 바로 인간 존재의 진실을 드러낸다.

동서양의 작품에서 만난 인간의 뒷모습은 어느 생에선가 만났던 사막을 건너 온 여행자의 눈빛을, 그저 낯설게 다가오지만은 않는 전생의 기억을 떠올리게도 한다. 때로는 천천히 잦아드는 청량한 슬픔을 보기도 하고, 거제도 바람의 언덕에서 불어오던 바람 냄새를 맡기도 한다.

단원에 대한 기록은 오세창의 〈근역서화징 槿域書畵徵〉, 강세황의 〈단원기 檀園記〉 등의 문헌에서 읽을 수 있지만, 그의 유년기 시절이나 작고할 무렵의 행적 등은 자세하지 않다. 강세황의 기록에 따르면, 단원은 '금세(今世)의 신필(神筆)' 이었으며 노력형이라기 보다는 천재적 재능을 지닌 화가였다.

그림 그리는 사람은 대체로 천과 종이에 그려진 것을 보고 배우고 익혀서 공력을 쌓아야 비로소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단원은 독창적으로 스스로 알아내어 교묘하게 자연의 조화를 빼앗을 수 있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천부적인 소질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지 않고서는 될 수 없는 일이다. – 강세황

당대 최고의 화원이었고 조선후기 경제와 문화가 융성했던 시절, 정조의 총애를 받았던 단원은 세속에 영합하였다면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그의 노년의 삶은 빈한했고, 때로는 지필묵조차 구하기 어려웠다고 전해진다. 그가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남아 있는 기록은 없다. 1805년 겨울 마지막 편지를 남기고 그는 홀연히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그 이후 단원의 행적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원은 명시적으로는 자화상을 남기지는 않았다. 단정하고 꼿꼿한 자세의 한 젊은이를 그린 단원의 작품이 그의 자화상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있지만, 명확한 근거는 없다. 이 그림, 〈염불서승도〉에서는 세상의 부질없는 번뇌와 애증을 모두 내려놓고 연좌에 앉아 고요히 서방정토를 바라보는 늙은 스님의 뒷모습이 마치, 단원 자신이 그리고자 했던 노년의 자화상은 아니었을까?

세상의 모든 뒷모습은 번잡한 삶에 등돌리고 앉아 비로소 마주하는 고요함의 자리, 세상의 약삭빠른 계산법에는 한참 못 미쳐 모자라고 순한 자리, 억울함 가운데서도 굳이 변명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관대함의 자리, 모든 작은 생명들에게 조심스레 다가서는 설레임의 자리, 홀로 있으나 결코 외롭지 않은 충만함의 자리, 그 지극한 마음자리를 바라보도록 만든다.

단원의 〈염불서승도〉도, 프리드리히의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도, 함메르쇠이의 〈실내〉는 우리에게 묻는 듯 하다. '당신은 삶의 진실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 있느냐?' 고.

수행자는 어떻게 세상을 바르게 살아 갈 수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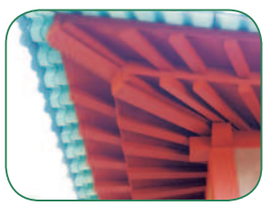
스승은 말씀하셨다.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고 지극히 깨끗한 지혜가 있어
모든 변화하는 현상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는 바르게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다.

〈숫타니파타〉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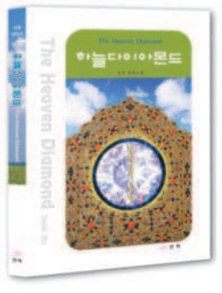
〈미술학자〉



홍코치 한의원
구, 동국한의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로 45 (동삼동)
TEL 051) 413-1155

철 골 조
사찰신축전문

사찰지붕개량
천년와 기와 지붕개량
공사기간단축(3분의1)
공사금액 목조보다 60%절감
010-3911-1775 / 011-9726-9288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 – 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시(詩)로 깨달음을 담아보자



임종욱의
붓다와 마주한 인생독법

⑩ 부처와 공자는 모두 시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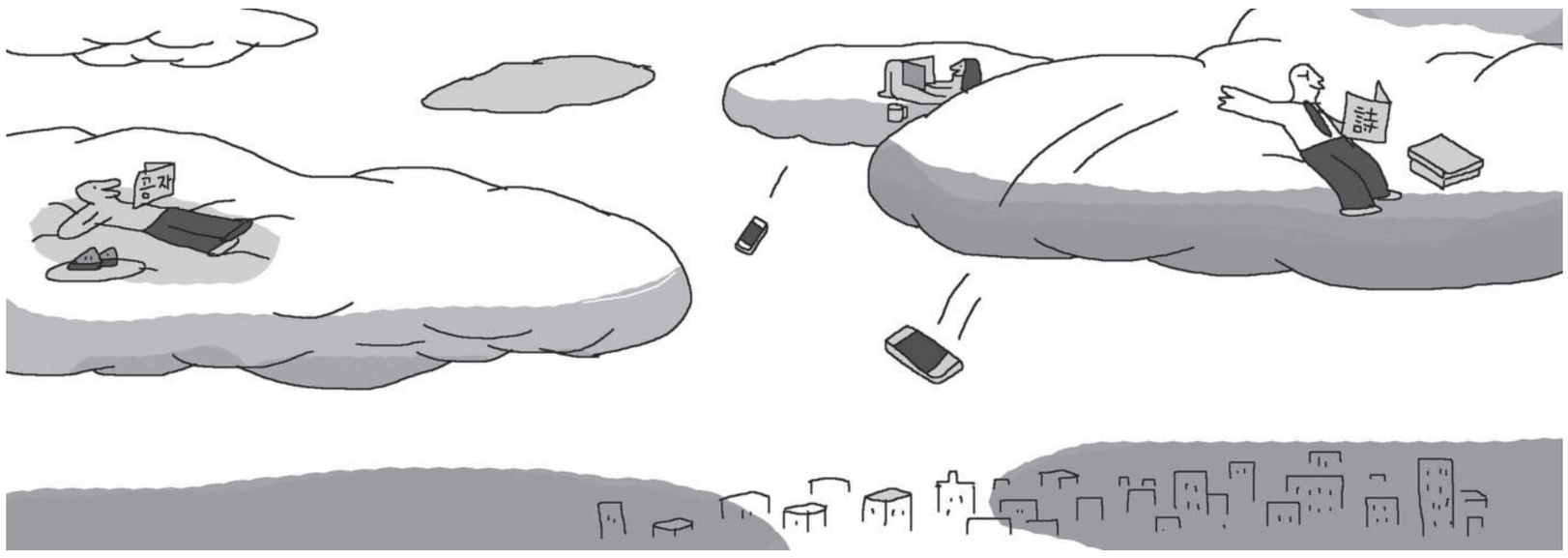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남해는 시의 고장이다

남해에는 유독 시인들이 많다. 지역 신문을 보면 주마다 시 한 편 안 실리는 날이 드물다. 남해의 명소를 자랑하거나 개인의 추억담을 읊은 작품들인데, 남해가 정말 시혼(詩魂)이 가득한 땅임을 일깨워준다. 그런 시를 읽을 때면 나도 한 수 멋들어지게 지어 읊어보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내게는 그런 재능이 없다.

작품을 싣는 사람들은 대개 정식 등단한 시인들인데, 딱히 신문을 안 읽더라도 나는 날마다 시나 다름없는 아름다운 언어의 꽃밭을 만나곤 한다. 가만히 남해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에 귀 기울이면 생각지도 못한 산뜻하고 감칠 맛 나는 언어들이 두름 엮듯 연이어 들려오는 것이다. 남해 사람들은 살면서 겪는 이런저런 어려움이나 즐거움, 기쁨을 시에 가까운 문구들로 표현하는 데 익숙한 것 같다.

며칠 전 잘 아는 분과 함께 내가 사는 탑동에서 이순신순국공원까지 산책을 갔다. 차를 타면 5분도 안 걸리는 거린데, 걸어가면 한 30분 정도 걸린다. 산길을 걸으며 새 소리도 듣고 해안을 따라 밀려오고 멀어지는 파도를 보면서 느긋하게 걸음을 옮기노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좋은 사람과 함께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면서 걷는 남해의 길에는 말 그대로 평화와 휴식으로 그득하다.

마침 순국공원에서 아는 분을 만났다. 일흔을 훌쩍 넘긴 분인데, 고현집들이굿놀음 연습을 할 때 자주 만나는 분이셨다.(역할이 '조리중'이라 우리 불교하고도 인연이 깊다.) 들에서 자란 야관문을 따 막걸리를 만들어 나눠 주시면서 혼자 사는 사람은 사고 치기 쉬우니 마시지 말라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보를 터뜨리는, 유쾌하기 그지없는 낙천가이시기도 하다. 소일거리로 공원에 난 잡초를 뽑으러 오셨다는데, 공원 안 식당에서 파는 짬뽕 비빔밥을 점심 삼아 들고 계셨다. 나이와 밭일 때문에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인데,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다.

"이젠 쓸 데가 하나도 없어. 매운탕 거리도 안 된다니깐."

본인은 천연덕스럽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속으로 배꼽을 잡고 웃었다. 매운탕은 회를 다 뜨고 난 뒤 남은 자투리들을 모아 끓인 음식이다. 버리기도 아깝고 더 발라낼 곳도 없어 채소와 고춧가루를 풀어 만든 탕이다. 자신의 다소 누추해진 몸을 이렇게 귀에 쏙 들어오게 엮어내는 솜씨를 어디서 빌려오셨는지 감탄을 감출 길 없었다. 그 분은 자신을 낮춰 그렇게 불렀지만, 내게는 다르게 받아들여졌다.

회도 맛있지만, 매운탕만큼 입맛을 돌게 하는 음식이 또 어디 있는가? 얼큰해서 술안주로도 그만이지만 저녁을 먹을 때 국거리로도 이만한 게 없다. 그 분은 자신을 낮춰 '매운탕 거리'라 부르셨지만, 내게는 우리 삶에 참으로 요긴한 사람이란 뜻으로 들렸다. 이렇게 중의적(重意的)인 표현을 쓸 줄 아는 분을 '시인' 말고 달리 뭐라 부를 수 있겠는가!

선시(禪詩)의 남상, 혜능과 신수 두 선사의 시

석가모니 부처님도 따져보면 타고난 시인이다. 경전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비유담은 가만히 들어보고 새겨보면 어김없이 심오한 시구와 다름이 없다. 불경에는 게송(偈頌) 또는 가타(伽陀)라 해서 불교의 이치를 산문으로 풀고 그 의미를 시로 요약한 부분이 포도송이처럼 알알이 열려 있기도 하다. 그래서 부처님이나 고승대덕의 설법을 들으면 절로 무한한 상상의 세계에 빠져 감동이 솟구치는 게 아닐까?

옛날의 뛰어난 스님들은 깨달음의 경지를 줄곧 시로 노래하곤 했는데, 이를 선시라 일컫는다. 언제 누가 읊은 시가 선시의 시작인지 따지는 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역시 육조 혜능(慧能, 638-713) 스님과 신수(神秀, 605-706) 스님이 자신의 깨달음의 깊이를 견줘 쓴 시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싶다.

혜능과 신수 사이에 있었던 일화는 혜능 선사의 생애와 사유를 풀이한 〈육조단경(六祖壇經)〉이란 책에 자세히 실려 있다. 혜능 선사는 글을 몰랐던 스님이니 이 책이 스님의 저작인지는 더 살펴볼 일이지만, 선종(禪宗)의 발원과 그 계승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문헌이니 많은 사람이 읽어봤으면 좋겠다.

나이차만 30년이 넘을 만큼 신수 스님은 일찍부터 오조(五祖) 홍인(弘忍, 601-674) 선사의 문하에 들어와 수양을 거듭한 수행자였다. 한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나무를 팔아 어머니를 봉양했던 혜능 선사는 세속의 배움은 옅었는데, 어느 날 장터에서 누가 〈금강경(金剛經)〉 읽는 소리를 듣고 깨달은 바 있어 홍인 선사를 찾았다. 혜능의 법력을 엿본 홍인은 일단 불목하니로 두어 때를 기다렸다.

신수 스님은 홍인의 문하에 들어와 진즉에 자질을 보여 동료 스님들의 존경과 신임을 받아 교수사(敎授師)가 되어 상좌(上座)로 불렸다. 스님들은 신수가 오조의 의발(衣鉢)을 이을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홍인 선사로서는 다소 난처해졌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각자 자신이 수양하고 깨달은 바를 게송으로 써서 내라고 주문했다.

신수의 위상을 알고 있는 제자들은 아무도 시를 써 내지 않았다. 이에 신수 스님은 부족한 줄 알면서도 먼저 시를 써서 기둥에 걸어 놓았다.

'시'는 수행경지 담은 표현
깨달음의 경지 엿보여
시심은 수행심, 시력을 키우자

몸은 보리수(진리의 나무)요,
마음은 명경대(밝은 거울)라.
날마다 열심히 닦고 털어내
먼지가 일지 않게 하리라.
身是菩提樹 心如明鏡臺
時時勤拂拭 莫使惹塵埃

신수 스님은 비록 법력은 혜능 선사만 못했어도 겸손하고 성실했던 분인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몸은 진리가 담긴 나무고 마음은 깨달음을 비추는 거울이란 비유가 벌써 남다르다. 그런 몸과 마음에 세상의 티끌이 묻지 않도록 늘 닦고 털어내면서 본연의 풍광(風光)을 간직하겠다는 다짐을 시에 담았다. 깨달음에 이르지는 못했음을 자각하면서 그 길을 향한 구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다음날 아침 신수 스님의 시를 읽은 제자들은 감탄을 하며 웅성거렸지만, 홍인 선사는 아직 그릇이 다 차지 않았음을 이해했다. 마침 지나가던 혜능이 시를 보고 옆 스님에게 물었고, 스님은 시의 내용을 풀어주었다. 이를 들은 혜능은 자신도 한 수 지을 테니 적어달라고 부탁했다.

보리는 원래 나무가 아니고,
명경도 또한 대가 아니라네.
본래 한 가지 물건도 없는데,
어디서 먼지가 일어나겠는가?
菩提本無樹 明鏡亦非臺
本來無一物 何處惹塵埃

확실히 깨달음의 경지는 혜능 선사가 한 수 위였다. 나무니 거울이니 하는 외물(外物)에 얽매여 어찌 깨달음을 얻겠는가? 눈에 보이는 물건에 미혹되고서는 함정에 빠져 장애를 넘어설 수 없다고 혜능 선사는 갈파했던 것이다. 원래 깨달음이란 텅 빈[空] 것이니, 먼지나 티끌이 나올 바가 없다는 것이다.

두 시를 모두 본 홍인 선사는 혜능이 의발을 이을 사람이라 꿰뚫어보았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발을 염려해 밤에 몰래 의발을 전하면서 절을 떠나라고 재촉했다. 그리하여 혜능은 6조가 되었고, 선사의 깨달음은 많은 제자들에게 이어져 선종의 역사에서 남종선(南宗禪)이 되었다. 남종선은 선리(禪理)를 돈오(頓悟)에 두었다.

그러면 신수 스님은 어땠을까? 의발이 혜능에게 전해진 것을 당연하다 받아들였고, 스님은 나름대로 자신만의 수양법을 갈고 닦아 점오(漸悟)를 선리로 한 북종선(北宗禪)을 완성했다. 두 스님이 살던 시대는 중국사에서 유일한 여왕(女王)이었던 측천무후가 다스리던 때였다. 신수 스님은 그녀의 신임을 얻어 널리 선리를 펼쳤다. 측천무후가 정통을 이으려면 혜능이 장애가 될 테니 없애주마고 했을 때 자신은 혜능의 법력을 따를 수 없다며 만류하는 미덕도 보인, 인격을 두루 갖춘 사람이기도 했다. 그런 넉넉한 마음 때문인지 신수 스님은 102살이라는 장수를 누리고 열반에 들었다.

청천벽력의 깨침을 담기는 혜능의 선시가 윗길이지만, 시의 아기자기한 맛으로 보면 신수의 선시에도 얕잡아 볼 수 없는 비범함이 스며 있다. 오늘날 널리 회자되는 돈오점수(頓悟漸修)의 선가의 수양법은 이 두 거승(巨僧)의 선시에서 출발했던 것이다.

공자의 범접하기 어려운 시력(詩力)

'공자왈맹자왈'이란 허튼소리 때문에 공자의 문학적 재능이 주목을 받진 못하지만, 공자의 문학적 공력도 대단히 높았다. 그간의 민요들을 정리한 〈시경(詩經)〉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짐작할 수 있다. 유가 지식인치고 (그 수준에서는 편차가 있긴 하지만) 시를 읊지 않은 이가 없는 것도 이런 데서 연유한다.

공자가 썼다는 시는 현재 남은 게 없다. 〈논어〉에도 공자의 시는 실려 있지 않다. 그러나 말이면서도 시라고 봐도 좋을 구절은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다. 그 중 한 구절만 소개하겠다. 〈논어〉술이편(述而篇)에 나온다.

거친 밥을 먹고 맹물을 마시며
팔을 굽혀 베고 눕더라도,
즐거움이 또한 그 가운데 있구나.
의롭지 못한 짓을 저질러 부귀해지는 일은
내게는 하늘의 뜬구름과 같다네.
飯疏食飮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 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즐거움을 담아낸 이 구절은, 거의 5언시의 형식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유나 함축한 의미로만 봐도 시라 불러 손색이 없다. 〈논어〉에는 자신의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무작정 고상하게만 포장하지 않고 알기 쉬우면서도 아주 적절한 표현이나 상황을 들어 이해하기 쉽게 들려주는 장면이 곳곳에서 포착된다. 이 역시 시인으로서의 공자를 가늠하게 만든다.

소설가 박상은 자신의 소설 〈가지고 있는 시(詩) 다 내놔〉에서 시를 안 읽은 이 시대의 메마른 풍조를 아주 걸쭉하게 풍자했다. 봄이 무르익는 오월, 우리 모두 짬을 내어 시심(詩心)에 잠겨보자.

〈소설가〉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마조 가르침, 한반도로 이어지다



정운 스님의
禪의 르네상스 이끈 선지식들

⑬ 한국 禪의 원류, 서당지장



중국 강서성 공주 보화사 대각전의 모습. 안에 서당지장의 사리탑이 봉안돼 있다.



보화사 대각전의 옥석탑. 서당지장의 사리탑이다.



2008년 중국 우민사서 열린 '도의국사 구법기념비' 제막식 모습.

韓구산선문 중 7곳 마조 영향
서당의 제자인 도의 · 홍척 · 혜철
가지 · 실상 · 동리산문 열고 전법

백장 · 남전보다 '저평가'된 서당
한국선종사 관점서 연구 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禪) 전래자는 7세기 신라 진덕왕대(647~653 재위) 법랑(法郎)이다. 최치원이 쓴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에 의하면, "법랑이 중국으로 건너가 4조 도신(580~651)의 법을 이어왔다"는 기록이 전한다. 하지만 선이 크게 보급되기 시작한 시점은 신라 말 고려 초에 해당한다. 이때 아홉 산에 산문(山門)이 개산되었다고 하여 '구산선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아홉 산문 가운데 일곱 산문이 마조 도일(馬祖道一, 709~788)의 법손이다.

즉, 마조의 수제자 가운데 서당 지장(西堂智藏, 735~814)의 법을 받은 제자는 도의 · 홍척 · 혜철이다. 도의(道義)국사가 개산한 산문은 가지산문으로 현 조계종의 종조에 해당한다. 홍척(洪陟)은 실상산문(남원 실상사), 혜철(惠哲)은 동리산문(곡성 태안사)이다.

또한 마조의 제자인 염관 제안의 법을 받은 범일은 사굴산문(강원도 강릉), 마곡 보철의 법을 받은 무염은 성주산문(충남 보령), 남전 보원의 법을 받은 도윤은 사자산문(강원도 사자산 법흥사), 장경 회휘의 법을 받은 현욱은 봉림산문(경남 창원)을 개산했다. 또한 마조계 가운데 쌍계산문을 개산한 진감 혜소(774~850)도 마조의 제자인 창주 신감(滄州神鑑)의 법을 받아왔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산문 가운데 중요한 위치에 점하는 세 산문인 가지산문 · 실상산문 · 동리산문의 스승이 서당이다. 먼저 스승 마조와 서당을 포함한 제자들의 일화를 보자.

어느 날 서당 · 백장 · 남전이 마조와 함께 달맞이를 갔다. 그 자리에서 마조가 제자들에게 물었다. "바로 지금 같은 때에 무엇을 하면 가장 좋겠는가?"

서당지장이 말했다. "공양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이에 백장회해는 "수행하기에 가장 좋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남전만 소매를 뿌리치면서 그냥 가버렸다.

그러자, 마조가 말했다.

"경(經)은 서당에게 들어가고, 선(禪)은 백장에게로 돌아가는데, 오직 남전만이 경계에서 벗어났구나." -〈경덕전등록〉 中

앞의 내용은 '마조완월(馬祖玩月)'이라고 하는 공안이다. 이 공안을 세밀히 보면, 세 선사 가운데 남전 선사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남전은 조주 종심(趙州從諗, 778~897)의 스승이다. 후세에 무자(無字), 끽다거(喫茶去) 공안으로 유명한 조주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면서 스승인 남전이 부각되었다. 또한 남전은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 공안을 내세운 장사 경잠의 스승이기도 하다.

한편 선종사에서 청규(淸規)를 제정한 백장회해(百丈懷海, 749~814)는 제자 황벽(黃檗, ?~850)에 이어 임제(臨濟, ?~867)가 배출되면서 선종사에 백장이 부각되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당의 활약과 법력이 축소된 감이 있다.

하지만 서당은 마조 문하를 대표하는 수제자로, 근자에 서당에 관한 연구가 학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어찌되었든 서당은 우리나라 산문과 밀접한 법연(法緣)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당지장은 강서성(江西省) 남강부 출신으로 8세에 출가, 13세 때 임천(臨川) 서리산(西裏山)에서 마조를 시봉하였고, 7년 뒤에 스승으로부터 법을 받았다. 서당은 기골이 장대하고, 비범하였다. 서당은 마조가 처음 개당(開堂) 설법할 무렵(35세 복건성 성적사)의 제자이니, 마조 문하 가운데 장손 격에 해당한다. 하루는 마조가 서당에게 물었다.

"자네는 어찌하여 경을 보지 않는가?"

"경에 뭐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어찌되었든 자네가 뒷날 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할걸세."

"저 자신도 제 병을 치료하기 어려운데, 감히 남을 위하라고 하십니까?"

"말년에 자네의 선풍이 반드시 세상에 흥기할 것이다."

마조는 강서성 건주(贛州) 공공산(龔共山) 보화사(寶華寺)에서 법을 펼쳤다. 이때, 군수 배공(裵公)의 귀의를 받아 마조 교단이 크게 번창하기 시작했다. 이 무렵, 마조는 보화사에서 홍주(洪州, 현 남창) 개원사(開元寺 현 우민사)로 옮겨갔다. 마조가 개원사로 옮겨간 뒤에도 서당은 보화사에 남아 법을 펼쳤다. 이때 서당의 가르침을 따라 대중이 운집하는 것이 마치 마조가 살았을 때와 같았다고 한다.

당시 태수(太守) 이공주(李公舟)는 〈공주부지(贛州府志)〉에 "서당은 천하에 유명한 사람이었다. 서당이 마조를 정성스럽게 섬기는 것이 마치 안회가 공자를 섬기는 것처럼 극진한 제자였다"고 평하였다. 공공산 보화사는 마조의 전법도량이기도 하지만, 서당의 개당 설법 도량이기도 하다. 서당은 보화사를 떠나지 않고 줄곧 이곳에서 머물며 법을 펴다가 80세에 입적하였다. 당나라 헌종이 '대선교(大宣敎)'라고 하사했으며, 8년 후 목종이 다시 호를 '대각(大覺)', 탑 이름을 대보광(大寶光)이라 하사하였다. 또한 '옥석탑(玉石塔)'이라고도 불린다. 서당과 제자들의 기연을 보기로 하자.

또 서당의 한 제자가 죽어서 화장을 해 마쳤다. 어느 날, 죽은 제자가 서당에게 나타나 말했다. "스님, 부디 제 목숨을 다시 찾아 주십시오."

서당이 말했다. "그대는 진정 죽은 자인가?, 산 자인가?"

죽은 제자가 "저는 죽은 자입니다"라고 답했다.

"이미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안다면, 그 목숨을 찾고자 하는 자는 누구인가"라고 서당이 답하자 죽은 제자는 다시는 서당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몇 가지 일화를 더 살펴보자. 제공(制空)이라는 승려가 서당에게 말했다. "해가 너무 일찍 뜨네요." 서당 설하길 "바로 이때일세(正是時)!"

유학자인 이고(李翺, 774~836)가 찾아와 서당에게 물었다. "스님은 마조대사에게서 어떤 가르침을 받으셨습니까."

"이고야! 이게 바로 북과 피리가 서로 상응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네."

세 번째 내용은 '서당고각(西堂鼓角)'이라는 공안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도의국사와 서당과의 기연(機緣)을 보기로 하자. 서당이 홍주 개원사에 머물 때이다. 도의가 당나라에 들어가 행각을 하다 개원사에 입문했다. 도의가 서당의 수행 지도를 받고 있던 차, 어느 날 서당이 도의에게 말했다.

"내가 그대와 인연이 된 것은 돌더미에서 아름다운 옥(玉)을 얻어 조개 가운데서 진주를 줍는 것과 같다. 진실로 법을 전한다면 이런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게 전하랴."

도의는 서당에게 깨달음의 인가를 받고, 명적(明寂)에서 도의(道義)라는 호를 받았다. 이렇게 도의 국사가 강서성 남창 개원사에서 서당에게 법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나라 조계종 총무원에서 2008년, 이곳에 '도의국사 구법기념비'를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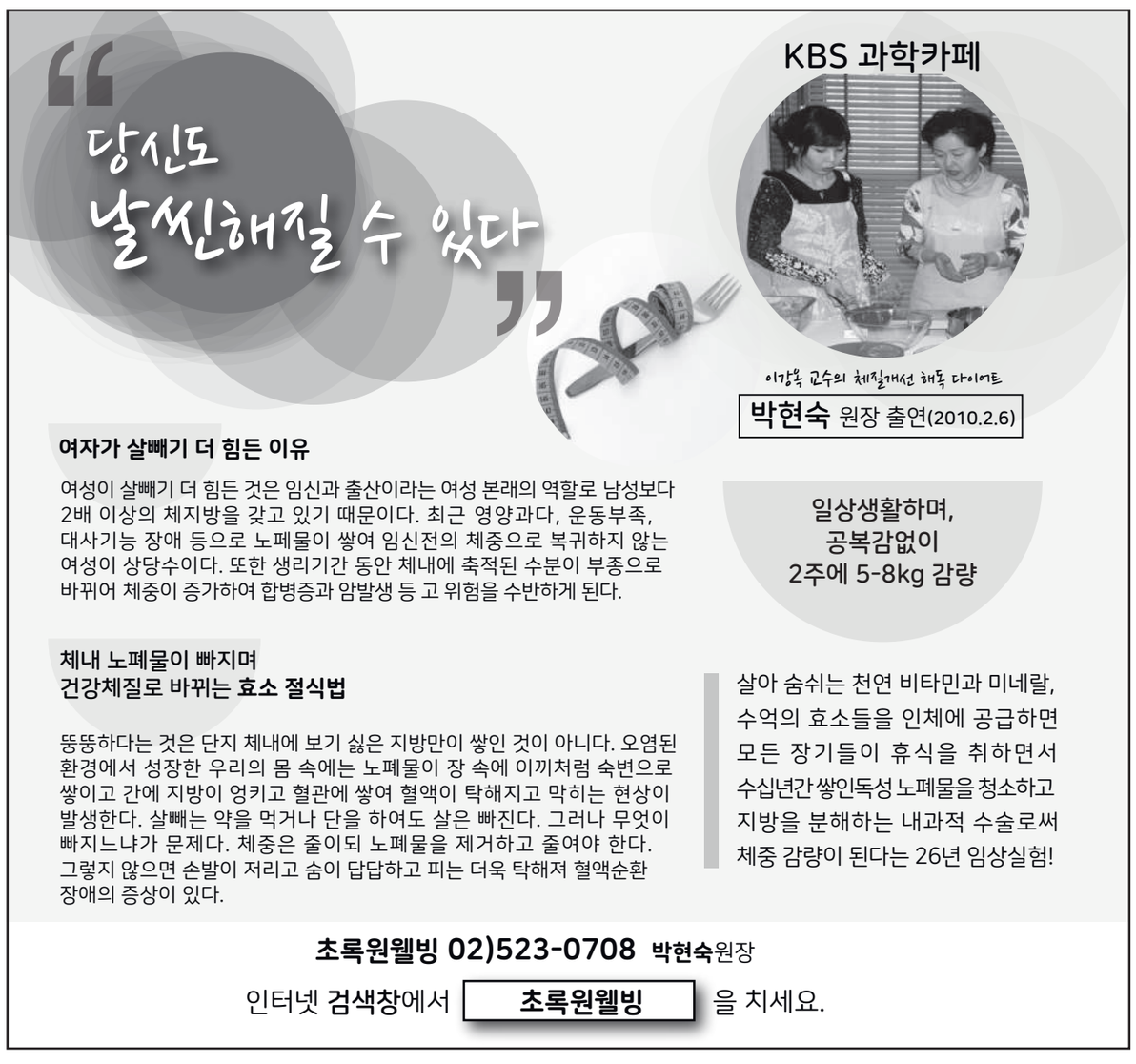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서당은 마조계에서 백장이나 남전에 비해 축소된 감이 있지만, 서당은 마조계의 장손으로 마조의 선풍을 드날린 일인자이다. 당시 중앙에 진출한 마조의 제자들 중 일부는 북쪽(당대의 수도 장안)에서 활동했고, 서당은 남쪽(강서성)에서 선풍을 전개했다. 마조선에 있어 '남쪽과 북쪽의 대립'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당시 장안에 진출한 제자들을 북쪽이라고 지칭했다면, 남쪽의 대표 선사를 서당으로 보았다.

또한 당나라 때, 사천성 혜의정사(慧義精舍, 현 금천사) 남선원(南禪院) 조사당 안에 무상(無相) · 무주(無住) · 마조 · 서당의 진영을 모셔 놓고 공양 올렸다는 기록이 있다. 즉 신라 왕자 출신 무상과 무주(둘은 스승과 제자), 마조와 서당의 네 진영이 벽에 그려져 있었다는 기록이다.

이는 851년에 시인 이상은(李商隱, 812~858)이 쓴 '당재주혜의정사남선원사증당비(唐梓州慧義精舍南禪院四證堂碑)'의 기록이다. 여기서 무상 대사는 신라 때 왕자출신인데, 중국에서 모시는 오백나한 가운데 455번째 나한으로 모셔져 있으며, 당시 정중종(淨衆宗)의 개조(開祖)로서 초기 선종사에 입지가 매우 큰 분이다. 또한 무상대사와 마조를 스승과 제자라고 종밀(圭峰宗密, 780~841)이 주장한 이래 즉금에까지 연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서당은 선종사에서의 위치는 물론이요, 한국불교사와 밀접한 선사이다. 서당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새로이 연구하고 정립이 필요할 때이다.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절체절명 순간도 꿀 빠는 중생의 삶



新 불교사자성어

⑲ 안수정등(岸樹井藤)

'안수정등(岸樹井藤)' 은 '강 언덕에 있는 나무와 우물 속에 있는 등나무' 란 뜻이다. 문자의 겉은 그러하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숨은 뜻은 무엇일까. 불설〈비유경(比喩經)〉에 나오는 사자성어로 '위태로운 삶의 상태' , 또는 '어리석은 중생들의 삶' 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탐욕(貪)과 분노 · 질투 · 증오심(嗔) 그리고 무지(痴)에 빠져 있는 몽매한 인간의 존재 형태를 불교적으로 비유한 것이다.

'안수(岸樹)' 는 '강기슭에 있는 나무' 를 가리키는데, 이 비유에서는 절벽 꼭대기에서 기생하고 있는 나무를 말하고 있다. 강 언덕이나 절벽에 있는 나무는 비바람이나 폭풍을 만나면 쓰러지기 쉽다. 그리고 '정등(井藤)' 은 '우물 속에 있는 등나무 넝쿨' 로, 넝쿨에 매달려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인생을 가리킨다. 중생사를 절묘하게 표현한 말로 불교에서 바라보는 어리석은 인생관의 하나이기도 하다.

'안수정등' 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한 나그네가 광막한 들판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어디선가 '쿵쿵' 거리는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 사나워 보이는 큰 코끼리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나그네는 공포에 질려서 죽을힘을 다해 도망쳐 달아났다. 그러다 막다른 강이 내려다보이는 절벽 끝에 이르렀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다행히도 절벽 끝에 제법 큰 나무가 있었고(岸樹), 등나무 넝쿨이 절벽 아래 우물로 늘어져 있었다. 등나무를 타고 내려가면 코끼리의 공격을 피해 살 수 있었다. 나그네는 "이제는 살았구나"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안도의 숨도 잠깐, 등나무 줄기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 보니, 밑에는 독사 네 마리가 고개를 들고 혓바닥을 내밀고 있었다. 또 독룡(毒龍) 한 마리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매우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상황이었다. 다시 등나무 넝쿨을 붙잡고 위로 올라가자니 사나운 코끼리가 기다리고 있고 아래로 내려가자니 독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비극적인 상황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나그네가 매달려 있는 등나무 넝쿨을 흰 쥐와 검은 쥐가 번갈아가며 이빨로 갉아먹고 있었다. 절박한 상황이 된 것이다. 넝쿨을 붙잡고 있는 팔은 점점 힘이 빠져서 기력을 다해 가고 있었다. "이제는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디선가 액체 한 방울이 입가에 떨어져 내렸다. 달콤한 꿀물이었다.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벌집에서 꿀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다. 지친 나그네는 혀로 떨어지는 그 꿀을 받아먹었다.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나그네는 달콤한 꿀맛에 방금까지 공포도,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사실도 잊어버렸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광막한 들판' 은 끝없는 어둠의 세계인 무명(無明)을 비유한 것이고,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코끼리는 '시간의 속도' , '세월의 무상함' 을 가리킨다. 검은 쥐와 흰 쥐 두 마리는 해와 달 즉 낮과 밤을 가리키고, 쥐가 등나무를 갉아 먹는 것은 점점 줄어드는 목숨을 가리키고, 네 마리 독사는 지수화풍 사대를, 꿀은 오욕락(五慾樂)을 가리킨다.

불교 고사성어 '안수정등(岸樹井藤)' 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널리 알려진 사자성어이다. 달콤한 꿀맛에 빠져서 참된 인생의 길을 보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중생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하고 있다.

우리는 이성에 대한 욕망, 돈과 재물에 대한 욕망, 음식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오래 살려고 하는 욕망 등 오욕락을 '인생 최고의 가치' 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

지수화풍 4대로 구성된 이 육체는 언젠가는 사라진다. 애착할 것이 못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콤한 꿀 한 방울(오욕락)에 빠져서 무상을 인식하지 못한다. '생사고해' 에서 헤매고 있는 인간의 삶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설화(說話)가 바로 '안수정등' 의 이야기이다.

관건은 어떻게 하면 등나무 넝쿨에 매달려, 꿀 받아먹는데 정신이 팔린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살아날 수 있을까? 코끼리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독사 때문에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 매달려 있는 팔의 힘은 기진맥진.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을까? 〈윤창화 민족사 대표〉

"부축해 일으켜 세울 줄도 알아야" 의미는?



격절록 강설

⑲ 앙산지설화 2

[評唱 2]

仰山有如此為人手段. 所以 一日指雪獅子問云 "還有過得此色者麼" 且道 他意在什麼處. 莫是明一色邊事麼. 且得沒交涉. 既不明一色邊事 又明箇什麼. 所以道 "鷺鷥立雪非同色 明月蘆花不似他" 巴陵鑒和尚 僧問 "如何是提婆宗" 鑒云 "銀椀裏盛雪"

앙산에게는 이와 같이 사람을 위하는 솜씨가 있었다. 그래서 하루는 설사자(雪獅子)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 색을 뛰어넘는 것이 있는가?" 라고 물었던 것이다.

자, 말해보라! 저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는 일색변사(一色邊事, 절대평등=공)를 밝힌 것이 아닌가?(만약 이렇게 안다면) 전혀 관계가 없다. 일색변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밝힌 것인가? 그래서 이르기를 "해오라기가 눈(雪)에 서 있어도 같은 색이 아니요, 밝은 달과 갈대꽃이 서로 같지 않네"라고 하였던 것이다.

파릉 감(巴陵鑒, 파릉호감 생몰연대 미상) 화상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제바종(提婆宗)입니까?"

호감이 말했다.

"은주발에 눈이 가득하다(銀椀裏盛雪)."

雪竇拈拄杖 示眾云 "把斷世界 不漏絲毫 還搆得也無 所以 雲門道 '直得乾坤大地 無絲毫過患 只是轉物 不見一色 猶為半提 直得如此 更須知有全提時節' 諸上座 翠峯若是全提 盡大地人並須結舌 放一線道 轉見不堪" 以拄杖一時打散.

설두가 주장자를 들고 대중에게 말했다.

"세계를 꽉 쥐니 실 끝만큼도 새지 않는다. 알겠는가? 그래서 운문이 말하기를 '건곤대지에 실끝 만큼의 허물도 없게 되었더라도 다만 경계에 굴림을 당할 뿐이다. 일색(一色)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직 반만 들었을(半提) 뿐이다. 이와 같이 되었을지라도 다시 모름지기 온전히 드러내는(全提) 시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 하였던 것이다. 여러 상좌들이여! 취봉(翠峯, 운문)이 만약 전부 드러낸다면 온대지 사람들의 혀가 모두 굳어져버릴 것이고, 한 가닥 길을 터 주더라도 지견만 굴려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는) 주장자로 쳐서 한꺼번에 흩어버렸다.

雪竇悟到這般田地 方可為人. 老僧道瞎 諸人作麼生會. 雲門應時應節 但與推倒用 拈仰山意 又被雪竇拈道 "他只解推倒 不解扶起" 且道 雪竇意在什麼處.

설두는 깨달아 이런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람을 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노승이 말하기를 "눈이 멀었다(瞎)!"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운문은 시절인연에 응해서 다만 밀어 넘어뜨리는 것(推倒) 만을 써서 앙산의 뜻을 염했고, 또한 그래서 설두가 "그는 다만 밀어 넘어뜨릴 줄만 알았지, 부축해서 일으켜 세울 줄은 을 몰랐다"고 염했던 것이다.

자, 말해보라! 설두의 뜻(雪竇意)이 어디에 있는가?

※鷺鷥立雪非同色 明月蘆花不似他와 관련해서 〈전등록〉 제29권, 동안(同安) 찰(察) 선사의 십현담(十玄談)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枯木巖前差路多 行人到此盡蹉跎 鷺鷥立雪非同色 明月蘆花不似他 了了了時無所了 玄玄玄處亦須呵 慇懃為唱玄中曲 空裏蟾光撮得麼"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⑲ 믿음 편 19

왜 '佛者'가 아니라 '佛子'인가?

붓다의 가르침을 신앙하는 이들을 가리켜 흔히 '불자' 라고 한다. 처음 불교를 접했을 때 불자는 불교인을 가리키기 때문에 당연히 부처 불(佛)에 놈 자(者) 자를 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붓다의 자식이라는 의미로 아들 자(子) 자를 쓴다는 걸 알고서 조금 의아했다. 왜 불교인이 아니라 붓다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초기경전인 〈디가 니까야〉 제3품 27번의 이름은 〈세계의 기원에 대한 경〉 이다. 여기에는 바라문 출신으로 붓다의 제자가 된 사문들의 아픔이 소개되어 있다. 어떻게 최고의 계급인 바라문이 크샤트리아 출신의 붓다를 스승으로 모실 수 있느냐는 비난이 그들에게 쏟아졌던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향한 열정과 붓다의 인격에 매료되어 출가했지만, 자신들을 향한 바라문들의 비난에 못내 힘겨워했다.

붓다가 활동했던 당시 인도는 엄격한 계급사회였다. 바라문들은 신의 입에서 나온 적자이기 때문에 신의 팔이나 다리, 발에서 나온 계급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게 이것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절대원칙이었다. 따라서 인간의 정신문화를 담당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그들뿐이었다. 그런데 크샤트리아 출신의 붓다가 진리를 깨닫고 바라문들이 그의 제자가 되어 정신문화를 전수받았으니, 그들 스스로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다. 또한 자신들이 오랫동안 독점했던 영역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그들은 불편한 심기를 참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환히 알고 있던 붓다는 바라문 제자를 불러 따뜻하게 위로하고 사람의 귀천은 출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있음을 강조한다. 붓다에 의하면 사람의 귀천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진리대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하면서 진리대로 살면 수드라도 귀한 존재이며, 악한 행위를 하면 아무리 바라문이라 하더라도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불교의 인간존중과 평등사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당시 출가한 사문들은 계급과 가문, 성씨 등 모든 배경이 달랐다. 그러나 출가한 순간 그러한 배경들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사람 그 자체만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붓다는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였다.

"나는 사문 석가의 아들이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는 전율을 느꼈다. 불자로서 당당함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붓다의 가르침에 귀의한 이들은 정신적으로 모두 그의 아들과 딸이 된다. 성(姓)도 이 씨(氏)나 박 씨가 아니라 모두 석(釋) 씨가 된다. 부모님께서 주신 내 이름은 이창구지만, 불교에 귀의하여 계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석일야(釋一也)가 된다.

그런데 아들과 딸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닮기 마련이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DNA가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문 석가의 자녀로서 정신적 DNA는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성(佛性)이 바로 그것이다. 붓다의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님(佛)의 성품(性)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불성을 잘 가꾸어 바르게 성장하면 붓다와 같은 부모가 될 수 있다. 즉, 중생이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붓다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불교를 신앙하는 이들을 불교인이 아니라 붓다의 아들, 딸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붓다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불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돈이나 출신이 아니라 법, 즉 진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붓다도 세속적 권위에 무릎을 꿇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향하는 진리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것이 곧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의 삶이다. 불자라고 하면서 진리의 상속자가 아니라 돈이나 권력의 상속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태어나면서 흙수저, 금수저 등으로 신분이 결정되는 오늘날 '나는 사문 석가의 아들이다' 라는 외침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 그 안에 차별이 아닌 평등과 인간존중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불자로서 부끄러운 아들, 딸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특허청 디자인등록



참회진언 타올

40×80cm / 160g / 30수 / 5,000원

세수면진언 타올, 절방석을 덮는 참회진언 大타올도 있습니다.

제일자수타올공업 t. 043)644-1102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일 주 문



제30회 호국충혼 법회

성운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장 스님은 6월 10일 오전 11시 서울 은평구청서 '제30회 나라와 구민을 위한 호국충혼 법회'를 봉행한다.



〈프랑스~〉 북 콘서트

향적 해인사 주지 스님은 6월 29일 오후 2시 해인사 북카페에서 〈프랑스 수도원의 한국 스님〉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



선화여고 수계법회

돈관 은해사 주지 스님은 5월 31일 선화여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은해사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까루나갤러리 초대전

자우 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 스님은 6월 30일까지 국제선원 갤러리카페 까루나에서 화경 신윤자 '맑은 연꽃' 초대전을 개최한다.



백만원력결집 조계종 부 · 실장 동참

1차로 1000만원 후원… 추가 후원 계획

조계종 백만원력결집에 총무원 부 · 실장단 스님들이 뜻을 함께했다.

총무부장 금곡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총무원 부 · 실장단은 5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한 뒤 (재)아름다운동행에 백만원력결집불사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부 · 실장단은 이번 후원금 전달을 시작으로 향후 몇 차례에 걸쳐 추가적인 후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종무위원들의 이 같은 동참에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백만원력결집불사에 함께 힘을 보태줘 고맙다"고 격려했다.

사업부장 주혜 스님은 "백만원력결집불사는 36대 집행부의 핵심사업이다. 부 · 실장 스님들이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불사의 성공적인 회향을 위해 더 많은 종도들이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총무부장 금곡 스님과 기획실장 오심 스님, 재무부장 유승 스님, 문화부장 현법 스님, 사회부장 덕조 스님, 호법부장 성효 스님, 사업부장 주혜 스님, 사서실장 삼혜 스님, 종책특보단장 초격 스님,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자공 스님 등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활기찬 100세 시대 복지관 역량 강화"

Interview

개관 20주년 은평노인복지관 김승자 관장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1999년 7월 서울시립 개관
삼천사 인덕원 수탁 운영해
지역최초 노인복지관 명성
"행복한 노년 영위 도움을"

"서울시에 시립복지관이 20여 곳입니다. 그 중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네 번째로 세워졌는데요. 삼천사 사회복지법인 인덕원과 함께해온 20년입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는데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999년 7월 개관한 서울시립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이 20주년을 맞았다. 개관 당시부터 삼천사 사회복지법인 인덕원(대표이사 성운)이 수탁해 운영해온 은평노인복지관은 앞으로 초고령 시대에 대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복지관 개관 당시부터 근무한 김승자 관장은 개관 20주년에 "감회가 남다르다"는 소감을 전하며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 김 관장은 1997년 인덕원에서 근무하며 은평노인복지관의 위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역군이기도 하다.

"서울시에 여러 기관과 은평노인복지관 수탁을 놓고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운 스님과 직원들이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올렸는데요. 20년이 지난 지금 그때를 돌아보니 기도가 정말 절실했고, 구성원들의 원력이 대단했다는 걸 느낍니다."

은평노인복지관은 은평구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노인복지관이다. 그만큼 여느 복지관보다 선도적인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이는 다른 복지관들의 벤치마킹 사례로 꼽혔다. 최근 은평노인복지관 이용자는 일일 1500명 정도. 복지관 이용을 신청한 어르신은 총 2만7000여 명이다. 은평구에도 여러 노인복지관이 생겼지만 은평노인복지관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은평노인복지관은 현재 150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대지가 넓고 북한산 둘레길과 이어져 어르신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생산적인 사업을 연결해 전문성을 높여야 하는 시대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복지관 역량을 쏟겠습니다."

은평노인복지관에서 최근 어르신들에게 각광받는 사업은 텃밭 가꾸기와 장수사진 촬영 재능기부다. 이 프로그램들은 지역에서 농사를 짓다 올라온 어르신들이 주도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는 점, 사진촬영기술을 배운 어르신들이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은평노인복지관 미션이 '활기찬 100세를 위해 누구나 가고 싶은 복지관'입니다. '누구나'에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포함되죠. 어르신들이 자신감을 갖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행복한 노년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 사명입니다. 지금까지의 20년을 발판 삼아 앞으로의 20년을 다시 꿈꾸겠습니다."

"새 보금자리서 삶의 희망을"

진안 마이산 탑사 · 쌍봉사
사랑의 집 7호 입주 지원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와 쌍봉사(주지 보경)가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해 7번째 '사랑의 집'을 탄생시켰다.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는 5월 23일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진안군 진안읍 상가막마을 김윤성 씨 집에서 사랑의 집 입주식을 개최했다.

입주식에는 마이산 탑사 진성 스님과 쌍봉사 보경 스님, 김용진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최성용 진안군 부군수, 입주자 김윤성 씨 가족과 자원봉사자, 마을주민 70여 명이 참석했다.

진성 스님은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아담한 보금자리에서 행복하게 생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경 스님도 "난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김 씨 가족들에게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보금자리를 지어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며 "김 씨 가족이 희망을 잃지 않고 치료에 전념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성용 진안군 부군수는 "진안군 각계각층의 재능기부가 이웃들에게 꿈과 사랑, 희망을 안겨줬다"며 "자원봉사자들이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된 입주자 김윤성 씨는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항상 위험한 생활을 해왔는데 이렇게 튼튼하고 아늑한 집을 선물 받아 감사하다"며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사랑의 집 신축사업은 원봉사자들의 추천을 통해 자격심사를 거쳐 어려운 이웃에게 관내기업과 종교계, 개인의 후원과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의 재능기부로 15평 내외의 집을 지어주는 사업이다. 진안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가 적극 동참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동창회관 건립기금 1억원

송석환 동국대 前총동창회장 5월 23일 쾌척



동국대 제25대 총동창회장을 역임한 송석환 동진기업(주) 회장은 5월 23일 윤성이 동국대 총장을 찾아 동창회관 건립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송 회장은 "전임회장으로서 모교와 총동창회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 기부했다"며 "동문들의 소통과 단합의 터전이 될 동창회관 건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기부 취지를 밝혔다. 신성민 기자

풋살로 하나 된 세계인

(사)꿈을이루는사람들, 이주노동자 풋살대회



사단법인 꿈을이루는사람들은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아 지산 풋살장에서 '이주노동자 풋살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스리랑카, 중국, 인도네시아 5개 팀이 참가했으며, 베트남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드란두 언기엔 베트남팀 주장은 "세계인의 날을 맞아 평소에 좋아하던 풋살경기를 여러 나라 사람들과 같이 해 즐거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관음보살 이근원통 고찰"

한국불교법사대학, 야외학습 구도법회



한국불교법사대학(학장 지일)은 5월 26일 경북 예천군 용문사에서 춘계 야외학습 및 구도법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정규 학사과정 일환으로서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 수행법을 고찰하고, 용문사의 역사 탐방과 법사 학행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야외학습 구도법회에는 각 과정 재학생 70여 명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승가전통 건강비법
마 가 목(원탕)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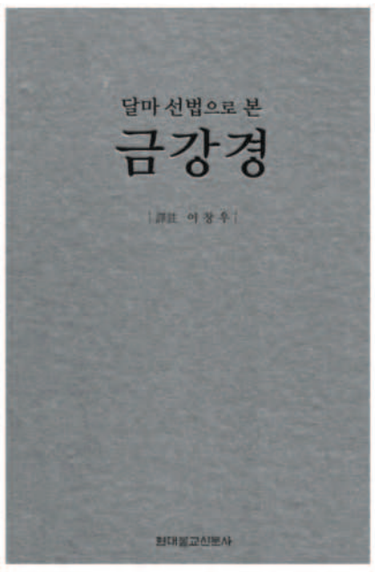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 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탕)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상담문의 010-9049-2848 (공휴일 및 야간전화 사절)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이 책은 참마음, 참나, 참자기, 본래면목, 불성, 자성, 진여일심, 한마음을 찾는 달마선법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풀이(주해 및 강의)한 책이다. 저자인 이창우 거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장 대행 선사의 재가 제자로서 오랫동안 대행선사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마음공부를 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냈다. 저자는 "마음을 몰록 놓는 삶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발 가는 곳에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리(부처)가 있으므로, 생활을 도량으로 삼으면 살아서는 안내자가 되고 죽으면 구세주가 되므로, '참자기'를 스승으로 삼고 '참마음'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 구입문의 : 02)2004-8216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채식당마저… 中 도 넘은 불교탄압

사찰이 세운 '아미타채식'
당국으로부터 개명 강요

조우인 객원기자



최근 중국정부의 불교탄압이 거세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마오쩌둥을 신격화해 본존불로 삼은 사찰도 등장했다. 사진왼쪽은 '마오주석 불타사' 전경, 오른쪽은 불타사 법당 본존불. 가운데 마오쩌둥 양 옆에 주더와 저우 언라이 좌상이 자리한다. 사진출처=비터 윈터

일평균 300명 찾는 채식당
스님 법문 상영했다는 이유
'종교성' 운운하며 규제 강화
마오쩌둥 본존 사찰도 등장

최근 중국정부의 불교규제가 도를 넘어 탄압에 미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국의 종교탄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터넷 매체 '비터윈터'는 5월 24일, 중국정부가 불교계에서 운영하던 채식당을 탄압했다고 전했다.

비터윈터에 따르면 중국 동남부 푸젠(福建)성 산밍(三明)시에 소재한 모 사찰이 개업한 비영리 채식당 '아미타채식'이 당국의 규제로 이름을 개명하고, 식당에 비치된 불교서적과 영상물이 압수됐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아미타채식은 직원 모두가 불교도다. 채식주의와 불교를 포교한다는 이념 하에 급여를 받지 않는 자원봉사들의 노력으로 운영됐다. 식당 내에서는 불경을 강의하는 영상을 방영하고, 불교서적을 배포했다. 1일 평균 300명 정도의 손님이 찾을 정도로 인기 있는 식당이었다.

그러나 개업한지 반년도 되지 않은 지난해 11월 당국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식당에 직접적인 종교성을 띄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이유로 식당의 이름을 개명할 것을 통지했다. 식당은 결국 다른 이름으로 개명했다. 일개 식당에 이러한 규제가 가해진 이유는 식당에서 정토염불로 유명한 징공(淨空) 스님의 법문을 상영했기 때문이라고 비터윈터는 전했다.

징공 스님은 중국출신이나 대만에서 불교를 수학하고, 현재 호주에 정토학원(Pure Land Learning College)을 설립해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1년 중국공산당은 징공 스님의 정토학원이 "신자들에게 교리를 강요한다"는 이유로 다시 중국에 역수입 되는 것을 '침입활동'으로 규정, 해당 단체에 대한 규제를 지속해 왔다.

한편 이 식당을 개업한 사찰 역시 당국의 강제압수조사로 사찰에서 보관 중이던 징공 스님의 서적을 비롯해 대만이나 해외에서 출판된 불서들이 압수됐다고 비터윈터는 전했다.

불교 탄압에 역설적으로 허난(河南)성 루저우(汝州)시에는 공산주의의 지도자들을 신격화한 사찰이 등장했다. '마오주석 불타사(毛主席仏陀寺)'라고 이름 붙은 이 사찰은 법당에 마오쩌둥(毛沢東), 저우언라이(周恩来), 주더(朱德)의 상을 본존으로 모시고 각각 우주천존불조(宇宙天尊仏祖), 중천대불(中天大仏), 관천대불(貫天大仏)로 소개하고 있다.

절의 입구에는 전통적인 사자상이나 인왕상 대신 말을 타고 있는 공산혁명군의 상이 나란히 서있다. 또 마당엔 연화좌대 위에 마우쩌둥의 입상을 세우고 "도교와 불교의 가르침은 마오주석의 교시에 기인한다"는 등의 설명을 좌대에 새겨두었다.

사찰 측은 "최근 당국에서 강행되는 불교탄압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해명했지만, 주변시선은 "비뚤어진 애국심의 발로"라며 곱지 않다. 실제 현지당국의 종교사무국은 해당 사찰을 불교사찰이 아닌 '공산주의 애국교육거점'으로 지정해 공산당원들의 참배를 권유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주민은 "마오주석은 인간으로, 무신론자였다. 문화대혁명 때는 모든 미신을 일소해야 한다고 부르짖었던 이가, 지금은 부처가 돼 공양을 받고 있다. 매우 기묘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고대 불교문헌 복원 크라우드펀딩 착수

시드니대학 올해 말까지
1만4000달러 모금 목표



호주 시드니대학교가 1~2세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간다리(Gandhari) 불교 문헌〈사진〉의 복원 및 출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을 시작했다. 사진출처=글로벌부디스트도어

호주 시드니대학교(University of Sydney)가 고대 간다리(Gandhari) 불교 문헌의 복원 및 출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을 시작했다.

불교 매체 글로벌부디스트도어(Global buddhistdoor) 5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시드니대학 마크 알론(Mark Allon) 남아시아불교학과장은 "남아시아 대승불교 발전의 초기 단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총 1만4000여 달러(한화 약 1670만원) 모금을 목표로 한다. 이후 복원 내용을 대중에게 전파하기 위한 출판도 계획됐다.

시드니대학은 해당 문헌이 대승불교(Mahayana) 발전 과정을 알아보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전까지 남아시아 대승불교 역사의 가장 확실한 단서는 5세기 중국어 번역본이 전부였다. 인도판은 이보다 훨씬 후의 것으로, 네팔과 파키스탄 북부에서 산스크리트어 필사본으로만 주로 발견됐다는 게 시드니대학 측 설명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연구 결과로 해당 문헌은 1~2세기 초에 제작됐다"는 것이다.

시드니대학은 "이 문헌이 초기 남아시아 대승불교의 것인지 논란이 많았지만 (연구를 통해) 그것이 확인됐다"며 "남아시아 대승불교의 부흥을 재평가하는데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시드니대학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대학도 해당 문헌의 역사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워싱턴대학은 "이것은 단지 '또 하나 다른' 문헌이 아니다. 그것은 중요성 면에서 여태까지 발견된 문헌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며 "이 문헌에 대한 연구가 종결되면 '혁명'으로 평가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헌 중 일부는 팔리어, 산스크리트어, 중국어와 같은 다른 언어와 연관성도 발견된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전에 발견된 불교 문헌과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는 전 세계 각지의 불교학 교수가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끈다. 워싱턴대학의 리차드 살로몬, 스탠퍼드대학의 폴 해리슨, 옥스퍼드대학의 앤드류 스킬톤을 비롯해 시드니대학의 이안 맥 래브 등 교수가 머리를 맞댄다. 리차드 살로몬 교수의 경우 25년간 간다리 문헌만을 연구, 1996년 영국도서관과 EBMP(Early Buddhist Manuscripts Project)를 공동 구성한 바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부처님 자비 속 행복한 동물들

싱가포르서 베삭 맞아 '반려동물 축원법회' 열려

부처님 탄생을 기념하는 국제 베삭데이를 맞아 반려동물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5월 19일, 싱가포르의 '더 스타 타임즈'는 동물복지를 위해 봉행된 특별한 법회를 보도했다.

싱가포르에서 유일하게 24시간 개방하는 티베트 불교사원 '텍첸 촬링(Thekchen Choling)'은 베삭데이를 기념해 동물복지를 주제로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서 스님들은 반려인과 함께한 동물들의 머리에 일일이 불상을 대어주고, 감로수를 뿌려 이생에서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지내고 내생엔 더 좋은 삶을 얻기 바라는 축원을 올렸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불교도들과 일반 시민들을 초청한 이번 법회는 불교계와 동물복지단체 등이 연합해 20여개의 부스를 마련했고, 약 800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동물복지단체들은 부스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는 내용의 전시를 마련하고, 기금 모금과 입양운동을 펼쳤다.

법회에 참석한 콜린 휘(Collin Hu) 씨는 "우리 가족은 지난 10년간 베삭법회에 참석해 축복을 받아왔다. 이번에 반려동물을 위한 축복을 특별히 받을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동석한 생후 3개월 푸들을 안아 보였다.

사원 측은 "전통적으로 베삭을 기념해 많은 불교도들이 방생을 하지만, 이번 행사는 방생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무분별한 방생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우리와 함께하는 동물의 복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행사의의를 전했다.

텍첸 촬링을 이끄는 싱하 린뽀체(Singha Rinpoche)는 이날 법문에서 "단지 맹목적으로 불법을 으려는 것보다 인간과 동물 모두 평등한 생명이라는 가르침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우인 객원기자



법회에 참석한 반려견을 축복하는 스님. 사진출처=더 스타 타임즈

극우불교단체 수장에 체포 영장

미얀마 경찰, '마바타' 지도자 위라투 폭동선동 혐의

'미얀마의 빈라덴'으로 불렸던 극우 불교단체 수장 위라투〈사진〉에게 결국 '폭동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5월 29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양곤 서부지방법원은 전날 극우불교단체 '마바타(Ma Ba Tha)'의 지도자 위라투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의 구체적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폭동선동 혐의'라고 외신은 보고 있다.

위라투는 최근 시위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현 정부가 부패했다"며 정부에 날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다. 미얀마에서는 정부에 대한 증오·경멸·불만을 촉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사진출처=AFP

한편 위라투는 그동안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등 미얀마 내 반이슬람 정서를 퍼트려 비판의 대상이었다. 그는 극단적 언행으로 불교원로회의로부터 활동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금지 기간이 풀린 지난해 3월부터 다시 자극적 발언을 재개해 도마에 올랐다.

박정현 객원기자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 문 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의학 속담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회원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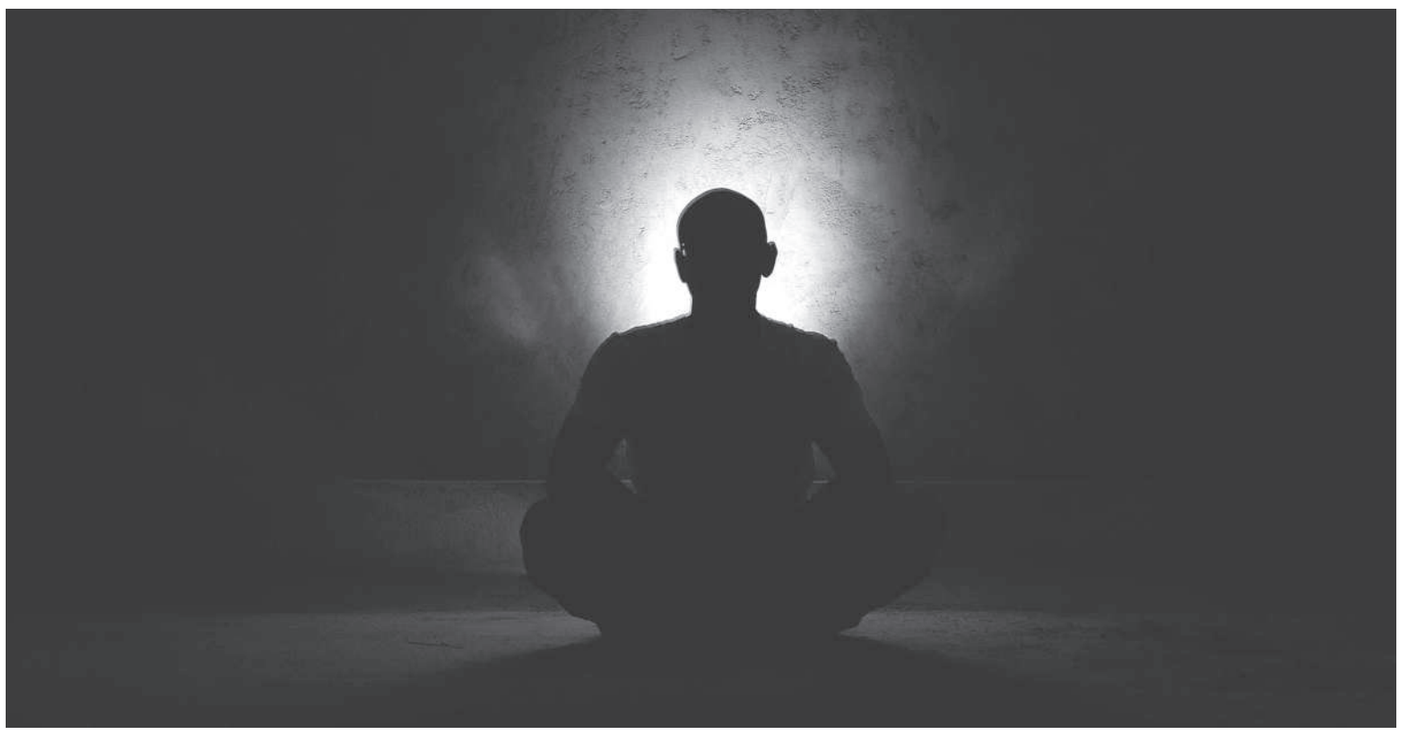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

〈8〉 7문–만트라명상

강명희

입으로 외고, 귀로 듣는 겸수〈兼修〉



얼마 전에 평생 처음으로 풀을 맸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네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맸는데, 호미가 없어서 손으로만 풀을 매니까 품이 두 배로 들어요. 풀 매는 것도 똑같은 동작을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시간 동안 일 사마타를 했지요. 다음 날 손이 안 구부러져요. 손톱이 빠질 거 같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거 같고, 뒷다리까지 당겨요. 마음관찰하면 의도대로 보기 때문에 일정한 것만 보거든요. 일을 하면 근육이 사마타되어서 근육쪽 마음을 건드려요. 그게 일명상입니다. 잘 안 쓰던 근육을 건드리기 때문에 일하면서 나타나는 마음들이 많아요. 어떤 동작을 반복하는 것에는 사마타처럼 선정의 요소가 많습니다. 만트라도 사마타하기 좋아요. 똑같은 음을 반복하거든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염불을 외면서 똑같이 반복하면 사마타 효과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화두선이나 위빠사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염불은 똑같은 음을 반복하고 힘까지 있어서 마음에 팍팍 들어갑니다. 소리가 마음에 저장된 강하고 센 것들은 파괴하거든요. 업장을 파괴하는 효과가 큽니다. 만트라는 신비한 힘과 위신력과 진리까지 합성해 놨어요. 그러니 알 수 없는 마음의 작용들을 많이 관찰할 수 있지요. 만트라가 마음 안으로 파고들어가는 힘이 탁월합니다.

초창기에는 만트라를 많이 했습니다. 센 것들이 막 튀어나오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울고불고했어요. 일단은 현실에서 억울한 것부터 튀어나오거든요. 내가 내 관념 때문에 힘든데 그걸 모르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게 건드려지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요. 시끄럽다고 귀 막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트라는 울고불고하는 그 소리까지 들어야 합니다.

오로지 자기 소리만 듣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소리 하나도 안 듣는 사람은 엄청나게 센 사람입니다. 자기 소리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업장을 빼는 건 소승의 방법입니다. 내 소리가 다른 사람 소리와 화합해서 울려 퍼지면 감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합창 소리가 정서에 좋습니다. 노래를 통해서 마음을 울리거든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합창단 만들어서 반별 대회하고 그랬어요. 화합해서 한소리를 내는 게 굉장한 방법이에요. 그것이 만트라입니다.

만트라에는 신명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세상 모든 소리가 모두 만트라지요. 우리가 어떤 만트라를 선별해 쓰는 것뿐이지, 세상 소리 중에 만트라 아닌 게 있겠습니까? 모든 소리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 마음이 담겨 있어요. 소리는 신수심법 4념처에서 수념처에 들어가고 감정에 들어갑니다. 원래 물질계를 넘나드는 게 소리고 감정이거든요. 안과 밖의 모든 물질을, 물질적 사고를 파괴하는 게 만트라입니다. 소리를 세력화해서 파괴하지요. 물질에 갇힌 것들이 파괴되면 외부 물질이 들어옵니다. 만트라가 각광받았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수행초기 화두선 · 위빠사나 난해
만트라는 마음 작용 관찰 쉬워
참회 · 청정 · 자비진언 등 외면서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염불해야

대표적인 만트라 진언 세 가지

만트라는 문자나 음을 입으로 외우고 귀로 들으면서 수행합니다. 계속하면 사마타 기법으로 소리가 마음에 들어가게 하지요. 몸에다 만트라를 해도 되고, 생각에다 만트라를 해도 됩니다. 만트라는 신비한 힘이 있으니 오랫동안 하면 효과를 많이 봅니다. 대표적인 만트라 수행이 염불선이지요. 만트라 종류가 많은데, 일단 진언으로 만트라를 합니다. 진언은 종류가 많고 진언마다 특색이 있어요. 초심수련이라 쉽게 할 수 있는 세 가지만 소개합니다.

우선 '옴 살바 못쟈모지 사다야 사바하' 참회진언입니다. 나의 회한, 나 잘났음을 녹이는 게 참회진언입니다. 내 안에 갇힌 나, 나만 아는 나, 주변을 힘들게 했던 나를 털어내는 게 참회진언입니다. 저는 이 진언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내 감정이 세서 상대방에게 상처 줬던 것을 참회진언이 다 쳐내거든요. 내 감정이 세서 다른 사람 때리기도 하지요. 사실은 내가 나를 제일 힘들게 해요. 내가 나를 괴롭혀요. 이런 걸 녹이는 것이 참회진언입니다.

그 다음에 청정진언이 있습니다. '나무 사다남 삼먁 삼못다 구치남 다냐타 옴 자례주례 준제 사바하 부림.' 이 진언은 칠억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칠구지불모 대준제보살은 칠억 부처님의 어머니가 된 보살인데, 엄청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 진언이 천수경에도 나와요. 바위 같은 업장을 깨서 청정한 마음이 나오게 하므로 청정진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청정진언에 '부림'을 넣자, 넣지 말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부림'은 도돌이, 계속 반복하라는 뜻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비진언은 '옴 마니 반메 훔'입니다. 마음을 확장하고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사랑의 마음을 키우고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키우기 때문에 자비진언이라 하지요. 관세음보살처럼 모든 대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괴로운 소리를 다 듣고 해결해 준다 해서 '관세음보살 육자대명왕진언'이라고도 합니다.

참회진언, 청정진언, 자비진언 이 세 가지 진언을 그때그때 많이 하면 힘든 일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시달리고 힘들고 회한이 많으면 참회진언 '옴 살바 못쟈모지 사다야 사바하'를 하세요. 몸이 아프면 청정진언 '나무 사다남 삼먁 삼못다 구치남 다냐타 옴 자례주례 준제 사바하 부림'을 외우세요. 몸의 딱딱한 업들 바위같이 센 업들을 다 쳐 버립니다. 업장소멸하는 데는 이 진언이 좋습니다. 계속하면 '뭘 깎아내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해요. 세 가지 진언 중에서 가장 무리가 없는 진언이 자비진언 '옴 마니 반메 훔'입니다. 자비진언은 부드러워요. 무리 없이 쉽게 마음으로 들어가면서 사랑을 채워 주는 진언입니다.

마음이 일어날 때 이 세 가지 진언으로 사마타해서 위빠사나까지 하면 아주 좋습니다. 중생의 업장이 세기 때문에 그냥 위빠사나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염불을 하거나 진언을 하면 극복하기 좋아요. 화두 집지하는 것보다 만트라 수행하는 게 훨씬 쉬워요. 염불하면서 염불을 화두처럼 장착하면 됩니다. 만트라 수행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워낙 강력해서 초심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꼭 도반과 함께 하세요.

소리에 담긴 진리를 찾아

현실에서 말하고 듣는 게 잘 되면 수행이 많이 된 것입니다. 말은 잘 하는데 남의 말을 안 듣는다면 수행이 된 게 아닙니다. 시시한 사람의 말에도 진리가 있어요. 진솔하게 자기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진리의 말씀입니다. 고고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도 진리고, 강아지가 멍멍대는 소리도 진리입니다. 제가 고양이를 길러 보니까 알겠어요. 야옹 소리에 감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마음을 전하지만 고양이는 야옹 소리로 마음을 전해요. 우리는 일정한 틀을 만들어서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만트라는 착각을 깨는 데 탁월합니다. 만트라를 계속하면 소리의 파장 자체가 한곳으로 들어가요. 이게 사마타 기법입니다. 소리를 내는 데 집중하든, 소리가 나는 데 집중하는, 입모양에 집중하든 한곳에 집중하세요. 집중하다 반응이 일어나면 소리를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어깨가 아프면 어깨 아픈 곳에 소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일치가 되면서 삼매를 경험합니다. 듣기도 해야지요. 아미타불 염어를 듣든 관세음보살 염어를 듣든, 들으면 그게 또 만트라입니다. 폭포 소리를 듣고 있으면 그 소리가 나를 사마타해서 내 마음을 확 트이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마음이고, 물소리가 나하고 어떤 마음으로 결합했는지 알아요. 답답하면 바다에 가고 싶어집니다. 파도치는 소리를 들으면 시원하게 속이 뚫리니까. 내가 나를 뚫는 것보다 외부가 나를 뚫는 게 많습니다.

만트라는 입으로 하면서 듣는 겸수(兼修)의 수행법입니다. 날 보여 주는 것도 잘하고 대상을 보는 것도 잘해야 합니다. 나를 잘 보여 주는 사람들이 대상도 잘 봐요. 그런 걸 지혜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 진리 속에 들어 있지요. 단정적인 말, 이득을 따지는 말, 잘난 척하는 말은 듣기가 힘들어요. 위빠사나 잘하는 사람들은 상호 교류관계를 알기 때문에 중도 이치에서 말하지요.

만트라를 혼자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만트라가 세거든요. 앉아서 관찰하는 것도 세지만, 힘을 가진 소리로 턱턱 치는 건 더 강렬합니다. 그래서 센 업이 확 드러날 수 있어요. 센 업이 들이닥쳤을 때는 그게 진짜처럼 느껴져요. 그 순간에 나왔던 것이 나를 확 덮거든요. 드러났을 때 그 업을 해결할 수 있는 관찰력이 있거나 그게 헛것이라는 것을 확연히 알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여럿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보자들은 더욱 그렇지요.

여러분이 수행이 많이 되면 스스로가 스승이 되기 때문에 스승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반과 도량은 항상 필요해요. 도량에 수행하는 기운들을 뿌려 놓으면 다음 사람들이 그 기운을 받아 또 수행하게 됩니다. 도반은 수행만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쉴 때는 친구처럼 얘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여행도 같이 가요. 도반은 인연관계로 묶이지 않아서 순수한 도반관계가 형성되면 수행하는 데 부담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반야지혜가 드러나고 마음의 공성이 드러나면 진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공통된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얘기하면 산천초목뿐 아니라 미물도 반응하지요. 진리까지만 가면 내가 하는 얘기를 나도 믿을 수 있고, 대상도 믿을 수 있고, 모든 만물들이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도반과 도량과 선각자들이 내놓은 길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반야라는 진리는 누구나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진리에 근거해서 얘기하거나 공감하거나 나누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진리를 통해서 모두가 합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강명희의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담앤북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영·유아 행복드림 사업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라이프 가든(베이비 박스)
후원문의 051)664-7300 | happiness2121@hanmail.net
영·유아 유기 관련
사회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 및
영·유아 생명권 보호
❶ 영·유아 유기 예방 시스템
❷ 영·유아 생명권 보호: 라이프 가든
❸ 영·유아 유기 관련 연구
(사)국민행복실천 운동본부는 홍법사, 동의대학교와 함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바른 뜻을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4:21 PM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2019.01.16 수요일
소중한 생명에게는 푸른 새싹이 자랄 수 있는 따뜻한 손길을,
소외된 임산부에게는 소중한 생명과 함께할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화장실서 출산 후 아이 방치..숨 거두자 검은 봉투에 넣어 유기 2018년 11월 23일 | 전북 익산
건물 뒤편 공터에서 미숙아로 보이는 영아 시신이 발견 2018년 8월 28일 | 광주 광산구
냉장고에서 영아 시체 2구 발견 2018년 | 부산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대행 스님

자기 안으로 모든 것을 굴려서 자기가 자신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오늘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해 봅시다. 지구에 관한 건도 옛부터 활동하고 시각적으로 움죽거리던 장소가 지금 장소와 둘이 아니라는 거, 예전에도 우리가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있노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재차 말씀드리지마는 모든 것을 놓는다, 모든 것을 맡기고 산다 하는 그것이 방하착(放下着)이라면 첫째, 모든 잡념과 전자에서부터 얻은 그 습성을 다 녹여 버리고 자기의 그 참 생수 맛을 봐서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합니다. 또 이차적으로 자기를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상대방과 나와 다시 죽는 법을 또 배워야 된다. 다음에 세 번째, 상대방과 나와 더불어 같이 나툴 줄 알아야 한다. 만약에 상대방과 나와 죽지 않는다면 상대방과 나와 같이 나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재차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 저러한 경험을 살림살이에서 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아주 놔 버리는 데, 맡겨 놓고 사는 데에 여념이 없어야 하는 것이, 온갖 작동을 하면서도 그 작동하는 것이 바로 자기 주인공에서 다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전수가 차를 몰고 다니는데 그 운전수에 모든 것이 달려 있듯이 모든 걸 거기에 맡겨 놓음으로써 전자부터의 자기 종 문서를 몰락 태워 버릴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탄생했을 때 내가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엉뚱하게 이 세상에 걸맞지 않는 말과 행이 솟아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관을 통해서 내가 보고 이것이 걸맞지 않는다면 자기가 제재해서 거기다 다시 놔야 되는 법입니다. 밖에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해야 되는 것도 잘못이지만 안팎이 다 그렇겠죠? 그래서 양면을 다 쥐고 갈피를 잡고 즉각적으로, 이게 잘못됐다는 거 잘됐다는 걸 번연히 안다면은 이것을 믿고 들어가라. 믿지 않는다면은 상대가 걸리고 상대가 걸리면 불평이 나옵니다. 믿고 상대가 없다면 불평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이 소릴 들었다 저기에서 저 소릴 들었다, 저걸 봤다 이걸 봤다 했을 때에 믿지 못하면 나는 어떠한 말을 한다, 행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 나라면, 둘로 보지 않았다면, 믿는다면 '아, 그렇기도 하겠지. 고정됨이 없으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지.' 하는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 한마디 할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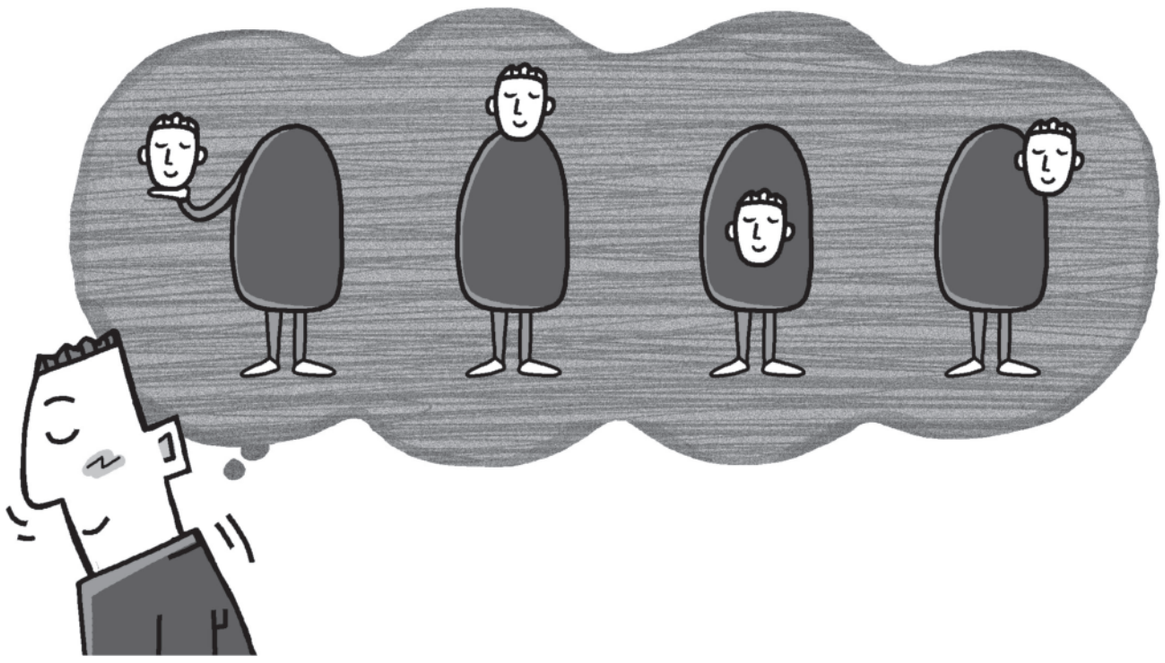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기 안에다 모든 것을 굴려서 '아, 어찌 저렇게, 내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러한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찌 이렇게 될까?' 하고 안으로 굴려서 자기가 자신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세 단계가 없는 세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도리를 거기에서 넘기지 못한다면은 같이 죽어서 같이 나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더 이건 심사숙고해야 된다.

여러분이 선원에 오시는데 만약에 여기 오시는 분들만 구제를 하는 부처님이 계시다면, 그게 부처님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어디 앉아 있는 거나 서 있는 거나 고정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의 살림살이처럼 남편이 급하면은 급한 대로 나가서 뛰다가 사흘도 못 들어오고 나흘도 못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남은 바빠서 돌아치는데 불평불만 하겠습니까? 그걸 안다면 말입니다. 제때에 밥도 못 먹고, 제때에 잠도 못 자고, 참, 피로한 몸을 끌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들어온 사람더러 말하겠습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당신 어디 갔다 왔어?"하고, "나는 죽도록 가정을 위해서 했는데, 당신이 좀 더 집에서 잘해 줬으면 자식들과 모든 것이 평안할 거를 왜 당신은 나가서 그렇게 돌보지 않느냐? 전에는 안 그러더니 맘 변했다." 이거거든. 그러나 남편은 그게 아니라 제 속을, 나가서 일하는 걸 일일이 말할 수는 없고, 또 만약에 말을 해서 어떠한 불리한 조건이 생길 수 있는 말이라면 말을 못 하는 거라. 그렇다면은 말을 못 하고 "나를 믿어라. 믿으면은 모든 것이 잘될 거다." 이러겠죠. 이렇게 하는 것도 믿어지고 저렇게 하는 것도 믿어진다면 아무 말 대상이 없는 거죠.

아,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넓혀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잘 알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국내 돌아가는 것도 알고, 모든 거를 보고 알죠. 그러면서 답답하게 마음을 좁게 생각하면서 내 생활이나 가정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걸리는 일들이 오죽이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선원에서 공부하는 것도 마음으로 하는 일이니까 몸뚱이는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고 뭐 괜찮지 않냐 이런 말도 하지 말아야 하고, 일할 때에는 말도 그렇고 몸뚱이도 그렇고 그것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때에 따라서, 그냥 순간순간 급하게 돌아가면서도 여러분을 만나 주는 이 마음들을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어떠할까? 좀 지혜를 넓힌다면 어떠할까?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둘을 생각하고 셋을 생각하고 넷을 생각하고 백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그것이 유리할까? 여러분을 위해서지 여러분을 위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누구나가 목탁이나 쳐 주고 염불이나 해 주고 얼굴이나 봐 주고 말이나 조금 해 준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도 편안하겠죠.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알지 못하고, 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그걸 알텐데 그걸 모르고 좁게 생각한다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또 스님네들, 보살님들, 보살행 하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면서 처음에 오시는 분들을 인도해 가면서, 그러한 문제들을 커버해 가면서 한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오죽이나 아쉽지 않고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말해서 알고 계시죠. 지금 시대가 바뀌져서 호국 불교나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일을 하려고 해도 몸은 가만히 놔두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봐서 어떠한 것이 제일 문제일까요? 그걸로 말미암아 '저 스님은 뭐를 하길래 그러나?' 하고 의정을 가지고 한번 관(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을 안으로 굴려 봐야지 이게 이렇고 저게 이렇고…, 돌아오면은 더 커질 수가 없습니다. 한 발을 한 번 뛰어넘을 수가 없이 거기에서 멈춰지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 참지혜를 넓히도록 하시기를 바라고요.

예전에 얘기했듯이 지수화풍(地水火風)으로 그 마음과 모습과 이 뜻이, 장소와 모든 것이 전달이 돼서 지구가 생겼고 이 땅에서 나는 모든 것에 의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지수화풍 네 친구가 동업을 해서 회사와 같이 형성을 해 가지고 그걸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쪽쪽이 나누다 보니까는 대천세계(大千世界)니 중천세계(中千世界)니 소천세계(小千世界)니 이런 문제가 나왔고, 오늘날에 수많은 별들과 수많은 행성이 생겼고 은하계가 생겼고 또 우주라는 이름이 생겼고 지구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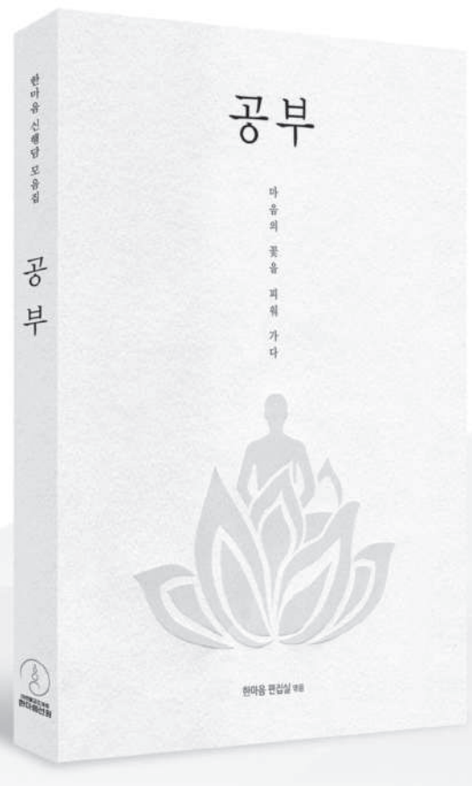
우리가 지구의 모든 형태나 모든 작동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지난번에 삼각원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자력으로써 돌아갈 때는 무전자력, 즉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떠한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전자력과 전자력, 또는 유전자력 그것이 한데 합쳐지니까 원자력으로 통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원자력에서 나가는 그 자체로 인간이 형성된 거와 같이, 좀 다르지마는 말을 하자면 그와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원자력에서 그 힘으로써 작동하는 데는 삼 단계가 있다, 인간에게도 있고…. 우린 그 원자력에서 나오는 작동하는 분비물에 지나지 않는다. 분비물에 지나지 않는 그 물이, 액체가, 찬물의 액체나 더운 가스의 액체가 한데 어우러져서 나올 때는 1키로에 한 점 빠지는 그런 거리마다 이렇게 사이가 벌어져 있으면서 자동적으로 벌어졌다 오므라졌다 합니다. 이 지구 자체의 그 내막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저절로 돌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차가 돌아가는데 차 안에 그냥 서 있듯이,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밑으로는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없이 지금, 시간과 공간도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습니

☞ A18면으로 계속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잘못되는 것을 그대로 보면서 보지 말고 안에다 놔 버려라

☞ A17면에서 계속

다.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가만히 앉았어도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우리 인간은 도대체 감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내고 들이고 내고 들이고 하는 까닭에 이 지금 땅에서나 물에서나 지진이 일어나고 또는 파워가 일어나고 가스가 일어나고, 즉 말하자면 화산이 일어나죠. 이러는 문제가 일어나는 것 중에 거기에서 그렇게 나지 않는다면, 돌아가면서 그게 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디에서부터 그렇게 생겼는가를 얘기해 봅시다. 바로 그 분비물입니다. 그 분비물에서 물과 흙이 조화가 되지 않는다면 생명이란 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뛰어넘읍시다, 그전에도 얘기했으니까. 그 생물에서부터 억겁을 거쳐서 넘어온 걸 뛰어넘어서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원자력으로 그렇게 돌아온 얘기. 그런데 거기에는 또 해 줄 받침이 있다 이겁니다. 촉각, 지각, 시각, 미각 또는 청각, 감각이 전부 거기에 뒷받침이 돼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 뒷받침이 돼 줌으로써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작동을 하느냐? 줄창 말했죠. 오신통에 관한 건.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신족통, 누진통 여섯 가지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시쳇말로 하자면, 즉 컴퓨터나 탐지기나 책정기나 또는 망원경이나 통신기 또는 영사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다 첨부된 겁니다. 그래서 열여덟 가지에 관한 건이 첨부돼서 같이 돌아가면서 이것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활용을 하는 거죠.

인간에게도 그렇게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인간에게도 그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아무 생명이 없다고 하지만 지구가 작동을 하고 돌아가는 데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작동을 하고 돌아가느냐는 얘깁니다. 만약에 바람신이 아니라면, 바람이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불고 돌아가느냐 이겁니다. 흙도 생명이 있고 흙신이 있고, 목신이 있고, 바람신이 있고, 불신이 있고, 모두 신이야. 인간들도 다 각종 신이란 말입니다, 자신(自神). 그런데 다 자신인데 차원에 따라서 자신이 악신이냐, 귀신이냐, 선신이냐, 선신도 악신도 아닌 부처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참 묘한 거는 우리가 이 미생물이 되기 이전에도 우린 그때도 거기 있었다는 얘깁니다. 우린 그때도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지구가 생기기 이전에도 우리는 작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비교를 해서 얘길 하는데 끝없는 전자의 작동이, 그 장소가 다른 게 아니라 오늘의 장소고 오늘의 모습이고 끝없는 그 진리가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교를 할 때에 자식을 낳았는데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다. 부모의 얼굴 생긴 거, 성격 같은 모든 거를 다 자식이 알아요. 알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고 지내는 거를 알고 있죠.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자식이 하는 일도 또 다 알고 있고, 그 자식이 부모가 하는 일도 또 다 알고 있어요. 상세히는 몰라도 항상 안에 있던 게 겉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 숨길 수는 없어요.

속에서 불화가 나면 욕을 한마디 해 대니까 그것도 알게 된 거다 이겁니다. 네 속을 알고 있는 겁니다, 다. 또 한마디 따뜻하게 해 주는 것도 그 속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속 다르고 겉 다른 사람도 있거든. 그러나 겉 다르고 속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고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말이 차마 안 나오걸랑 안으로 굴리고서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좋다. 얼굴 표정을 좋게 해라. 참, 종교라든가 심리학자라든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천체물리학이라고 말할 거는 없지마는 우리 하나하나 살아나가는 데도 과학적인 문제가 거론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연방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이 됩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이 되고, 모습과 모습으로 전달이 되고, 물건과 물건으로 전달이 돼요. 예를 들어서 옛날 원시 시절에 만약에 그릇이 없어서 뭘 끓여 먹지 못했다 할 때 어딘가가 마음에서 이걸 이렇게라도 해 보자 해서, 흙을 개서 뚱그렇게 해서 말려서 불에다 놓으니까 그것이 익었다 했을 때, 그 사람은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해서 거기다 끓여 먹었는데, 그 사람이 없어지고 그 그릇이 부서졌어도 부서진 그 쪼가리는 있었더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먹는 야쿠르트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냥 먹습니다. 석유로도 그릇을 만들어서 쓰고, 수많은 일들이 그렇게 발전이 된 것이 어디에서 비롯됐느냐는 얘깁니다.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에서 발전을 했고 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꼭 흙에서 와서 흙으로 발전이 되고 흙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선 천만 가지 만만 가지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보석도, 모든 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나의 원형을 이룬 이 원자력의 한 점의 마음에서 그 큰 성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게 허망하다, 이 몸뚱이는 허망하다 그러죠? 그런데 그 몸뚱이는 없어졌어도, 만약에 이 물건을 하나 해 놨다 합시다. 그런데 이게 몇천 년이 가면 없어진다고 합시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라 가면서 이걸 보고 바탕을 삼아서 바로 연구를 하고 또 개발을 해내고 그러니까 이것은 여전히 살아 있는 겁니다. 이게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거를 벌써 마음으로, 벌써 눈으로 오관을 통해서 보고 자기가 물건을 만들면서 딴 물건을 만들면서 바로 진화시키면서 자기는 발전하면서 자기 마음으로 벌써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왜 죽은 겁니까? 산 겁니다. 이 물질은 남이 볼 땐 이것이 망그러지고 다 없어졌지만, 목이 떨어지고 쪽이 다 떨어졌지만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 마음을 전달해서 벌써 그건 발전이 돼서 딴 걸로 생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도 죽는다, 몸뚱이 이건 다 늙어 빠졌으니 허무하다 이러죠. 그러나 허무하다는 생각은 마세요. 이것이 없어진다고 해도 마음과 마음으로 벌써 전달을 한 겁니다. 모습도 전달을 했고 마음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자기는 옷을 싹 벗고선 전달이 된 자기의 생산처로 또 준비를 한 거니까요. 그렇게 가고 오고 한 찰나에 가고 오는데 무엇을 죽었다고 하고 무엇을 살았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왜 얘기 안 해 주고 이런 말을 하냐고 하겠지만 세상을 밝게 보십시오. 귀를 열고 눈으로 밝게 보신다면 이 세상 돌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팔만대장경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시절의 방편을 써서 말씀하신 그 언어가 오늘날 시절이 바뀌어서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시체(時體)의 언어로 말을 해 줘야 알아들을 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도 잘 모르지만 그렇게 좀 더 애를 쓰고 하는 거죠. 나도 지금 시대의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지금 시대의 젊은이들보다 또 나이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었어도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년 만년 수억 년이 간다 하더라도 죽지 않는다. 이 모습은 작동하는 대로, 시공간이 없이 돌아가는 이 작동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몸은 늙는다. 이 몸은 늙으나 육신은 벗어 버리고 다시 갈아입으면 될 것이고, 언제나 죽는다 산다 하는 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 그렇게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이 됐고, 벌써 이거를 보고서 이거보다 저게 좀 낫겠다 해서 저걸로 발전을 해서 바로 다른 걸로 생산이 됐고 발전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절이나 어느 곳에 믿음을 가진 데나 또는 위대한 사람을 사람의 모습으로 해 놨지 다른 걸로 해 놓지 않았죠? 요거 한마디만 하고 끝내렵니다. 그리고 내일 그거는 이어서 하고요. 글쎄 사람도 이런 게 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죽은 사람, 보이지 않는 데의 마음도 그렇지만 보이는 데 마음도, 사람이 악하냐 선하냐에 따라서 무엇을 맡겨도, 악한 사람한테 맡겨지면 아주 고통스러울 거고 선한 사람에게 맡겨지면 좀 유할 테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아서 악한 대로 돌아가고, 자기가 짓고 자기가 한 선한 일은 자기가 한 것만치, 자기가 하는 것대로 끼리끼리 이렇게 맞상대가 되고 모이게 되고 거론이 되고 전달이 되고 이러니 그걸 가지고 업보다, 업보다 하는 겁니다. 유전이다, 업보다, 인과응보다 이런 문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요, 예전에 이런 걸 봤어요. 아주 가난한 어느 여인이 어린애 하나를 데리고 죽었습니다. 아주 가난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죽었어도 그렇게 마음이 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한테 요만큼도 생명에 언짢음을 주려고 하지 않고, 남의 거를 거저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것 그대로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만 죽어 버리기까지 했죠. 그래서 저는요,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데 사람이라고 합시다. 또 보이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좋습니다. 그 사람을 저는 항상 믿고 열쇠를 맡기고 일을 하게 했습니다. 조금도 깔축은 없는데 융통성이 조금 없어, 좀 더 지혜가 있고 그러면은 좋을 걸. 이런 게 조금 아쉽긴 해도 너무나 착하니까, 우주의 법망에 어디든지 통과가 안 되는 게 없거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게 전부 있기 때문에.

아까 단계 단계 얘기했죠? 원자력으로부터 전자력 또는 그 무전자로부터 무전력, 이게 한데 있었는가 하면 지각이나 촉각이나 이런 문제를 얘기했고 그다음 또 우리가 탐지기나 천안통,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 단계 단계 단계, 이것이 인간에게도 다 주어져 있고 이 지구에도 주어져 있고 어떠한 물체에도 주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별성에도 그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통신이 되는 겁니다. 천체 통신이 가능하죠.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착한 사람은 어디서 돌보든지 돌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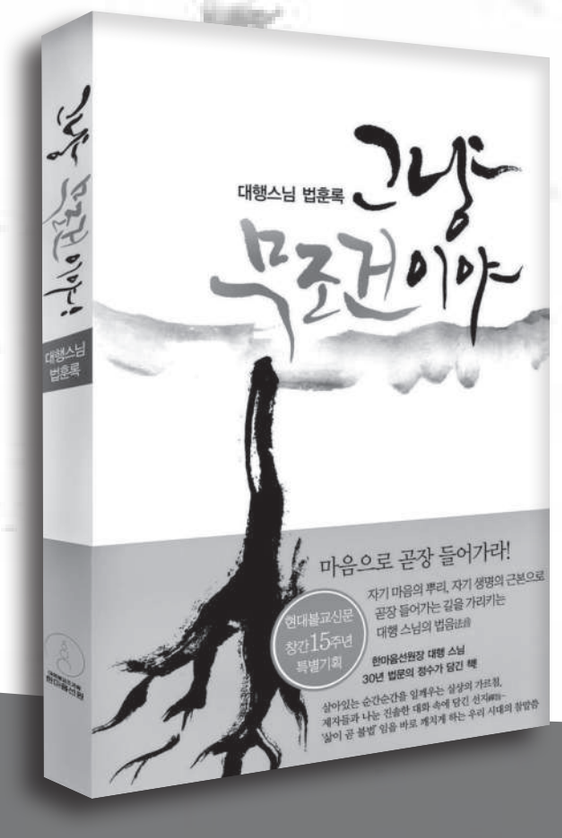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분들은 누가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보지 말라 이겁니다. 지금 나 가기도 바쁜데 왜 거길 보느냐 이거야. 왜 거길 봐? 그거부터 배워야지, 만약에 그거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이건 만날 작은 그릇에 엎드러져서 그 그릇에서 만날 헤어나질 못해! 그게 습이거든. 그래서 잘못되는 거를 그대로 "보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보면서 보지 말고 안에다 놔 버려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물건은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 물건을 생산을 해서 내도록 자비를 가져라 이 소립니다. 허허허. 물건이 잘못되고 녹이 슬었으면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 좀 더 좋게 해서 내면은 좋을 거 아니냐. 언젠가는 그렇게 거기다 넣으면 다시 생산이 돼서 나오게 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참지 못해서 이거는 '이 접시의 쪽이 떨어졌어!' 이럭하면서 말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쪽이 떨어졌으면 쪽이 안 떨어지게 용광로에 넣어라.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금 쪽이 안 떨어진 것이 나오도록만 용광로에 넣고, 말로 하지 말라 이거야. 왜, 지금 내가 바빠서 죽겠어, 응! 지금 다시 자꾸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 생산을 해내야 될 텐데, 생산하는 거는 나중이라도 자꾸 넣어야 될 텐데, 그러면, 스스로 넣게 되면, 스스로 용광로에서 새로 또 발견이 되면 '아, 그때는 그렇더니 새로이 이게 나오는구나!' 하고 또 달리 보일 때가 있고 달리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겁니다. 물건이 다르니까, 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고정되지 않다는 얘깁니다. 고정되게만 보지 말라.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달라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행을 하고 고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한 가지를 보고 고정되게 말을 집어 낼 수 있느냐.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일 년 후에 다르고 몇 달 후에 달라질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러나 고질 병자들은, 고질병이라는 거는 그 습을 놓지 못한다면 고질병이다 이겁니다. 오늘은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 공부하는 사람은 누가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그건 보지 말라.
> 지금 나 가기도 바쁜데 왜 거길 보느냐.
> 그거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만날 그 그릇에서 헤어나지 못해.
> 그게 습이거든

※위 법문은 1986년 6월 21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현불 논단 |

'베삭데이' 국제포교에 활용하자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韓불교, 국제포교 사찰 창건 '우선'
해외서 더 힘들고 어려운 寺 설립
국제행사 참여 통해 韓불교 알려야

남방불교 부처님오신날인 '베삭데이'
UN 기념일 공식 지정돼 매년 개최
16회째 행사 베트남서 성황리 열려
전 세계 105개 국가서 1,050명 참가

한국불교, 개인 차원 참여에 머물러
UN 베삭데이 국제포교의 장 인식해
주요 종단 대표자 적극 참여 고려를

한국불교의 국제포교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국제포교라면 외국에 한국 스님과 신도가 사찰을 창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는 한다. 한국불교를 외국에 전하기 위해서는 근거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틀린 생각만은 아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사찰 창건이 녹록지 않은 일인데 외국에서 사찰을 창건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이야 두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그런데 외국에서 한국불교의 신도를 늘리기에 앞서 한국불교를 외국에 알리고 교류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 보다 많은 국제포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한국불교는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등의 남방불교는 물론 같은 북방불교인 티베트, 중국, 일본 등과 비교하여도 국제적 인지도가 높다고 장담하기는 힘들다. 이를 극복을 위해서 한국불교가 국제적인 불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베삭데이(Vesak Day)'는 주목할 만하다.

베삭데이는 흔히 베삭으로 불린다. 베삭은 부처님의 탄생·깨달음·열반을 기념하는 남방불교의 '부처님오신날'로 이해할 수 있으며, UN이 공식 지정한 기념일이다. 남방불교권의 각국은 개별적으로 베삭데이 행사를 열고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개최국을 공식 지정하여 국제 행사인 '유엔 베삭데이(UN Vesak Day)'를 봉행하고 있다. 이 행사는 UN이 지정한 공식 행사인 만큼 성대하게 치러진다.

2019년 올해에는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제16회 유엔 베삭데이가 개최되었다. 공식 명칭은 'THE 16th UN DAY OF VESAK 2019'였다. 공식 행사는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었다. 첫날인 5월 12일에는 개막식이, 13일에는 국제학술대회가, 14일에는 폐막식이 있었다. 매일 행사가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뤘다. 주최 측 관계자에 의하면, 105개 국가에서 1,050명이 참가했으며, 베트남 자국민은 2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12일 개막식에는 각국에서 참가한 수상과 총리 그리고 불교지도자 등 귀빈들의 인사말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져 행사의 격(格)과 규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13일 국제학술대회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글로벌 리더십과 공유에 대한 불교적 접근'이라는 유엔이 지정한 대주제 아래 5개의 세부분과가 구성되었는데, 하루 종일 학자들과 청중들이 열띤 토론 속에서 연구 성과를 공유하였다.

14일 폐막식은 오전에 주최 측의 행사 성과 보고로 마무리 되었으며, 폐막식 이후에는 베트남 여행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베삭데이 기간 중 야간에는 베트남 공영방송의 생중계로 공연과 축제가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매우 한정된 지면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베트남에서 열린 유엔 베삭데이를 상세하게 설명한 것은 이에 대한 한국불교의 관심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유엔 베삭데이를 남방불교의 국가들이 주최하는 행사이기에 한국불교와는 별반 관계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제포교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한국불교가 100여개 국가가 참가하는 국제교류의 장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물론 올해 유엔 베삭데이를 비롯한 기존의 행사에 한국불교계가 불참해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인적 참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종단적 참여에 있어서도 여타의 국가에 비하여 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에는 유엔 베삭데이를 국제교류와 국제포교의 장으로 인식하고 한국불교를 대표할 수 있는 종단의 책임자들이 긍정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



천미희의 **환경칼럼**

화장품에 바다는 아프다

'Face to Fish'라는 캠페인이 있다. '물고기와 대면하다'는 뜻의 이 캠페인은 여성환경연대에서 진행 중이다. 이 캠페인은 '화장품 때문에 아픈 플라스틱 바다'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화장품과 플라스틱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해양 생물로 천연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을 지원하는 연구를 했던 남편 덕에 오래 전부터 천연 성분을 이용한 화장품을 사용해 왔다. 좋지 않은 성분이 든 화장품은 '독'과 같다는 말을 자주 들어왔기에 인공적인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이 독이 될 수도 있겠다고 막연히 생각은 해 왔다. 그러나 그건 사람에게, 사람의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 바다나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고는 생각지는 못했다.

그런데 물고기와 얼굴을 맞댄 그림이 그려진 'Face to fish' 캠페인은 화장품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줬다. 그중에서도 '스크럽제'라는 미세 알갱이의 영향은 무시무시했다. 스크럽제는 세안제, 치약 등에 쓰이는 미세한 알갱이로 플라스틱 성분이 대부분이다.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 10분의 1 정도 크기인 미세 알갱이들은 화장품 한 개에 35만개 정도가 들어간다.

그런데 그 양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워낙 미세하다 보니 하수 처리장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침전해 하수 슬러지 같은 유기질 비료로 많이 쓰여 토양 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바다에 들어가 독성을 흡수한 채로 해양생물들의 먹이가 된다. 미국의 조사에 의하면 하루 평균 8조 개 정도, 즉 테니스장 300개 정도를 뒤덮을 수 있는 알갱이가 쏟아져 하천,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니 놀랍기만 하다.

이 정도라니 당장 화장을 멈추고 싶을 지경이다. "엄마 화장하지 마세요. 안 한 게 더 이뻐요." 내가 얼굴에 뭐라도 바를라치면 늘 잔소리인지 칭찬인지 모를 말을 하는 초등학생 아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싶을 지경이다.

여름이 오고 있으니 화장은 그만두고 자외선 차단제만 바르고 말까? 그러나 자외선 차단제도 결코 바다나 물고기에 안전하지 않다. 하와이 주 정부는 2021년부터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 성분이 들어간 차단제가 금지 대상인데 시중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70%에 해당된다. 그런데 그 화학성분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 산호를 죽이고 어류의 내분비 교란을 일으켜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화장도 못하고 자외선 차단제도 바르지 말아야 할까? 오존층 파괴로 자외선에 무방비인 지금 그러기는 어렵다. 결국 옥시벤존, 옥티노세이트가 포함되지 않은 자외선 차단제나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가 없는 화장품을 꼼꼼히 살피고 고르는 게 필요하다. 성분을 살펴보고 이산화티타늄, 산화아연 같은 광물질 성분이면 그나마 안심해도 된다. 또한 모자와 긴 소매 옷을 입는 것도 이 여름을 나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실천을 될 것이다.

나를 꾸미고 보호하는 일이 지구를 아프게 만들지 않도록 화장품의 선택과 사용에서 신중해져야겠다. 화장품을 바르는 짧은 시간, 거울 속에서 지구와 지구 안의 모든 생명을 마주하며 모두가 아름다워지는 진정한 화장법을 찾게 되길 마음 낸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기획실장〉

社 說

도반HC 책임경영제 성과 기대한다

조계종단 재정 확충을 위해 설립된 사업지주회사 도반HC가 최근 조직을 개편하며 책임경영제를 강화했다. 기존 도반HC 내 사업부서를 자회사와 병합해 자회사를 통한 사업전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도반HC는 ㈜도반CA, ㈜조계종출판사, ㈜도반미디어, ㈜도반기획 등 4개의 자회사를 바탕으로 수익창출에 나선다.

도반HC는 2017년 3월 출범 당시 보유자본 50억원, 총매출 300억원 이상의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비전은 '종단 재정 확충과 불교계 경제생활공동체 구현'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많은 스님과 불자들은 사업지주회사를 통한 영업활동을 "물과 달력 장사한다"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다. 불교계에서 사업을 하는 영세업자들도 혹여나 피해를 입을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이로 인해 도반HC는 사업 확장에 앞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대중의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도반HC가 수익을 승려복지기금 마련 등 조계종 현안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일조하면서부터다. 그 덕분에 조계종은 현재 모든 승려를 대상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조계종이 백만원력 결집불사를 통해 다양한 전법·포교를 천명한 만큼 도반HC에 거는 기대는 점차 커지고 있다.

이를 인식한 듯 도반HC는 불교계 사업에 안주하지 않고 더 먼 곳을 내다보고 있다. 일반사회 영역으로 진출, 불교적 가치를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꾸준한 노력으로 머지않은 시일 내에 불교계 경제생활공동체가 구현되길 기대한다.

동문, 재학생 네트워크 강화하자

전국 각 대학에서 불교학생회 재건이란 반가운 소식이 들려 온다. 캠퍼스에 새로운 불교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제주교대에 이어 서울교대까지 졸업한 선배들과 재학생들이 의기투합했다. 선배들은 자신들이 학창시절 느꼈던 추억을 후배들도 함께 영위하길 바란다. 불교를 주제로 함께 토론하고 순례하며 쌓은 인연이 지난 세월동안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학창 시절 동기들과 함께 불교공부를 한 것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현재 재학생들은 예전처럼 불심이 깊지는 않다. 바쁜 학업과 경쟁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대부분 명상이나 템플스테이 등 불교신행보다 전통문화 자체에 관심이 많아 불교를 배우고자 한다. 이들을 불자로 이끌어 주는 것은 불교학생회 지도법사나 지도교수만의 역할이 아니다. 바로 졸업한 동문선배들의 역할이다.

불교는 인생의 다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창구다. 삶의 철학을 배우고 가치관을 공유하는 이들을 만나 도반으로 함께 성장한다.

불교학생회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동문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청년불교 재건의 꿈은 멀지 않다. 굳이 하나하나 모임에 데려가 가르쳐가며 이끌지 않아도 된다. 서울교대의 사례처럼 템플스테이를 지원한다든지, 선배들이 명사 섭외에 도움을 준다든지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묵묵히 뒤에서 후원해주는 큰바위 얼굴 같은 선배들의 모습이 필요할 때다.

지금까지 불교계, 특히 불교학생회에서는 동문들과 재학생들의 관계 설정이 미흡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와 대불련 총동문회의 관계개선부터 시작해, 현역 대학생들과 선배들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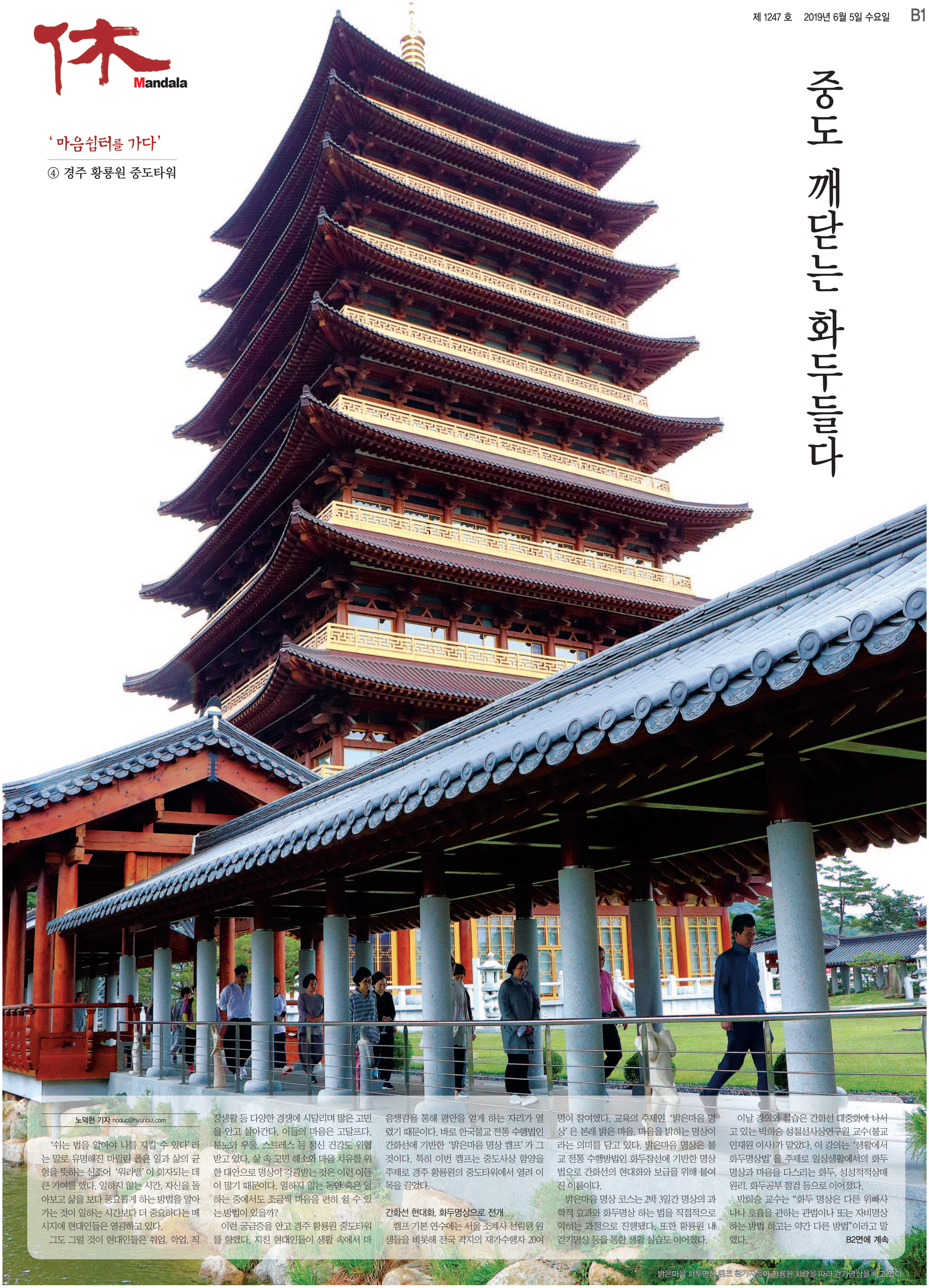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마음쉼터를 가다’

④ 경주 황룡원 중도타워

중도 깨닫는 화두들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쉬는 법을 알아야 나를 지킬 수 있다’라는 말로 유명해진 마릴린 폴은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신조어 ‘워라밸’이 회자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일하지 않는 시간, 자신을 돌아보고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 일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에 현대인들은 열광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현대인들은 취업, 학업, 직장생활 등 다양한 경쟁에 시달리며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 이들의 마음은 고달프다. 분노와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 건강도 위협받고 있다. 삶 속 고민 해소와 마음 치유를 위한 대안으로 명상이 각광받는 것은 이런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일하지 않는 동안 혹은 일하는 중에서도 조금씩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안고 경주 황룡원 중도타워를 향했다. 지친 현대인들이 생활 속에서 마음챙김을 통해 평안을 얻게 하는 자리가 열렸기 때문이다. 바로 한국불교 전통 수행법인 간화선에 기반한 ‘밝은마음 명상 캠프’가 그것이다. 특히 이번 캠프는 중도사상 함양을 주제로 경주 황룡원의 중도타워에서 열려 이목을 끌었다.

간화선 현대화, 화두명상으로 전개

캠프 기본 연수에는 서울 조계사 선림원 원생들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재가수행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의 주제인 ‘밝은마음 명상’은 본래 밝은 마음, 마음을 밝히는 명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밝은마음 명상은 불교 전통 수행방법인 화두참선에 기반한 명상법으로 간화선의 현대화와 보급을 위해 붙여진 이름이다.

밝은마음 명상 코스는 2박 3일간 명상의 과학적 효과와 화두명상 하는 법을 직접적으로 익히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또한 황룡원 내 걷기명상 등을 통한 생활 실습도 이어졌다.

이날 강의와 실습은 간화선 대중화에 나서고 있는 박희승 성철선사상연구원 교수(불교인재원 이사)가 맡았다. 이 강의는 ‘생활에서 화두명상법’을 주제로 일상생활에서의 화두명상과 마음을 다스리는 화두, 성성적적삼매원리, 화두공부 점검 등으로 이어졌다.

박희승 교수는 “화두 명상은 다른 위빠사나나 호흡을 관하는 관법이나 또는 자비명상하는 방법 하고는 약간 다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B2면에 계속

밝은마음 화두명상 캠프 참가자들이 황룡원 회랑을 따라 걷기명상을 하고 있다.

INSIDE

B3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 드디어 도착한 빠옥 총림

B4 책세상 — 청운 스님의 〈재가불자를 위한 이뭣고 수행법〉

B5 문화 — 땡큐붓다콘서트 ‘2019 천도재 니르바나’

B6 학술 — 제2회 성운학술상 대상수상작 주요내용

화두 명상으로 일상 번뇌 '타파'



박희승 교수가 참가자들에게 화두명상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캠프 참가자들이 화두참선에 들고 있다. 참선 수행 후 다양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숙소에서 화선에 든 참가자의 모습.

'경주 황룡원 중도타워' B1면에서 계속

박 교수는 이어 "우리 전통의 화두 참선법을 일반인들이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화두명상의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박희승 교수는 가장 먼저 불교의 핵심사상인 중도에 대해 설명했다.

"부처란 깨달은 사람입니다. 무엇을 깨달으셨을까요. 바로 중도입니다. 중도는 나와 우주만물의 존재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중도는 무엇인가요? 극단을 여의라는 것입니다."

율장에 실린 부처님 말씀을 근간으로 중도에 대한 소개가 나오자 이를 받아적는 참가자들부터 귀를 열심히 기울이는 참가자들이 눈에 띄었다.

중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호흡 체험 또한 중도를 체험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 곁들여졌다.

"나와 우주만물은 본래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서로를 의지해 존재하죠. 우리의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숨이 있어 날숨이 있고 날숨이 있어 들숨이 있습니다.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모든 것이 중도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박 교수는 "내가 독립되어 존재한다는 것에 집착하면 대립과 갈등, 짜증 등이 나오고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조화와 상생 공존, 지혜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명상 효과에만 빠지지 말고 화두 성성해야

박희승 교수는 또 명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박 교수는 "우리가 규칙적으로 화두에 몰입하면 잡생각이 줄고 마음이 밝아진다, 그리고 지혜가 나온다. 수많은 기업의 CEO들이 올바른 판단을 위해 명상을 한다"며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하루 5~7만가지 생각을 하는데 밝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라고 질문했다.

이론 강의에 초심자들로 이뤄진 참가자들은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론 수업을 진행한 중도타워 금강홀은 곧 열기로 가득찼다.

1시간 정도 진행된 이론 강의에 이어 참가자들은 밝은마음 명상을 본격적으로 체험했다. 중도타워 안은 이내 고요해졌다. 박희승 교수는 명상에 앞서 참가자들에게 화두를 소개했다.

박 교수는 "화두명상은 눈을 뜨고 한다. 감으면 고요한 적적함에 빠져드는데 이는 화두삼매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화두는 일상생활에서 삼매 체험만큼 마음이 밝아지고 지혜롭고 평화로워진다. 꽉 막히고 복잡한 문제도 화두를 통해 일상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명상의 단계인 적적에만 빠져 있지 말고 화두를 끊이지 않고 성성하게 이어가야한다"고 말했다.

명상 중에는 잡념이 사라져 고요해지는 적적의 단계가 지속되지만 이를 참선과 명상이 잘 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었다. 화두가 일상생활과 분리되지 않고 행주좌와가 계속 이어져야 하기에 적적의 수준에만 머무른다면 명상의 단점이 부각된다는 것이었다.

이어 참가자들에게는 '이 몸덩어리 끌고 다니는 이것은 무엇인가?' 라는 화두가 주어졌다. 참가자들은 원을 그리고 둘러앉은 채 명상에 들었다.

서울에서 온 수행도반인 김애경 씨와 서영숙 씨는 "평소에 사찰에서 화두참선을 하는데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설명에 아쉬움이 있었다. 명쾌한 설명과 함께 화두를 들게 되니 조금은 도움이 되는 듯 하다"고 말했다.

행선 기반한 걷기명상 등 진행

화두 참구 후에는 대중들은 중도타워를 둘러싸고 행선을 시작했다. 박희승 교수의 지도하에 '이 몸덩어리 끌고 다니는 이 것이 무엇인가' 를 화두로 걸을 때마다 집중했다.

박 교수는 "걸음에 집중하는 위빠사나와 달리



회랑서 걷기명상을 하고 있다.

화두참선 기반 현대적 명상법
이론과 실습 병행, 대중에 소개
생활속 화두 들기 수행 강조

중도타워 명상실 · 중앙회랑
걷기명상 등 최적화 구성 눈길

화두명상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도 화두가 생생히 떠오르기 위한 연습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걷기 화두명상하는 법에 대한 친절한 설명도 더해졌다. 보통 일상에서 걷는 걸음으로 걷되 시선은 땅바닥에 자기 키높이 만큼 앞에 두며, 몸은 걷되 마음은 오직 화두에만 집중하는 것이었다.

만약 화두에 집중하려 해도 자꾸 잡념이 떠오르면 그 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 잡념을 알아차리는 순간, 화두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동중(動中) 공부랄까. 오히려 일상에서 몸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걷기 화두명상에 유리함을 알 수 있었다.

회랑을 따라 대중들은 걸었다. 이날 캠프가 진행되는 동안 비바람이 거세졌다. 바람을 맞으며 이들은 걸으면서도 화두를 들기 위해 노력했다. 오히려 비바람이 치는 와중에도 화두를 드는 연습을 통해 생활 속에서 꾸준히 화두를 드는 것을 익힐 수 있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노승부 씨는 박 교수에게 질문했다. 노 씨는 "화두는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묻자 박 교수는 "화두는 논리를 끊어 준다"며 "마음의 상태가 분별심으로 갈 때 이러한 복잡한 상태에서 빠져나와 지혜를 얻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66세인 김 씨는 국내 다양한 명상프로그램을 체험하기 위해 다니고 있었다.

김 씨는 "화두 수행은 내안에 끊어내는 힘이 생기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이어 "어떤 역경이 와도 흔들림이 없다. 화두를 들면 마음 쓰임이 순연해지고, 분별심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중도 마음 수행에 최적지 '중도타워'

이날 밝은마음 화두명상 캠프가 진행된 황룡원 중도타워는 명상 수행의 최적지였다. 다양한 명상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과 각종 행사들이 황룡원 중도타워에서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평소 황룡원에서는 생활명상 프로그램 '참나를 찾아서' 와 대한불교진흥원과 'Mindfulness Society'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생활명상 프로그램은 1박 2일 코스와 2박 3일 코스로 이뤄져 있다. 간화선 수행방법과 실습을 통한 명상 체험과 자율정진, 자아회복 수행, 상담과 소감 나누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절 수행 108배를 통한 심신건강회복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Mindfulness Society' 연수는 매월 한 차례씩 국내외의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지금까지 자애통찰명상을 비롯해 이번 밝은마음 화두명상까지 다양한 명상을 향후 소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황룡원 중도타워는 더할 나위 없었다. 신라 황룡사 9층탑을 본떠 세운 황룡원 중도타워는 한국의 유마거사라 불리던 대원 장경호 거사의 대중불교 원력을 이어 다섯째 아들인 장상건 동국산업 회장이 건립했다. 황룡사 9층탑은 신라 선덕여왕이 호국불교와 통일을 발원하며 세운 탑이다. 장상건 회장은 불교 중도 사상으로 남북 평화통일과 인류 화합을 위해 명상과 인문학 그리고 다양한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진흥하기 위해 사재를 털어 이 중도타워를 세웠다.

현재 중도불이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중도타워는 1층 전시실과 2층 숙실, M층 명상실과 3층 금강홀, 4층과 5층은 세미나와 포럼을 여는 다목적 홀과, 귀빈실 6층과 VIP실인 황룡홀, 전통찻집인 8층과 9층 법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 공법과 전통양식이 어루러진 건축으로 경주 보문관광단지의 랜드마크가 되어 가고 있다. 황룡원 연수동에서 중도타워까지 이어진 회랑은 걷기명상에 탁월했다. 쭉 뻗은 길 한쪽으론 경주 안압지를 모티브로 한 연못이 조성돼 있다. 아담한 정자와 작은 분수가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이와 함께 중도타워 둘레의 정원에는 조용하게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았다. 범종루에도 벤치를 두고 차를 마시며 혼자만의 시간, 혹은 수행담을 나누기에 좋아보였다.

9층 법당에 올라서니 경주의 모든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공원, 보문호수, 호텔 등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신라시대 황룡사 9층탑에서 당시 국제도시였던 서라벌의 전경을 볼 수 있었다면 중도타워에서는 옛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경주의 현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역시 황룡사를 모티브로 유리 음각으로 세워진 경주타워가 마치 쌍둥이 탑처럼 느껴졌다.

신라 황룡사의 웅장함과 신비로움을 되살린 황룡원 중도타워에 석양이 비치며 수행자들의 앞을 함께 비췄다.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

빠옥, 위빠사나 수행자들의 총림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⑩ 드디어 도착한 빠옥 총림

빠옥 총림 첫째 날인 2012년 1월 22일. 드디어 종착지 몰라민에 도착했다. 몰라민은 미얀마 남쪽 몬주에 있고, 몬주는 미얀마 역사에서 불교의 출발과 함께한다는 중요성이 있다. 버스에서 내리자 택시 운전수라고 왔는데 알고 보니 택시가 아니라 오토바이이다. 오토바이 앞에 나의 큰 가방을 발로 밀어붙이고 뒤에는 나를 태운 채 신나게 달렸다.

무거운 가방이 떨어질까 걱정이 되었지만 약 15~20여 분만에 무사히 총림에 도착했다. 대로변에 일주문처럼 빠옥 총림의 간판이 있고 총림의 중앙 종무소까지는 아름드리 나무가 양쪽으로 줄지어 그늘을 만들고 있다. 긴 입구를 통과하여 드디어 중앙 종무소에 도착하였다.

입방 절차를 마치고 다시 남성 요기들이 모여 수행하는 윗절 수행처로 가라한다.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큰 가방을 가지고 걸어갈 수 없다며 총림에서 운영하는 삼륜차로 실어다준다. 주지 스님 사무실(Sangha Office)을 알려 준 후 삼륜차는 곧바로 떠나버린다. 주지 꾸 무다(Ku Muda) 스님은 나에게 간단한 몇 가지 질문을 했다. 그러면서 "오늘 밤 지낼 방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으니 사무실 방에서 같이 묵자고 했다.

다시 입방 절차대로 스님은 나에게 삼귀의와 오계와 팔재계를 빠알리로 선창하며 따라하게 시켰다. 그리고 천천히 오계를 설명해 주었다. 익히 알고 잘 따라하니 무척 기뻐했다.

이어 스님은 다시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과 총림의 현황, 개요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특히 빠옥 총림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현재 수행 중인 외국인과 한국인들의 출입 현황판을 보여줬다.

현황판은 윗절 수행처의 남성과 아랫절 수행처의 여성으로 구분하였다. 내가 본 현황판은 2011년 12월 28일의 현황판이었는데 비구 63명, 사미 17명, 대승 비구 12명, 대승 사미 6명, 재가자 16명으로 남성은 114명이었다. 여성은 상좌 여성출가자 53명, 대승 비구니 44명, 대승 사미니 1명, 재가자 18명으로 모두 116명의 여성 수행자가 머물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229명이지만 현황판은 230명으로 되어 있다. 총림을 나간 인원과 새로 들어 온 인원의 현황도 기록되어 있었다.

실제 수행자가 약 230명이 머물고 있다면 우리나라와 비교해도 꽤 큰 도량인 것은 분명하다. 스님은 계속해서 현재 한국인 재가자는 약 9명이며, 출가자에 있어서는 한국인으로서 상좌부 출가 스님은 4명이고, 한국에서 온 대승불교 스님은 약 7~8명이라고 일러줬다. 이 중 한 스님이 내일 한국으로 귀국하니 그 처소에서 기거하라고 했다. 상좌불교권과 달리 대승불교권의 비구와 비구니 그리고 사미와 사미니는 대승(Mahaya)이라는 말이 추가되어 명기된다.



빠옥 총림의 입구. 1981년 3대 선원장으로 취임한 아신 아찐나 스님 이후 세계적 수행처로 발전했다.

한국, 중국 그리고 베트남 등지의 회색 승복 또는 짙은 밤색의 상좌 승복과 구별인 것이다. 또한 구족계 수계 여부를 분명히 확인하여 비구와 사미 등을 구별하여 명시했다. 스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스님의 허락을 받고 빠른 속도로 현황판의 내용을 기록하고 또한 사진으로도 담았다.

국가별 수행자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은 국가는 59명의 베트남이다. 다음으로 37명의 중국, 27명의 한국, 19명의 말레이시아, 16명의 대만, 16명의 인도네시아, 9명의 스리랑카이다. 미국과 싱가포르는 각각 7명이고, 독일과 일본도 각각 5명이다. 마찬가지로 홍콩과 프랑스가 3명이고, 인도와 호주는 2명이 선원에 머물며 수행하고 있다. 태국, 영국, 덴마크, 러시아, 아일랜드, 캄보디아 그리고 멕시코 등은 1명으로 기록돼 있다. 다음날 방사 배정은 현황판에는 명시되지 않은 스페인 사람이었다. 한 달 전의 현황판인 것을 감안하면 빠욱 총림이 대략 23개국 이상에서 모인 국제적인 수행처임을 보여준다. 아마 인도에서 불교가 일어난 후 이렇게 동서양의 많은 나라에서 운집하여 장기적으로 함께 수행하는 곳은 빠옥 총림뿐일 것이다. 가히 국제 수행처이고 말 그대로 총림인 것이다. 또한 국가별로 볼 때 대승불교권인 베트남, 중국 그리고 한국 등에서 온 요기들이 많다는 데 놀라웠고, 이들 수행자들이 자발적으로 상좌 불교로 출가해 머물고 있다는 점도 놀라웠다. 세계불교의 흐름을 읽는 것 같아 매우 흥미로운 생각이 들기도 했다.

주지 스님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밤 9시가 되었다. 시자 스님이 돗자리 하나와 담요 하나, 그리고 베게 대신 사용할 침낭을 가져다준다. 나의

1000여 명 상주하며 수행정진
아찐나 스님이 선원장 맡으면서
세계적 수행 도량으로 발전해
"道人 1명이 만 중생구제" 실감

잠자리를 위한 침구를 제공해 준 것이다. 주지 스님은 나의 잠자리에서 약 3m 정도에 침구를 피고 눕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을 켜고 주무신다. 나에게 "불편하지 않느냐"고 묻기에 "괜찮다"라며 누워 잠들려고 하는데, 보아하니 스님은 담요를 덮지 않는다. 빠욱은 숲속이어서인지 밤공기가 쌀쌀한 편이다. 스님에게 담요 없이 자는 이유를 물으니, "부처님 가르침에 비구는 3의(衣)로 모두 해결해라고 했기에 담요를 덮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다. 전등이 켜져서 중간 중간 잠에서 깼다. 주지 스님은 두 발이 밖으로 드러난 채로 얇은 가사만만을 덮고 잔다. 드디어 빠옥 총림에 도착한 것이 실감이 났다.

필자는 빠옥 수행처를 '총림'으로 칭한다. 따웅뇨(Taung Nyo) 산록을 따라 숲속 여기저기 산자락에는 많은 군소 수행처와 업무시설들이 있다. 이 때문인지 빠옥 수행처도 스스로 숲속 사찰(Pa-Auk Forest Monastery)이라 이름한다.

한국에서 총림은 선원, 강원, 율원 등을 갖춘 큰 사찰을 말한다. 하지만 원래의 의미는 '대중이 화합을 이루어 사는 곳'이다. 문자 그대로, 총림은 숲은 우거진 나무들이 모인 곳이다. 어원적으로도 산림 수행처는 잡목이 우거진 숲과 관련한다. 인도불교에서 선수행은 아란야(āraññа, 阿練若), 즉 숲 속에서 집중적으로 수행되었다. 초기불교의 아란야는 대승이나 동아시아의 총림에 해당할 것이다. 총림은 산스크리트어로 'Vindhyavana'이며 빈다바나(貧陀婆那)로 음역되기도 하였다.

불교는 출발에서부터 유행과 정주라는 수행문화 속에 마을과 산림에 여러 종류의 수행처가 발달하였다. 이러한 수행처에 대한 가장 큰 규모를 지칭할 때는 승가람마(僧伽藍摩, saṁghārāma) 또는 승가람(僧伽藍)이다. 승원(僧院)을 말한다. 인도의 날란다 승원 등이 그것이다. 이곳 빠옥 총림도 승가람이라 할 수 있다.

다시 이러한 승원은 여러 종류로 나누어진다. 초기불교에서부터 다양한 종류의 승원이 마을이나 도시가 아닌 숲속에 건립되었다. 한국의 산사가 인도의 숲속 전통 속에 있듯이 미얀마 등의 상좌불교권도 마찬가지이다. 총림은 이렇게 다양한 특성의 구성원들의 화합이 마치 다양한 잡목들이 모여 숲을 이루는 것과 같다는 비유의 말이다.

특히 빠옥 총림은 사마타 위빠사나를 수행하는 요기들의 숲이다. 미얀마에서는 아직도 요기를 선수행자로 칭한다. 인도불교에서 대승불교가 일어나기 전부터 불교의 선수행자도 요가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요기(yogi)'라고 불렀다.

그렇기에 대승의 유식불교를 유가행이라고도 부르는데 다름 아닌 요가 수행을 말한다. 사실 유식은 선정수행을 통해 깊은 마음의 구조와 작용을 통찰한 결과물이다. 이 때문에 유식의 도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역으로 선정 수행에 의해 가능하다. 선정 수행 속에서만이 유식의 도리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선정 수정은 사마타 위빠사나를 의미한다. 빠옥 또한 아직까지도 사선(四禪) 등의 선정 수행의 기초를 전제하는 위빠사나를 강조한다. 위빠사나 뿐만이 아니라 사마타 수행도 강조한다.

나아가 이러한 수행은 전통 논서인 〈청정도론(Visuddhimagga)〉을 중심 교안으로 두고 있다. 이는 모든 상좌부 불교국가의 공통적인 전통이기도 하다.

'빠옥'은 원래 지명이다. 빠옥 총림은 빠옥 마을에 그리 멀지 않은 산록에 위치해 있다. 빠옥은 선정 수행을 꾸준하게 단계적으로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한다. 그렇기에 총림의 큰 행사와 관련하여 운집하는 인원은 계절별로 다르지만 많게는 1000명에서 1800명까지 이른다고 한다. 여기에는 20여 개국 이상에서 300여명이 넘는 외국인 출재가 수행자도 포함된다.

빠옥 총림은 중간절(Middle Monastery)을 중심으로 윗절(Upper Monastery)과 아랫 절(Lower Monastery)로 크게 세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산 안으로 깊숙이 꼭대기 방향에 윗절이 있고, 초입의 평지에 아랫절이 있다. 윗절은 남성 수행 처소이고 아랫절은 여성 수행 처소로 구분되어 있다. 윗절에서 아랫절까지 걸어 내려가려면 거리도 상당하다. 윗절이든 아랫절이든 선방 또는 선실의 규모는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러한 건물들을 중심으로 숲속과 산자락의 여기저기에 수많은 수행처가 산재해 있다.

이를 초기불교경전에서 사용하는 '꾸띠(kuṭi)'라는 말이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 무척이나 감동적이다. 이러한 꾸띠는 홀로 머물며 정진하는 수행처이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약 280개 이상의 꾸띠가 빠옥 총림에 산재해 있다.

또한 지금도 계속해서 건립 중이다. 하지만 총림에 처음 입방한 요기가 꾸띠에 머물고 싶다고 해서 바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처음 수행을 위해 총림에 입방하게 되면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2인 1실이 주어진다. 또한 출가와 재가를 구분하여 머물게 하지 않는다. 내일 나에게 주어질 방도 한국 스님과 스페인 요기와 함께 머문 방이다. 한국 스님은 내일 이곳을 출발하여 귀국한다고 한다.

빠옥 총림의 역사는 192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의 빠옥 총림의 선원장 스님으로 알려진 아신 아찐나(Ashin Āciṇṇa) 스님은 1981년에 제3대 선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이후 1990년대부터 빠옥 총림은 세상에 크게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빠옥 총림의 수행처는 선원장 스님에 의해 불과 10여년 만에 비약적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두 스님의 법력일 것이다. 나 또한 양곤으로부터 밤새 버스 타고 다음날 도착한 이유이다.

도력있는 선지식이 출현하면 거리도 상관하지 않고 국내외로부터 많은 수행자들이 운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곳에 도착하여 다시금 도인 한 사람이 세상에 나오면 만 중생을 구한다는 말을 실감하였다.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외래교수〉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은 불조의 혜명에 굳건히 의지하고 현재 봉착한 한국불교의 위기를 진단하여 종파의 분열과 무 진 법계질서를 바로잡아 새로운 승풍을 진작하여 일불제자의 승가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통한 한국불교의 중흥을 목표로 하는 창종의 변을 제방에 고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정진의 길에 함께 할 제방의 큰스님들과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단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사업
- 장 문화연구 및 납골당 운영사업
- 승려등 수행자의 복지사업

승 정 원 장 월해 총 무 원 장 법천당 청운
감 찰 원 장 성호 종 회 의 장 법륜 호 법 원 장 해월
포 교 원 장 덕해 교 육 원 장 영호 규 정 원 장 혜성
감 찰 부 장 경오 호 법 부 장 문경 포 교 부 장 장문
규 정 부 장 성철
서울교구원장 법혜 대전교구원장 수진 충남교구원장 혜성
울산교구원장 정오 부산교구원장 법진 경남교구원장 불해
경북교구원장 천호

한마음 108종도 일동

입종을 환영합니다 전남 장흥 계 암 스님 | 전남 순천 연 오 스님

본 종단은 종도화합의 종풍을 확립하고자 상생을 위한 상호협의를 종무행정의 기본으로 삼고자 합니다.

본 종단은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7-7호. 법인등록 194621-0000530으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한마음조계종에 대한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여주신 제방의 대덕 큰스님이하 대중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는 종단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도모집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내 외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에 한하여 추대장 및 위촉장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개인 사암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 서울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808호 011-870-0021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29~6/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2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혜민스님	수오서재
3	나는 중이 아니야	진광스님	불교신문사
4	정선 디가 니까야	이중표	불광출판사
5	마하시 사야도의 담마짝까 법문(초전법륜경)	마하시 사야도/일창스님	불방일
6	꽃에 향기를 더하다(육조 혜능, 천로 야부 금강경 해설)	원정스님/정안스님	조계종출판사
7	미네소타주립대학 불교철학 강의	홍창성	불광출판사
8	진리란 무엇인가?	혜담스님	민족사
9	청암사 승가대학 비구니스님들의 좌충우돌 수행 이야기	청암사승가대학	민족사
10	답은 나에게 있어(부처와 돼지 1)	고이즈미 요시히로/김지룡	들녘

‘이뭣고’, 생활속 근심 걱정 날리는 ‘핵무기’



재가불자를 위한 이뭣고 수행법

청운 지음/참글세상 펴냄/1만 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최상승법인 화두 ‘이뭣고’는 승속을 떠나 최상승근기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최상승근기란 사회에서 박사학위나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활구참선 ‘이뭣고’를 수행하는 불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도 생활속에서 일제처 일체시에 화두 ‘이뭣고’가 일행삼매가 되도록 한다면 금생에 생로병사에서 꼭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책에는 20여 년 ‘이뭣꼬’ 수행 끝에 찾아낸 청운 스님<사진>의 한 살림 보따리가 풀어 놓아져 있다. ‘이것이 무엇인고?’ 라는 화두를 들고 있으면 온갖 중생들의 번뇌가 들끓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한 소식을 풀어 대중에게 지혜를 심어 주려고 저자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지식 가르침을 빌려 중생들의 지혜를 열어 보고자 하는 노력도 책 곳곳서 묻어난다. 몸을 편안히 하려는 것도,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으려는 것도, 명예와 재물을 구(求)하려는 것도 아니다. 나고 죽음을 면하려는 것이며, 번뇌를 끊으려는 것이요, 부처님의 지혜 목숨을 유지하려는 것이며, 삼계에 뛰어나서 중생을 건지려는 원력 때문이다. 중생은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그것이 꿈이며 헛것이며 거짓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또한 중생은 생과 사를 둘로 보는데, 육안으로는 껍데기인 육신밖에 못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법안(法眼)으로 법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보고, 법은 하나이기 때문에 지혜를 가진 이는 생사를 하나로 본다. 더 나아가 생사마저도 없다고 한다. 지혜가 열리면 범부들이 알 수 없는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고 깨친 사람들은 말한다. 과연 깨친다는 것이 무엇인가? 수행자들은 이 깨침을 경험하기 위해 화두를 들고 끊임없이 탐구하고 자신을 발견하려고 정진에 정진을 거듭하고 있다. ‘이뭣고’를 화두로 삼고 있는 청운 스님은 ‘이뭣고’로 무엇이든 해결하고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생각이 미칠 때 ‘이뭣고’ 이게 무엇인고를 관할 수 있으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이뭣고’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별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다. 어지러운 마음도 가라앉히고 불안함도 진정시키는 ‘이뭣고’ 수행이야말로 내 자신을 찾는 지름길이라는 게 저자인 청운 스님의 생각이다. 한국 불교는 간화선을 추구하는 종교로서 화두를 탐구해가는 것이다. 의심에 의심을 품고 뚫고 나가는 간화선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수행법이다. 청운 스님도 간화선을 통해 지혜가 열리는 기쁨을 알고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포교의 원력으로 알리고자 했다.

불법(佛法)은 본래의 청정심을 생활 속에서 ‘이뭣고’로 활용함으로써 우주(宇宙)의 기(氣)인 신통력을 자유자재로 부리게 된다. 누구에게 억압당하는 느낌이 든다든지, 누구를 시기하거나 질투한다든지 하는 불쾌한 감정은 그 대상이나 사람에 대해 이전에 품었던 마음을 지키려 하는 데서 오게 되는 것이다. ‘이뭣고’라는 화두인 공안이 성립된다. 이 참선은 ‘대의지하(大疑之下) 필유대오(必有大悟)’라는 말처럼, 의심에 큰 깨달음이 있나니 의심 없는 것이 큰 병이 된다. 또 ‘명재일식지간(命在一息之間)’이라는 말처럼, 사람의 목숨이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에 있으니 무상치 않은가? 어느 것을 ‘나’라 하며 믿을 곳이 어디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진정한 안심처를 찾으려면 선의 길을 선택하라고 저자는 조언한다.

화두는 팔만사천 번뇌 망상을 제거하는 청룡보검(靑龍寶劍)이며 명약이니, 마음도 부처도 허공도 아닌 한 물건, 이것이 무엇인고인 ‘이뭣고’를 참구하라고 청운 스님은 강조한다. “생사란 본래 없는 것이나 분별력으로 있게 된 것이다. 허공의 꽃(눈병 때문에 마치 꽃이 허공에 있는 것처럼 잘못 보는 데 비유)을 볼 때 눈병이 없는 사람이 허공에 꽃이 없다고 말해도 병자는 믿지 않다가 눈병이 다 나아서 허공이 저절로 없어져서야 비로소 꽃이 없다는 것을 믿게 된다. 그것은 단지 병자가 망령되이 집착하여 꽃이라 여긴 것일 뿐 그 본체가 있는 것 아니다. 원각圓覺의 진심을 깨달으면 본래 생사가 없는데, 이제 생사가 없음을 알고서도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공부가 도달하지 못한 까닭이다”라고 했으니 더욱 더 정진해 생사해탈을 이룰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자는 책 속에서 말한다.



저자, 20여년간 ‘이뭣고’ 수행
수행법과 선지식 법문 버무려
“간화선 통한 지혜 기쁨 전해”
‘이뭣고’ 포교 위해 진력할 터

도천 선사에게 천금 화두 받아
불교TV서 6개월간 ‘이뭣고’ 강의
本紙서 1년간 연재한 내용 정리
“‘이뭣고’는 번뇌 먹구름 속에
갇힌 반야지혜 살려주는 참수행”

우리의 본래마음인 불성은 항상 공적(空寂)하고 청정(淸淨)하여 번뇌의 티끌이 낄 수가 없고, 번뇌(煩惱)도 본래 그 실체가 없는 것이며, 텅 빈 하늘에 먹구름처럼 홀연히 나타났다가 바람이 불면 곧장 사라지는 허망한 것인데, 닦을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자 글자를 모르는 육조 스님은 동자에게 청하여 게송을 지어 조사당 서쪽 벽에 붙여 놓았다.

보리본무수(菩提本無樹)
명경역비대(明鏡亦非臺)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
하처야진애(何處惹塵埃)

“깨달음은 형상이 없고 마음 역시 실체가 없는 공성(空性)이고, 밝은 거울 또한 틀이 아니며 이름을 붙일 수도, 모양을 그릴 수도 없고 닦을 수도 없는 본래 청정한 공적영지한 자성자리를 드러내 보이셨다.” 이렇게 하여 부처의 지혜(知慧)와 덕성(德性)을 모두 갖춘 본래불 (本來佛)임을 단번에 깨닫게 하는 돈오돈수(頓悟頓修)가 육조혜능선 (六祖慧能禪)의 핵심이 된 것이다.

불교의 궁극목표는 생사를 초탈해 윤회의 굴레서 벗어나 절대 자유 자재권을 얻는 성불에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불교의 본질을 외면하고 기복으로 약 처방전에 매달리게 하여 당당한 본래 부처로서의 삶이 아닌 종노릇만 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게 현실이다.

무엇이든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야 한다. 한 시대의 인간의 사고를 지배하는 견해나 인식의 고정관념적인 틀에서 벗어나는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불자들이 최상승법인 참선문에 들어와 삶속에서 소원성취는 물론 다겁생래로 지어온 업장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한 간화선인 ‘이 뭣고’ 수행방법을 제시 하고자 부처님 말씀과 선지식들의 주옥같은 선문답과 법문을 내용으로 재가불자들이 급변하는 현대 생활 속에서 좀 더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참선은 내가 참나를 깨닫는 길이다. 내가 나를 깨달아서 불조의 혜명을 이어 받음으로서, 생사고에서 벗어나고 다같이 성불로 이어진다.

“시심마?” “이뭣고?” 이 화두가 순일해 지면 익숙한 중생계의 세상사는 저절로 멀어지고, 생소하던 출세간사는 저절로 익숙해져 반야지혜에 계합해 무명업식과 사량하고 계교하든 식정의 중생 삶에서 해탈하고, 지혜광명을 살려 쓰는 새로운 아미타 세계가 열리게 된다고 설명한다.

저자인 청운 스님은 “은사이신 도천 대선사께서 내려주신 천금같은 화두인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언인고?’ ‘이뭣고’ 등을 불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6개월간의 불교TV 방송과 1년간의 현대불교에 기고한 내용을 정리해 다시 한 권으로 묶었다”며 “앞으로도 이뭣고 수행 포교를 위해 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운 스님은 “지관 즉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함께 닦는 것이 ‘이뭣고’ 수행의 본질”이라며 “생활속에서 찰나찰나 일어나는 초조불안 근심 걱정 등 각종 스트레스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한 생각 일어날때마다 전생의 기억을 재연하기 전에 바로 알아차리고 최신 핵무기인 ‘이뭣고’로 소멸시킴과 동시에 번뇌의 먹구름에 갇혀 있던 반야지혜를 살려 주는 참수행이 바로 ‘이뭣고’”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책은 ‘화두’ ‘마음’ ‘깨달음’ ‘유식’ ‘연기’ ‘오온’ ‘생사’ ‘인과’ ‘인욕’ 등 총 9장으로 구성돼 있다.

▲저자 **청운 스님**은?

한국외국어대 영어과와 동대학교 무역대학원을 졸업했다. 충남 대둔산 태고사(太古寺)에 주석하신 경허(鏡虛) 대선사의 법제자(法弟子) 수월 스님의 법손인 도천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현 조계종 원로의원인 명선 스님에게 수계 받았다. 현재는 혜능국제 불교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선재사에 주석하고 있다. 저서로는 〈길을 묻는 나그네 1,2〉 〈육조혜능의 금강경 오가해〉 〈나를 찾아가는 길〉 〈혹독한 추위를 이겨낸 매화향기〉 〈비우고 떠나기〉등이 있다.

조사선의 선풍을 확립하다!

전심법요·완릉록



임제 의현의 스승이기도 한 황벽은 간명하고 평이한
언어로 선의 이치를 펼치고 있어,
이 어록은 선의 정수이자 개론서로 꼽힌다.

황벽희운 저, 정운 강설/양장/288쪽/값 15,000원

금강경의 근본 종지와 낙처를 정확히 드러내다!

금강경삼가해



선사들의 선적 표현을,
원전의 심원하고 원융한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정확하게 현대적 감각으로 번역하였다!

전재강 역주, 고우스님 감수/양장/768쪽/값 35,000원

중국 백림선사의 정혜스님 법문집!

생활선의 열쇠



어떻게 인생의 질곡에서 벗어날 것인가?
불법과 세간이 둘이 아니고,
사람노릇과 성불하는 것이 둘이 아니다!

정혜 지음, 이명한·안영주 옮김/양장/464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천도재, 한 편의 뮤지컬이 되다

땡큐붓다콘서트 '2019 천도재 니르바나'
6월 16일 오후 5시 서울 '더케이아트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2016년 서울 국립극장에서 열린 '땡큐붓다콘서트'에서 음성공양하는 자명 스님.

부처님의 고마움을 문화포교로 회향하는 문화공양주 자명 스님이 2019년 문화공양을 시작한다. 자명 스님은 6월 16일 오후 5시 서울 양재동 '더케이아트홀'에서 땡큐 붓다콘서트 '2019 천도재 니르바나'를 개최한다.

2014년 불교계 최초로 천도재를 소재로 한 국악뮤지컬 '천도재 니르바나'는 불교음악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여러 가지 제작의 어려운 현실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던 뮤지컬은 자명 스님의 원력으로 다시 무대에 오른다. 새롭게 변화되고 진전된 '천도재 니르바나'는 기존의 공연보다 훨씬 더 한국적이고 불교적인 한 편의 천도재다. 천도재 자체가 뮤지컬의 큰 스토리다. 불교의 대표적 의식인 천도재를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춰 친숙하면서도 신명나고 환희롭게 한 편의 뮤지컬로 표현했다. 무주유주 고혼영가의 극락왕생과 사바중생의 현생정토를 발원하고 구현하는 장대한 서원이 담겨있다. 전통 불교의식을 명상음악으로 승화시켰고, 히말라야 명상과 국악, 마임, 무용, 현대음악이 총망라된, 뮤지컬은 문화포교 콘텐츠의 획기적 전환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보리 △고(苦) 무상(無常) 비아(非我) △열반, 총 3부로 구성된 뮤지컬은 충분한 시간 동안 공력을 모아서 보다 세밀하고 치밀하게 공연의 완성도를 높였다. 획기적인 무대연출과 조계종 불교음악원장 박범훈, '자비명상'의 힐링멘토 마가 스님, 범패음악의 대가 범진 스님, 치유명상음악가 태현 스님, 국내 대법고 퍼포먼스의 1인자 고금 스님, 한국 마임의 아버지로 불리는 유진규, 세계적인 국악타악연주가 윤매고동, 한국 최고의 기타리스트 김광석, 몸짓으로 반야를 표현하는 무용가 진현실, 2018 BBS불교방송 찬불동요제 대상 수상의 김보민, 윤서영 어린이, 그리고 본 공연의 기획제작자인 자명 스님의 음성공양 등 국악, 무용, 등 예술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부대중이 대거 함께한다. 그 외 국악실내악단과 사물놀이 팀이 연주하는 선율이 공연 전반을 채운다.

범진 · 마가 스님 박범훈 등 호화 캐스팅
국악 · 무용 · 마임 · 현대음악 등 총망라
2014년 초연 뛰어넘은 새로운 뮤지컬

이번 공연을 기획하고 제작한 자명 스님은 "이번 '2019 천도재 니르바나'가 불교계 역대 그 어떤 공연보다 최고의 공연이 될 것이다"며 "11월 국립극장 공연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공연이 일회성으로 그치지기 않고, 완성도를 보다 높여 전 세계 문화예술의 중심지인 미국의 뉴욕이나 프랑스 파리의 무대에도 올라 한국불교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넓은 세상으로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공연의 의미와 자신의 원력을 밝혔다.

자명 스님은 본격적인 문화포교를 위해 2013년 영종불교회관을 열고 새로운 문화법석을 시도했다. 법문과 공연을 한 자리로 불러내 문화포교의 새로운 전형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땡큐붓다콘서트'가 그 시작이다. 첫 해는 매달 콘서트를 열었다. 스폰서를 찾는 일이 어려웠지만 스님의 원력은 흔들리지 않았다. 콘서트가 거듭되면서 스님은 법석을 좀 더 넓히고 새롭게 만들어 불교문화, 포교문화의 새로운 길을 열고 싶었다. 2014년 마산 3.15 아트센터에서 새로운 뮤지컬이 공연된다. 자명 스님이 기획한 천도재 뮤지컬 '니르바나'다 불교의 아름다운 장면과 음성으로 채워진 전혀 새로운 뮤지컬은 500석을 채운 불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새롭게 선보이는 '천도재 니르바나'의 2019년 버전에 대중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문의 (010-9343-3001/ 자명 스님)

김경호 사경 상하이 특별 초대전

중국 상하이 정안사 6월 3~30일
정안사 방장 혜명 스님 초청
역대 개인초대전 중 최대 규모


감지금니 반야심경(20cm×44cm), 변상도(20cm×14cm)

고려사경의 맥을 잇고 있는 사경가 김경호 작가가 연이어 해외 전시를 연다. 지난 3월 뉴욕 티베트하우스에서 초대전을 열었던 김 작가는 6월 3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상하이 정안사에서 특별 초대전을 연다.

총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는 '한문 반야심경 교본', '한글 반야심경 교본', '한글 법성게 교본', '한문 아미타경 교본'이 원문과 함께 전시될 예정이며 유일하게 서예 작품인 감지금니 '천자문' 작품 역시 '천자문 교본'과 함께 전시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20여 회의 김경호 사경 개인전 및 초대개인전 중 최대 전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전시는 1800년의 역사를 지닌 상하이 대표 사찰 정안사의 방장 혜명 스님의 초대로 이루어졌다. 혜명 스님은 600여 년 동안 단절되었던 고려사경이 김 작가에 의해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단절된 중국 사경을 부활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김경호 작가의 초대전을 마련했다.

김경호 작가는 올해 3월에 뉴욕 티베트하우스 초대전, 5월에 뉴욕 티베트하우스 '코리아 소사이어티 특강 및 금사경 제작 시연회를 개최하며 한국이 세계인쇄문화의 중심이며 고려사경이 한국에서 1700년이라는 장구한 역사를 지닌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 중의 하나임을 알린 바 있다. 2003년 미국 LA Lotus갤러리 초대전을 시작으로 초대전 및 특강, 제작시연회 등 40여 회의 해외 행사를 통해 한국사경(고려사경)의 우수성을 알려온 김 작가는 "이번 초대전을 통해 한국 전통사경의 세계사적 의의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이후 중국사경의 부활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시의 의미를 밝혔다. 박재완 기자

특별한 미적 체험, 산사의 미술세계

노재학 전국순회사진전 서울전시
'한국산사의 단청세계, 고귀한 빛' 展
6월 5~11일 서울 경인미술관 제1전시실

한국산사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한 노재학 사진가의 전국순회사진전이 부산과 전주에 이어 서울에서 개최된다. 노재학 사진가는 6월 5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한국산사의 단청세계, 고귀한 빛' 전을 개최한다.

△연화부수형 산지가람 △단청문양의 세계 △사찰벽화의 세계 △조형장엄의 세계 등 4부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7곳의 산사를 비롯한 전국 30여 사찰의 단청문양과 벽화 사진 60여 점을 선보인다. 범어사 팔상전 천정의 단청, 영천 은해사 백흥암 불단 등 장엄한 사찰의 미술세계를 통해 오랫동안 전승된 한국 산사의 예술적 진면목을 보여준다.

한국산사 법당의 조형과 미술, 단청문양을 담은 노 작가의 사진들은 지고지순의 숭고한 아름다움의 전형을 보여준다. 종교미술 뿐만 아니라 전통문양, 도가의 길상, 유가의 태극, 호작도 같은 민화들까지 폭넓고도 풍부한 조형미술의 세계를 전통문양과 전통색채의 아름다움을 경이롭게 구현하고 있다. 한국산사 법당 내부에 오랫동안 전승돼온 장엄예술의 진면목을 커다란 울림으로 드려낸다. 그것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세계문화유산 한국산사에 대한 놀라운 재조명이 될 것이며, 한국산사 세계문화유산등재 1주년을 조명하는 특별한 미적체험의 기회가 될 것이다.

박재완 기자


여수 흥국사 대웅전 단청

제4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접수 8월 28~29일, 불화 · 조각 · 공예 · 민화 · 서예 · 문인화
수상작 전시 및 시상식
10월 23~28일 동덕아트갤러리

천태종이 다양한 예술분야의 저변확대를 통한 문화융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4회 천태예술공모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대전에서는 △불화(전통 · 현대) △조각 △공예 △서예 · 문인화 △민화 등 총 5개 분야의 작품을 공모한다. 응모 작품은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서초구 우면동 관문사로 접수하면 된다.

불화와 조각분야는 1인당 2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불화 규격은 200호(300cm)미만이며, 표구된 완성작만 접수가 가능하다. 조각의 규격은 높이 250cm 미만이며, 완성작을 출품해야 한다.

공예 · 서예 · 문인화 · 민화 분야는 1인당 3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공예 규격은 가로 세로 200cm 이하이며, 서예 · 문인화 규격은 전지 이하(가로 70cm×세로 130cm)로 접수한다. 민화 규격은 120호 미만으로 배접과 액자 제작 후 접수한다. 불화 · 조각 · 공예 분야는 작품제작과정을 담은 세부작품설명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출품료는 각 분야 1점당 5만원이며 대학 재학생은 1점당 3만원이다.

심사결과는 9월 초 금강신문 홈페이지에 게재 후 개별 통보한다. 수상작 전시회는 10월 23부터 28일까지 서울 종로구 관훈동 동덕아트갤러리에서 열리며, 시상식은 전시회 내 진행된다.

대상 1명에게는 상금 2천만 원과 상장 · 상패, 최우상 2명에게는 상금 각 500만 원과 상장 · 상패, 부문별 우수상(분야별 1명) 5명에게는 상금 각 100만원과 상장 · 상패, 가작(분야별 1명) 5명에게는 상금 각 50만원과 상장, 장려상 10명(부문별 2명)에게는 상금 각 30만원과 상장, 특선에는 상장 · 상품, 입선에는 상장을 수여한다. 대상작품은 천태종에 귀속된다.

출품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출품서류(출품원서, 작품설명서) 작성 미비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우편 접수 시 작품 훼손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작품 접수 후 전시까지 보관 과정에서 작품 자체 변형도 책임지지 않는다. 기발표작, 표절작, 사찰 봉안 및 판매된 제품은 출품할 수 없으며, 타인 명의로 출품할 수 없다. 초대작가 제도는 운영하지 않는다.

천태종 총무부장 월장 스님은 "공모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많은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공모전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문의 (02)547-4746(제4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사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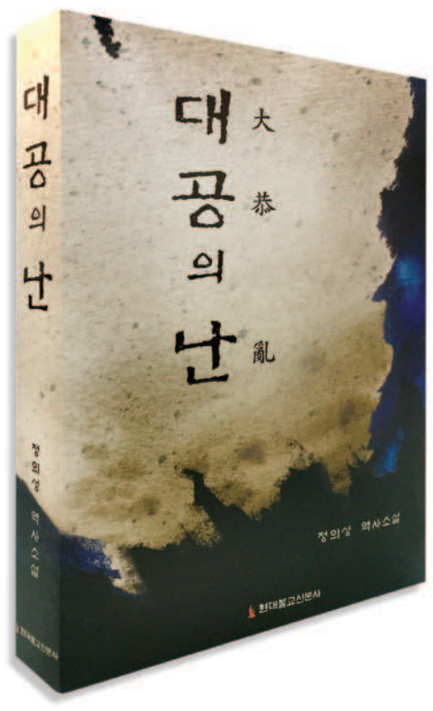
박재완 기자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BTN 대표이사 서성우

“아미타 신앙 핵심개념, 불교 內 기원”

조준호 연구원, 제2회 성운학술상 대상 수상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아미타 신앙의 핵심 개념이 초기불교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성철)는 5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춘계학술대회 및 제2회 성운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성운학술상 대상의 영예는 조준호 한국외국어대 인도연구소 초빙연구원에게 돌아갔다.

조준호 연구원은 ‘아미타불 신앙의 기원과 전개에 대한 구명- 염불신앙의 본래 의미와 새로운 조망을 위한 시론’ 제하의 논문을 통해 ‘아미타불’ ‘무량광불’ ‘무량수불’ ‘극락정토’ 등 아미타신앙의 핵심 개념들이 초기불교에서 기원하고 있음을 문헌적 전거를 통해 심층적으로 고찰했다.

그간 아미타불 신앙의 기원은 힌두교나 페르시아 등 외부 영향에서 비롯됐다는 외부 기원설에 무게가 더 실려 있었다. “아미타 신앙은 초기불교로부터의 발전적 전개를 통해 이뤄졌다”는 조준호 연구원의 주장은 외부 기원설을 정면에서 반박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아미타불(阿彌陀佛)은 ‘Amitābha’ 의 음역으로 ‘무한한 빛의 부처님’ 이라는 의미다. 이는 의역으로 ‘무량광불(無量光佛)’ 로 옮겨졌다.

조준호 연구원은 “초기불교에서 이치를 통찰하는 체험 또는 진리 체험은 광명과 함께 한다. 나아가 사무색정과 상수멸정에 이르기까지도 광명과 청정은 지속된다”면서 “초기불교에서 대승불교에 이르는 붓다 개념의 본질은 광명에 있다. 이는 아미타불의 기원이 외부 종교에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미타불 異敎 기원 반박해
佛=광명… 초기불교서 근거
아미타불 · 극락정토 초기 연원
“초기대승 삼매 염불과 관련”

인도 대승불교의 대표 논서인 〈대지도론〉 등에서도 붓다의 광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대반열반경〉에 이르면 광명과 붓다, 염불은 같은 것으로 설해진다.

조준호 연구원은 “대승경전에서도 초기불교에 이어 붓다의 본질은 광명임을 천명한다. 광명은 염불과 직결된 관계”라면서 “광명의 붓다관은 대승불교의 기원과 함께 전개되며 정토 염불 신행의 핵심인 무량광 아미타불의 개념이 외부가 아닌 불교 본래의 사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불교학회는 5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회 성운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조준호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초빙연구원(사진 왼쪽)이 김성철 한국불교학회장(사진 오른쪽)에게 대상을 받고 있는 모습.

또한, 무량광과 무량수 역시 초기불교의 붓다 개념에 근거하며, 극락정토도 불교 삼계 밖의 이교가 아닌 불교의 삼계 안에 있다는 게 조준호 연구원의 주장이다. 조준호 연구원은 극락정토의 위치를 색계 제사선천인 정거천으로 특정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거를 통해 조준호 연구원은 정토 염불은 완전하게 불교 내부에 근거함을 주장하며 염불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그는 “염불 신행의 대승불교 흥기의 발단이다. 초기 대승에 나타나는 선정삼매 대부분은 염불과 관련되며 신앙 실천의 역동성 역시 염불에 있다”며 “염불로서 붓다를 자신의 구체적인 삶 속으로 현실로 역사의 현장으로 현현시킨다. 불교의 종교성은 염불신행을 통해 풍부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불교학회는 시상식 이후에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바정토-불교적 이상사회는 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열린 춘계학술대회는 △어떤 정토를 꿈꿀 것인가(지혜경, 연세대) △불교와 지속가능한 발전(손석춘, 건국대) △공덕과 수행으로서의 보시와 그 현대적 함의(장성우, 동국대) △공유경제시대 불교경제학의 미래(김성옥 · 이상호)가 발표됐다.

“약수암 관음상, 근대 佛母 보응문성 작품”

전통장인硏 창립 학술대회서
최선일 위원, 불상 분석 · 발표
한국전쟁 살아남아 현 자리로
보응문성 작품 확인… 첫 공개

정읍 약수암(주지 법연)에 봉안된 정읍 약수암 소조관음보살좌상이 근대 거장으로 평가받은 보응문성 스님의 작품임이 확인됐다.

한국전통장인연구회(회장 한봉석)는 5월 25일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에서 ‘조선 말기와 근대 불교미술의 거장(巨匠)- 보응당 문성의 삶과 예술 세계’ 를 주제로 창립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소장 석문)가 주관을, 정읍 약수암이 후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정읍 약수암 소조관음보살좌상에 대한 전문 연구 결과가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최선일 문화재청 감정위원은 ‘정읍 약수암 소조관음보살좌상 연구’ 에서 봉안 과정에 대해 살폈다.

최선일 위원은 “정읍 약수암 소조관음보살좌상은 1928년에 임실 성조암에 봉안하기 위해 보응문성이 조성한 불상”이라며 “한국전쟁 중 성조암이 파괴되면서 읍내에 있던 운수사로 이운됐다가 2006년에 현재의 정읍 약수암으로 옮겨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좌관음보살상은 근대 불교미술의 거장인 보응문성이 만든 중요한 작품으로, 근대 불교조각사 연구에 기준 작이 될 수 있는 성보문화재”라고 주장했다.



정읍 약수암 소조관음보살좌상. 근대 거장 보응문성의 작품임이 확인됐다.

김요정 충남대 초빙교수는 관음상에 대한 연륜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김요정 교수는 ‘정읍 약수암 소조관음보살좌상의 과학적 분석’ 에서 “조성연도가 1928년으로 알려져 있는 정읍 약수암 소조관음보살좌상의 목재틀과 밑판을 조사했다. 분석 결과, 약 220년 수령의 일본산 가문비나무로 제작했음이 확인됐다”면서 “당시 건축 부재 등 여러 분야에 사용된 목재가 일본에서 수입됐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보응문성 스님의 다른 작품들에 대한 전문 연구들도 소개됐다. 대회에서 이승희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연구위원은 ‘보응당 문성 불화의 전통성과 근대성’ 을, 최경현 문화재청 감정위원이 ‘보응 문성과 송광사 성수전 벽화’ 를 각각 발표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한국전통장인연구회 창립을 기념해 열렸다. 한봉석 한국전통장인연구회장(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9호 목조각장 보유자)은 “전통 장인의 삶과 전통 기법 등을 찾아내기 위해 전통장인연구회를 창립하게 됐다”면서 “ 앞으로도 역사 속 수많은 장인들의 삶을 복원해 한국미술사의 영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 수행 현황 점검한다

동국대 종학연구소, 6월 14일 학술대회

간화선부터 위빠사나, 마음수행 등 한국불교에서 이뤄지는 수행법들의 현황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국대 종학연구소(소장 정도, 이하 종학연구소)는 6월 14일 오후 1시 30분 교내 만해관 253호에서 ‘삶과 수행- 수행이 가져다주는 삶의 변화’ 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종학연구소는 간화선 이론과 수행이라는 기존 연구 의제에서 조계종과 한국불교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교수행과 명상을 조명 · 고찰하는 것으로 의제의 외연을 확장했다.

발표 논문 주제 역시 간화선부터 위빠사나, 명상 등 폭이 넓다.

해남 미황사 주지이자 조계종 교육아사리 금강 스님은 ‘간화선 수행의 현황과 제언’ 을, 김재성 능인불교대학원대학 교수는 ‘한국의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의 현황’ 을, 인도 다람살라에서 정진하고 있는 일문 스님은 ‘한국에서의 티베트 불교 마음 수행에 대한 일고’ 를 발표한다.

또한, 명상을 심리학과 의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논문들도 소개된다.

한국명상학회 이사장인 김완석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는 ‘명상의 심리학’ 을, 대한명상의학회에서 활동 중인 이강욱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상의 의학적 적용’ 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은 “현재 한국불교에는 간화선과 위빠사나, 사마타 등 다양한 수행들이 공존하고 있다. 이에 대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현황 분석을 주로 진행한다. 하반기에는 이를 조금 더 심화시켜 학술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국대 불교학술원 산하 종학연구소는 지난 2011년 출범했으며, 그간 7회에 걸쳐 간화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 왔다. 특히 2018년 UCLA에서 열린 제6회 대회에는 한국의 간화선의 이론과 수행에 대해 미국 불교학계에 전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고양 원각사 소장 성보문화재 조명

원각사 · 동북아불교硏, 6월 22일 학술대회

송광사 일산분원 고양 원각사(주지 정각)에 소장된 불교문화재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고양 원각사는 오는 6월 22일 오후 1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원각사 소장 불교문화재 연구’ 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회의 주관은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가 맡았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원각사에 소장된 불교 성보문화재를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연구들이 소개된다. 김성순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연구위원은 ‘갑사 사적을 통해 본 의승군 영규대사의 활동 연구’ 을, 중앙승가대 교수 정각 스님은 ‘조선통폐지인 연구’ 를,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원각사 소장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조각승 성수’ 를, 김요정 충북대 초빙교수는 ‘원각사 소장 목조불상의 과학적 분석’ 을 신광희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는 ‘원각사 소장 현왕도 연구’ 를 각각 발표한다.

신성민 기자

한국선학회 학술지 〈선학〉 30집 발간



한국선학회(회장 김방룡)는 최근 학술지 〈선학〉 30집을 발간했다. 이번 학술지에는 △동국대 불교학부 조교수 서광 스님의 ‘유식 30송의 치유효과 탐색’ △조계종 교육아사리 형운 스님의 ‘선종사에 기술된 신수와 신회의 평가-〈송고승전〉과 〈경전전등록〉을 중심으로’ △조계종 교육아사리 명준 스님의 ‘〈벽암록〉 시심마의 용처에 관한 일고’ 가 수록됐다. 또한 우두종의 한국 전래에 대한 감심흡(동국대 한국불교융합학과 박사수료)의 중국어 논문도 실렸다.

한편, 한국선학회는 5월 31일 충남대 문원강당서 ‘중국 근현대 거사불교와 생활선’ 이라는 주제로 춘계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신성민 기자







대안 스님의
24절기 사찰밥상
⑩ 소만(小滿)
죽순전 · 죽순냉채 · 상추불뚝김치

초여름, 미리 맛보는 시원함

〈농가월령가〉에서는 "음력 4월 맹하 되니 입하, 소만 절기로다"라고 이 계절을 표현한다. 여름이 시작됨을 알리는 말이다.

사찰마다 채전밭에는 각종 채소들이 물이 오르고 상추는 꽃대를 올린다. 해인사의 전래음식으로 상추불뚝김치와 상추대궁전이 있다. 같은 이름인데 달리 불리는 것이 궁금하던 차에 노스님께 여쭤보니 모두 사투리라고 하셨다. 상추가 키는 작고 마디가 굵어 불뚝불뚝해서 불뚝이라고도 하고, 잎은 별로 없이 키만 키우는 상추는 줄기인 대가 많아 대궁이라고도 불린다고 하셨다. 고춧가루로 고춧물을 만들어 시원하게 먹는 상추물김치인 셈이다.옛날 중국에서는 소만부터 망종까지의 시기를 다시 5일씩 삼등분하여 초기에는 씀바귀가 뻗어 오르고, 중기에는 냉이가 누렇게 죽어가며, 말기에는 보리가 익는다고 했다. 이 시기에 땅에서 올라오는 식물은 생명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뿌리만 남아 있다가 후년에 다시 똑같은 생명활동을 반복하며 자신만의 윤회의 길을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처나 냉이는 입하에도 멀쩡한 잎이 시들해지고 줄기는 세차게 강해졌다. 자주 내리는 비덕분에 나무들도 꽃을 세상에 번갈아 선보인다.

뒷산 그늘에 함박꽃이 활짝 피었다. 그 선명한 자태와 우아함은 연꽃에나 견줄까 아마도 다른 꽃들은 뒤로 줄을 서야할 게다. 함박꽃과 연꽃은







다른 시기에 피어 문향(聞香)을 통해 온몸의 전율을 느끼게 한다. 더러 국수의 고명으로도 사용하고 말려서 분말을 내어 한껏 더운 여름 말차로도 만들기도 하지만, 쉽게 갈변하는 바람에 급랭하지 않으면 백색꽃의 모습을 잃고 만다. 이제 연꽃을 위해 연지에 물을 자주 채워주며 어린 연잎이 물위에 퍼지기를 기다린다.

제피나무가 부드러운 잎을 무성하게 펼치고 있다. 강한 맛이지만 이맘때 잎은 간장양념으로 비빔장을 만들거나 장떡을 구워서 며칠씩 두고 먹어도 좋은 식재료이다. 방아를 한줌 채집해서 강된장을 만들고 채전밭의 상추와 쑥갓 고추를 따와서 점심공양상을 본다. 소박한 생명의 밥상이 주는 묘미는 산속 깊숙이 자리한 절간에서 맞이하는 한적함과 더불어 여백으로 차리는 밥상이 다. 산야의 뜰에서 거둔 생명이 지혜의 숲을 넓히는 행보가 되고 있음에 새삼 감사하다.

죽순전
재료: 죽순 200g, 된장½T, 쌀뜨물 3컵, 부침용기름(참기름 1T, 식용유 1T), 부침옷(밀가루 ½컵, 채수 ½컵, 쌀가루 1T, 전분 1t), 집간장1t

1. 죽순은 세로로 잘라 옥수수껍질을 벗기듯 껍질을 벗긴다. 냄비에 쌀뜨물을 붓고 죽순의 아린 맛이 빠지도록 된장을 푼 뒤 죽순을 넣고 센 불에서 30분정도 삶아 찬물에 헹궈 물기를 뺀다.
2. 죽순을 0.5㎝ 두께로 썬 다음 죽순이 부드러워지도록 도마에 오려놓고 나무 방망이로 살살 두드려준다.
3. 밀가루, 쌀가루, 전분, 채수, 집간장을 섞어 부침옷을 만든다.
4. 준비된 죽순에 부침옷을 골고루 입힌다. 팬에 부침용 기름을 두르고 죽순을 노릇하게 부쳐낸다.

죽순냉채
재료: 죽순 2개, 애호박 ½개, 청오이 ½개, 적피망 ½개, 겨자가루 1T, 배식초 2T, 배 150g, 잣 2T, 조청 2T, 소금 약간, 참기름약간, 식용유약간, 죽순손질용 된장 1T, 쌀뜨물 적당량

1. 죽순은 반으로 갈라 껍질을 벗겨 쌀뜨물에 된장을 풀어 40분간 삶는다. 삶고 나서 찬물에 담가 아린 맛이 빠지게 한다.
2. 손질한 죽순은 물기를 빼고 겉모양을 살려 썰어 참기름과 소금으로 밑간해서 덖어준다.
3. 애호박은 반으로 잘라 씨 있는 부분은 도려내고 6㎝ 정도로 어슷썰어 식용유를 두른 팬에 소금으로 간해 재빨리 덖어낸다.
4. 청오이도 애호박과 같은 방법으로 썰어서 소금에 절여 물기를 꼭 짠다.
5. 적피망은 씨를 빼내고 채 썰어 마른 팬에 재빨리 덖어낸다.
6. 겨자가루는 미지근한 물에 개어 따뜻한 곳에 두고 띄운 후, 배, 잣, 조청, 식초, 소금을 넣고 믹서에 갈아준다.
7. 준비한 채소에 겨자소스를 넣어 무쳐낸다.

상추불뚝김치
재료: 쫑상추 200g, 소금 2T, 배 반개, 우리밀가루 2T, 보리등겨 2T, 고춧가루 3T, 홍고추 1개, 청고추 1개, 생강즙 약간

1. 대공이 오른 상추를 깨끗이 씻어주고, 대공이 너무 단단하면 껍질을 약간만 벗겨 방망이로 살살 두드려준다. 배는 강판에 갈아 물을 낸다.
2. 밀가루로 묽게 풀을 쑤어 식혀준다.
3. 청, 홍고추는 씨를 제거하고 채 썬다.
4. 식힌 풀에 고춧가루를 엷게 섞고 생강즙을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해준다.(고춧가루는 베보자기에 넣어 손으로 주물주물 물이 나오게 한다)
5. 4의 양념에 상추와 청홍고추를 넣고 살살 버무려 저장용기에 담아 무거운 걸로 눌러놓는다.



김동일의 건강 한방
⑩ 만성 요통과 복근

요통, 디스크만 의심하면 안 돼
〈추간판〉

허리가 아파본 사람은 안다. 허리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허리는 20대 중반부터 노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연세 있는 분이라도 그 나름대로 허리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

허리가 아픈 것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척추 사이에 있는 추간판, 이른 바 '디스크'에만 신경을 쓴다. 그러나 허리를 이루는 구조물에는 뼈와 추간판은 물론 인대와 근육 및 근막이 있다. 이들은 모두 요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이 제 위치에서 올바른 생리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통 예방과 척추 건강의 기본이다.

개나 고양이를 제 수명대로 키워본 사람들은 안다. 이들 반려동물도 사람이 앓는 병은 어지간하면 다 앓는다는 것을. 치매도 앓고, 퇴행성관절염도 앓는다. 그러나 요통에 시달리는 동물들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발 달린 동물들이 요통에서 자유로운 것은 척추의 각 마디에 연관된 부위의 체중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람은 직립하여 두발로 걷거나 앉아 있는 생활을 하면서 체중이 가장 아래쪽의 척추 마디에 가해져 누적되기 때문에 추간판의 탈출이나 다른 퇴행성 변화에 따른 요통이 생기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요통이 느껴지지는 것을 급성 요통이라고 한다. 허리를 삐끗하여 생긴 '급성 요부염좌', '압박골절', '급성 추간판수핵탈출증' 등이 흔한 급성 요통의 원인이다.

반면, 만성 요통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요통을 의미한다. 원래 통증이란 몸에 생긴 이상을 감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질병이 더 진행되기 전에 치료하라는 유익한 신호이지만 만성화된 통증은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어 오로지 고통으로만 인식된다. 따라서 만성 통증은 통증 그 자체에 대한 관리가 치료의 일차적인 목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만성 요통은 근육과 이를 둘러싼 근막의 만성적인 피로와 긴장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척추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그리고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도 중요한 인자다. 진료 과정에서는 특히 근육과 근막에 대한 치료법의 적용이 흔하다. 그 이유는 통증의 발현 부위로서 근육과 근막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근육과 근막이 결국에는 척추의 구조와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는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척추를 둘러싼 근육들은 복부에 있는 근육과 허리와 둔부 쪽에 위치한 근육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복근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중심근육 중 둔부 근육과 함께 앞뒤에서 요추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므로 만성 요통의 발생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이다.

허리에 통증이 지속되면 근육은 반사적으로 더 수축하게 되고, 환자 본인도 의도적으로 동작을 줄이고 안정을 취하려 한다. 그 결과로 일상생활의 동작이나 운동과 관련된 동작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이로 인해 운동량 역시 감소하면서 근력은 물론 근육의 양까지 줄어들게 된다. 이것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요통
만성적 피로 · 긴장이 주요 원인
플랭크운동으로 복근 강화해야

요추를 중심으로 한 척추와 고관절을 근육이 제대로 지탱하고 각각의 가동성을 잘 유지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척추와 관절이 점점 더 불안정해져서 요통이나 다양한 관절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갑자기 심하게 허리가 아프면 일단 심한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는 안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만성적인 요통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치료에 도움이 된다. 지나친 안정은 도리어 허리와 복부의 근육을 약화시켜 척추관절을 구성하는 뼈와 힘줄 및 추간판에 부담을 더 줘서 통증을 악화시키거나 고착시킬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좋아질 때까지 침 치료나 물리치료로 통증을 조절하면서 차츰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 근육의 이완과 혈액순환을 돕는 한약도 좋다.

허리를 강화시키는 운동이라서 당연히 허리 쪽 근육에 뭔가 도움이 될 운동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복근 운동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몸의 근력은 허리 쪽에 있는 배근이 복근 보다 더 강한 편인데, 배근에 비해 복근이 약하면 척추를 잡아주는 힘의 균형이 깨져 요통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허리에 직접 힘을 가하면 오히려 반사적인 근육 수축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허리를 굽혀 무거운 것을 들어올려 근육을 강화시키는 형태의 운동은 피하도록 한다. 또한 윗몸일으키기 역시 권하지 않습니다. 윗몸일으키기 동작을 하면 허리를 60도 이상 과도하게 굴곡하게 되는데, 이러한 운동 범위는 척추에 부담을 줘서 요통을 일으킬 수 있다.

복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이면서 손쉽게 할 수 있고, 실제로 유효성이 증명된 것은 무엇일까? '플랭크(Plank)' 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나 역시 하고 있는 운동이기도 하다. 환자들에게 많이 권하긴 하지만 간편한 대신 처음에 좀 힘들고 단조롭기도 한 탓에 많이 호응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나 플랭크운동을 일주일에 3회, 총 4주간 지속하면 요통으로 인한 고통이 감소하고 복근이 두꺼워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플랭크운동을 소개한다.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소개한다. 먼저 팔을 구부린 채 팔꿈치를 매트가 깔린 바닥에 대고 두 팔의 체중을 지탱하면서 엎드려 등과 엉덩이를 곧게 하여 몸을 일직선으로 편다. 눈은 15도 정도 앞쪽을 본다. 발끝은 붙이거나 어깨 넓이로 벌려 세워 고정한다. 힘이 들어가더라도 지속적으로 엉덩이와 등은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어깨, 가슴, 배, 복부,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다. 한 번에 30초~1분 정도 하는데, 같은 시간 휴식 후 3회 반복한다. 15초를 버티지 못하면 근력이 너무 약해졌거나 근육감소증일 수 있다. 차츰 익숙해지면 매회 1분 30초에서 2분 정도로 늘릴 수 있다.

〈동국대 일산불교한방병원장〉

